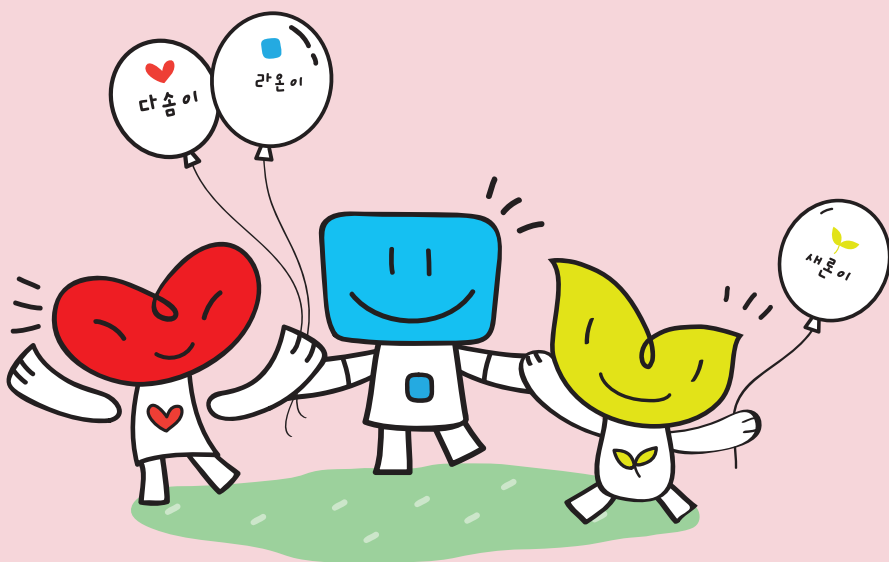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100-000053-10

# 2023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운영사례집

지식정보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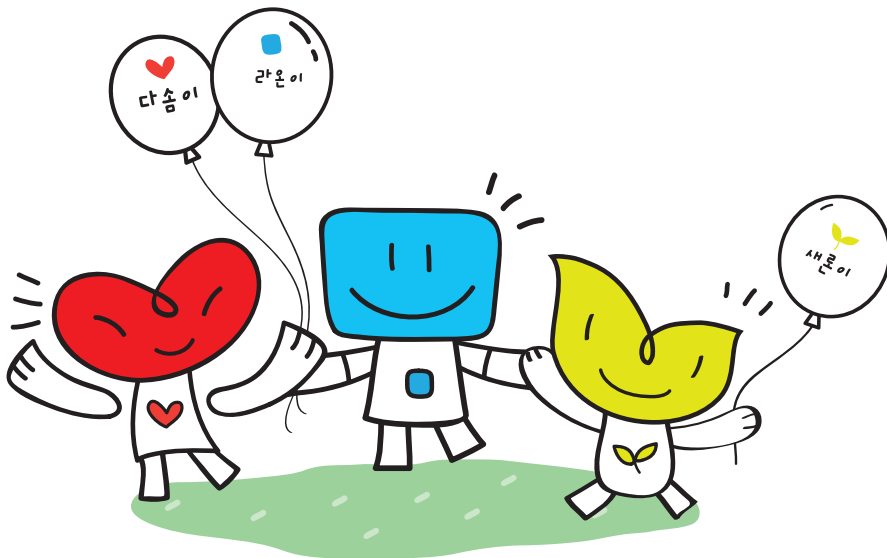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100-000053-10

# 2023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운영사례집

지식정보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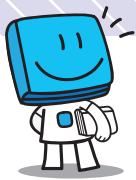


1) 본 운영사례집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운영도서관에서 2023년에 진행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중 참여자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았던 사례를 선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2) 각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운영도서관 담당자가 작성하였습니다.

3) 배열은 지역별로 구분하였고, 프로그램 내 수록 순서는 도서관명의 가나다순입니다.

\* 색 표시는 청소년 대상 운영



# 목차

## 서울

- 그림책으로 배우는 문해력 쑥쑥! 10  
강남구립못골도서관 : 한양수자인 작은씨앗도서관(강남태화기독교복지관)
- 다시, 책 쑥! 마음 쑥! 16  
강남구립정다운도서관 : 강남교육복지센터
- 마음도 크고 생각도 크고 꿈도 크고 24  
강서구립강서영어도서관 : 화곡지역아동센터
- 두근두근 함께 커가는 독서 교실 30  
개봉도서관 : 하모니지역아동센터
- 청소년, 도서관과 함께 사회를 읽다 38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 두근두근 이야기 보물찾기 44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 LH행복꿈터열린마음지역아동센터
- 책 씨앗이 자라나 책 나무로 쑥! 50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 나래지역아동센터
-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도서관 60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 지구촌학교
- 웃음 가득한 책 놀이동산 68  
은뜨락도서관 : 갈현지역아동센터
- 도서관과 함께 놀자! 78  
자양한강도서관 : 자양종합사회복지관
- 그림책으로 다독다독 마음 읽기 86  
학마을도서관 : 참솔지역아동센터

## 부산

- ‘함께’라서 즐거웠던 시간 92  
금샘도서관 : 두레지역아동센터
- ‘함께’라서 가능한 즐거운 책 읽기 98  
범어도서관 : 황금지역아동센터





## 대구

- 책과 친해지는 소중한 시간 104  
대구시립동부도서관 : 동대구지역아동센터

## 인천

- 책을 통해 알아가는 “나와 우리” 112  
검암도서관 : 새일꾼지역아동센터
- 우리의 진로는 특별하다! 진로이즈백(剖) 118  
수봉도서관 : 미추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경기

- 두 눈을 반짝반짝, 책 읽는 어린이 126  
꿈나무정보도서관 : 아이들웃음터지역아동센터
- 하하 호호 웃음 가득 동화 놀이터에 놀러 오세요 132  
송산도서관 : 화성푸른지역아동센터
- 그림책 세상과 소통하기 140  
일가도서관 : LH행복꿈터미사강변지역아동센터
- 오늘은 어떤 책으로 놀까? 146  
정남도서관 : 정남지역아동센터

## 충북

- 읽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156  
청주가로수도서관 : 청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느티나무

# 목차

## 충남

- 「배우니까 좋다」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 고장 금산의 역사 162  
 금산기적의도서관 : 미래클지역아동센터
- 우리의 이야기 나누며 나의 꿈을 키우며 170  
 서산어린이도서관 : 화목한지역아동센터

## 전북

- 매주 목요일, 그림책 읽는 시간 178  
 정읍기적의도서관 : 신정지역아동센터

## 전남

- 동화와 함께하는 뮤지컬 186  
 목포시립도서관 : 목포시가족센터

## 경북

- 함께 하자, 도서관 192  
 칠곡군립도서관 : 베다니지역아동센터

## 제주

- 책은 오늘도 우리를 성장시켜요! 200  
 우당도서관(조천읍도서관) : 꿈나무지역아동센터
- 부록 206
- 색인 208





## 사업목적

- 지식정보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에게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및 정보·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
- 독서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추후 사회 적응 및 진로 방향 설정을 돕기 위한 도서와 독서문화프로그램 제공



## 사업개요

- 운영 기간 2023년 4월~10월(7개월)
- 주 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운영 기관 전국 공공도서관 (120개관)
- 참여 기관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등
- 참여 대상 지식정보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 사업 내용 지식정보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도서 제공



## 추진경과

- 2023년 3월 운영도서관 선정(120개관)
- 2023년 4월 ~ 10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2023년 11월 운영사례집 제작·배포
- 2023년 11월 우수 사서 표창



## 운영현황

- 프로그램 운영
  - 운영 횟수: 1,831회 (어린이 1개관 당 15회 이상 / 청소년 1개관 당 10회 이상)
  - 참여 인원: 16,213명 (어린이 15,318명 / 청소년 895명)

- 지역별 운영도서관 \*( )는 청소년 대상 운영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도서관수	26(2)	5(1)	9(1)	9(1)	2(1)	2	1	13(2)	5
지역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0(10)	
도서관수	3(1)	4	5	6(1)	8	9	3		

- 유형별 참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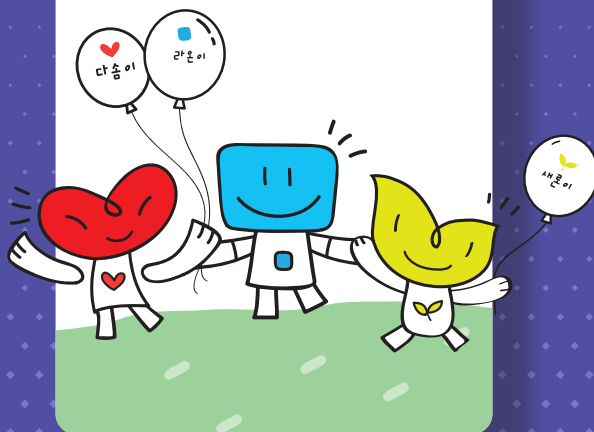
유형	어린이 대상 (110개관)					청소년 대상 (10개관)			계
	지역 아동센터	아동 복지시설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드림 스타트 센터	기타	청소년 지원센터	단기 쉼터	기타	
기관수	85	8	7	3	7	6	1	3	120



2023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운영사례집



# 그림책으로 배우는 문해력 쑥쑥!

## 김미리

강남구립못골도서관

안녕하세요 강남구립못골도서관 사서 김미리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한 어린이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참여기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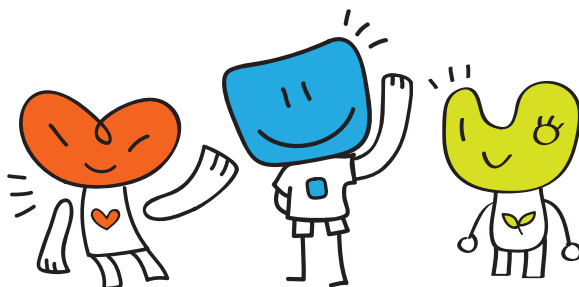
한양수자인 작은씨앗도서관(강남태화기독교복지관)

### 참여인원

초등 1~3학년, 12명

### 운영기간

[총 15회] 2023년 5월 3일 ~ 8월 17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반가워, 못골도서관은 처음이지?

5월 3일(수) <그림책으로 배우는 문해력 쑥쑥!>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첫날이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설레었고, 준비한 내용을 어떻게 느낄지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프로그램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어린이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다. 복지사님과 함께 온 친구들도 있었고, 엄마의 손을 잡고 온 친구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못골도서관에 처음 방문하였으며,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어색함을 풀기 위해 자기소개를 진행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서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보내준 독서노트를 활용하여 독후 활동을 진행하고 모음·자음을 활용한 보드게임을 통해 어린이들의 어휘력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게임을 통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도서관 활용 수업 1



도서관 활용 수업 2



## 어서와, 문해력 수업은 처음이지?

정지선 독서지도사 강사님과 함께 ‘문해력’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시각적 문해력 키우기’, ‘의사소통력 키우기’, ‘비판적 수용력 키우기’, ‘창조적 사고력 키우기’, ‘독해력 키우기’ 등 세분화하여 10회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활동지를 위주로 독후 활동을 진행해보려고 했지만, 글쓰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맞춤법을 모르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만들기와 자신의 생각 발표하기 등의 활동을 섞어가면서 진행했다. 강사님과의 수업 회차가 거듭될수록 참여 어린이들과 친밀감이 쌓이면서,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는 수업 분위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모르는 맞춤법을 물어볼 때, 혹은 발표 시간에 부끄러워하거나 거부하던 어린이들이 자신이 먼저 하겠다며 손을 들기 시작했고, 강사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강사와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1



강사와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2



## 새로워, 작가와의 만남은 처음이지?

‘문해력’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할 때, 어휘력이나 문법에 관련된 시간을 마련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작가님들의 그림책을 살펴보면 중, 『내 마음 ㅅㅅㅎ』의 김지영 작가님과 『왜 띄어 써야 돼?』의 박규빈 작가님의 도서를 발견하게 되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작가님들께 연락을 드렸을 때, 두 분 모두 흔쾌히 강연을 수락해 주셨다. 드디어 작가님과의 만남이 진행되던 날이 다가왔다. 평상시 장난기가 많은 어린이들이지만, 두 번의 작가님과 함께 하는 시간에서는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강연을 듣고, 열심히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가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참여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집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챙겨와 작가님의 사인을 받아 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내 마음 ㅅㅅㅎ』의 김지영 작가와의 만남



『왜 띄어 써야 돼?』의 박규빈 작가와의 만남



## 못골도서관에서 자주 만나요!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그 주의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채\*\* 어린이를 만날 수 있었다. 도서관에 비치된 어린이 의자에 앉아 부모님과 함께 의젓하게 책을 읽는 모습이 너무 반갑고, 대견하여 살짝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나를 보고 해맑게 웃어주던 채\*\* 어린이는 집에 가기 전에도 나와 눈을 맞춰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도서관에서 나가기 전에 채\*\* 어린이 부모님이 데스크에 오셔서 그동안의 수업이 너무 좋아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건네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으며, 다른 친구들도 도서관에 자주 방문해서 책을 읽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사서와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1



사서와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2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책을 읽어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간식도 감사합니다. 또 하고 싶습니다. **문\*\*(초등3, 남)**
- 다양한 책을 접하고, 책으로 놀이를 하고, 글쓰기를 배우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어서 만족합니다. **류\*\*(초등2, 여)**
- 가까운 곳에서 진행된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이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에 또 진행하게 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박\*\*(초등1, 여)**
- 글을 쓰는 건 어려웠지만, 책 읽어주는 건 재밌었습니다. **박\*\*(초등2, 여)**
- 집에서는 책을 잘 안 읽는데, 재밌는 책을 읽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받은 책을 할머니와 함께 읽어서 좋았습니다. **이\*\*(초등1, 여)**

### 사서의 소감 한마디

근래에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숨어 있는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문해력 수업에서 '언어의 빈곤'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적절한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서 점차 행동보다는 언어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어가 풍부해지면서 생각의 범위도 넓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아이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아이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문해력 수업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정지선(독서지도사)**

### 강사의 소감 한마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참여 어린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반가워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프로그램에 오기 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 나누며 소통했습니다. 친근한 사서 선생님이 되어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가 더 깨닫는 게 많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문해력(어휘력)이 늘어나면서 글쓰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물어보는 횟수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문해력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사서가 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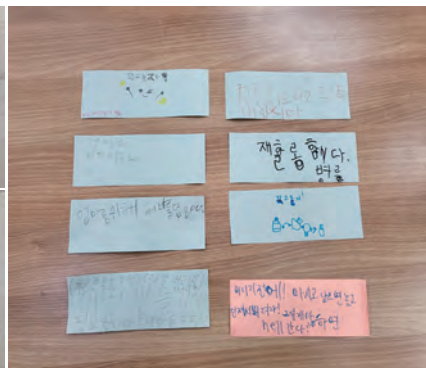
### 참여기관 담당자의 소감 한마디

안녕하세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조윤정 사회복지사입니다. 못골도서관과 함께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내 정보취약계층 아동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만날 수 있었으며, 작은씨앗도서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자신감이 향상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음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정(사회복지사)**

안녕하세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김경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역의 어린이들과 전문적인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책을 재미있게 접할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회기별로 다양한 책을 함께 읽고, 그에 맞는 활동이 진행되어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 밖의 야외 프로그램까지 진행해주신 것에 대해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은(사회복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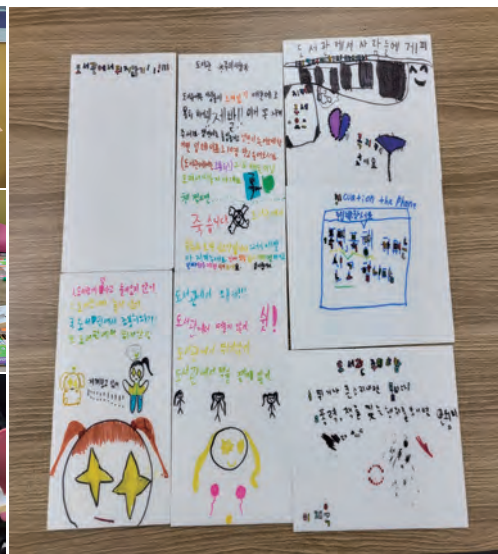
‘친구들과 함께 마을 꾸미기’ 활동



‘나만의 띠 라벨 만들기’ 활동



‘의성어·의태어 활용 부채 꾸미기’ 활동



‘나만의 띠 라벨 만들기’ 활동

## 다시, 책 속! 마음 속

### 현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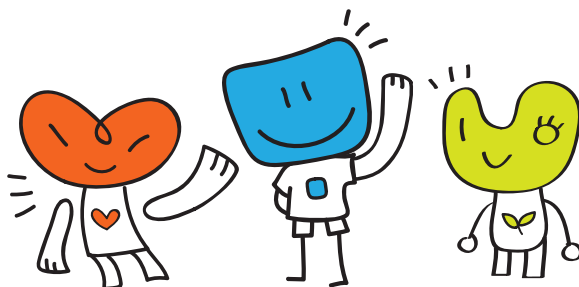
강남구립정다운도서관

쌀쌀한 계절인 봄에 시작하여 가장 뜨거운 여름까지 도서관에서 매주 책과 관련된 즐거운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정다운도서관이 아이들에게 도서관이 정답고 재미있는 추억이 가득한 공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참여기관명** 강남교육복지센터

**참여인원** 초등 1~2학년, 10명

**운영기간** [총 15회] 2023년 5월 3일 ~ 8월 9일,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4시 30분







## 갑자기 다가온 시즌 2

책 쑥! 마음 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프로그램을 모집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작년에 성공적으로 끝냈던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까?



## 우리 동네 사랑방, 정다운도서관

정다운도서관은 청담평생학습관 3층에 위치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수강하러 온 아이들이 오다가다 잠시 쉬러 오는 공간이자, 책을 읽으러 오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공간이다.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면 위층에선 피아노 소리와 기타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고, 건물의 지하 공간에서는 줄넘기를 하기 위해 양손에 줄넘기를 들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가기 전, 잠시 들려 책을 읽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닌 도서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 시즌 2를 시작했다.



## 도서관 200% 활용하기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친근하게 만들려면 사서 선생님과 친해져 유대관계를 쌓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선생님께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전, 필명을 지어보자고 했다. 아이들이 연상하기 쉽도록 머리가 보글거리는 파마를 한 선생님은 ‘보글쌤’, 딸기를 좋아하는 선생님은 ‘딸기쌤’. 얼굴과 마음이 동글동글한 강사님은 ‘동글쌤’, 캔디를 좋아하는 강사님은 ‘캔디쌤’. 아이들에게 다가가려면 이만한 별명이 없었다.

아이들에게 첫 수업인 만큼, 나이도 학교도 다른 친구들이 모여 쭈뼛거리는 상황. 함께 좋아하는 것, 장래희망, 싫어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알아갔다. 그리고 또박또박 ‘인사를 나눠드립니다’를 활용해 인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처음 만난 아이들끼리 서로 인사도 하고, 내 주위 이웃들과 함께 인사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로 도서관에 오면 늘 만화 서가로 달려가거나, 당장 눈에 보이는 책을 찾기 일쑤였던 아이들에게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검색하고 위치를 직접 찾아보는 경험을 체험할 시간이 되었다. 먼저 ‘반납’,

‘연체’, ‘대출 정지’ 등 아이들에게 낯선 도서관 용어를 알려주며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책을 검색해보록 했다. 특히 길고 복잡한 청구기호는 아이들에겐 암호나 다름없기에, 청구기호를 해석하는 방법도 게임을 통해 배웠다. 2번의 도서관 이용 교육 수업 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은 원하는 책을 검색하고 청구기호를 이용해 책을 찾으며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해 갔다.



도서관 활용 수업 (1)



도서관 활용 수업 (2)



도서관 활용 수업 (3)



## 우리의 변화는 책으로부터

강사님들과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책 쏙! 마음 쏙! 수업을 계획하며 가장 공을 들였던 건 역시 독서 활동 부분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독서를 ‘자유롭고 흥미진진한 놀이’로 인식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랐기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을 계획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어린이 독후 활동 전문가이신 두 강사님이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알고 계셔서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었다.

아이들도 신경을 많이 썼던 걸 아는지 대부분의 활동에 재미있게 참여해 주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반응이 좋았던 수업은 <조용한 빵 가게> 수업이었다. 장애와 이웃을 주제로 한 책인데, 아이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지루해할까 조금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편협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강사님의 부드럽고 온화한 낭독에 아이들은 금세 빠져들었다. 점자블록이나 음성 안내 신호등 같은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수어를 진지하게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진정으로 수업에 임하는 아이들을 보고 수업이 혹여나 지루하지 않을까 마음 졸였던 내가 약간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낭독이 끝나고는 <조용한 빵 가게>의 주인공처럼 말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샌드위치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야기하기를 무척이나 좋아하면서도 말을 참으려 노력하는 아이들을 보니 기특하면서도 귀여워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식빵에 잼을 바르는 순간에 결국 참지 못하고 재잘재잘 귀여운 아이들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15회차 수업을 통틀어 유일하게 조용했던 순간이었다.

5주에 걸쳐 내용 구상, 스토리보드부터 가편집 책까지 그림책 출판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더미북’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그림책 출판 경험이 다수 있는 강사님 덕분에 만들기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창작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다. 강사님은 수업 중에도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그때 새로운 활동을 제안하기도 하셨는데, 아이들의 성향과 반응을 신경 쓰시는 세심한 강사님 덕분에 아이들은 상상력을 더욱 맘껏 펼쳐낼 수 있었다. 처음엔 글씨 읽는 것도, 쓰는 것도 힘겨워하던 아이들이 8절지 속에 자신의 작은 세계를 조금씩 펼쳐갔다. 선생님께 맞춤법을 물어보며 더듬더듬 문장을 써가는 아이들을 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한층 더 성장했음을 느꼈다. 8절지 여덟 장 분량의 동화를 모두 완성한 친구들은 종이와 종이 사이를 풀칠해 진짜 ‘더미북’을 완성했다. 표지도 멋지게 꾸미고 작가란에 자신의 이름도 넣으니 정말 그럴싸한 그림책 한 권이 만들어졌다. 활동이 모두 마무리된 후 우리끼리 작은 낭독회를 열었는데, 아이들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완성된 걸 보니 절로 흐뭇한 마음이 깃들었다.



동글샘과 함께하는 수업 <조용한 빵가게>



캔디샘과 함께하는 수업 <더미북 만들기>



완성한 그림책 발표하기



## 진짜 작가님도 ‘더미북’을 만드세요?

더미북 만들기 과정에 맞춰 독특한 그림책을 제작하시는 작가님과의 만남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에서 제공해 준 강사 인력풀을 통해 『우리 곧 사라져요』의 이예숙



작가님과 『호랑떡집』의 서현 작가님께 강의를 요청했다.

이예숙 작가님과는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함께 『우리 곧 사라져요』, 『이상한 구십구』를 읽고 바다 멸종 위기 동물과 바다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 나눈 후 그림책 팝업북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서현 작가님과는 『호랑떡집』 특유의 아기자기하고 디테일한 그림을 함께 보며 작가님의 작업 과정, 캐릭터 탄생 비화 등을 설명 듣고 캐릭터를 직접 창작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두 작가님께 사전에 더미북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두 분 모두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본인의 작업 스타일이나 실제 더미북 등을 보여주셨다. 이예숙 작가님의 팝업 스타일을 고려해 만든 더미북, 서현 작가님의 어린이 손바닥보다도 훨씬 작은 사이즈의 미니 더미북을 구경하며 눈을 빛내는 아이들. 작가님과의 만남을 통해 독서 활동에 더욱 흥미를 붙이는 듯해 작가님들도 우리도 모두 부듯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독서문화체험프로그램 1-이예숙 작가와의 만남



독서문화체험프로그램 2-서현 작가와의 만남



## 계절이 지난 만큼, 마음도 반 뼉 자란 아이들

처음에는 그저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온 아이들이 매주 수요일 방과 후 시간이 되면 도서관에서 재밌는 활동을 하는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열 명의 아이들이 매주 참석하는 날들이 늘어났다. 첫 만남에 부끄러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서관 친구’라고 부를 만큼 수업 시간 전에 재잘재잘 떠들기도 했다. 처음 책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야 돼요?’라고 물어보던 아이들이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해요’라며 자신의 의견을 씩씩 적어내기 시작했다. 의견을 누구보다 먼저 발표하기 위해 손을 번쩍 드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자라난 키만큼 책을 읽고 표현하고 활동하는 마음도 쑥쑥 자랐구나 싶었다. 첫 번째 작가와의 만남 때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 집에 후다닥 가기 바빴던 아이들의 모습이었던다면, 두 번째 작가님이 왔다 가신 이후에는 눈을 톨망톨망 뜨며 ‘다음에 작가님 또 언제 와요?’라고 물으면서 같이 꾸렸던 프로그램실의 뒷정리를 도왔다.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내는 나와

달리 아이들에게는 경험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또 그 순간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이 더미북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언제 저렇게 무릎이 자랐지 싶었는데 아이들은 그동안 키가 클 뿐만 아니라 마음도 반 뽕 자란 듯했다. 프로그램이 끝나 아쉬워하는 아이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말했다. ‘우리, 내년에 또 만나!’



책 읽어주세요 연계수업 1



책 읽어주세요 연계수업 2



책 읽어주세요 연계수업 3



책 읽어주세요 연계수업 4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프로그램을 하면서 책 읽기가 좋아졌어요. 이\*\* (초등2, 여)
- 같이 책을 만들어서 좋았어요. 임\*\* (초등1, 여)
- 다 같이 게임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작가 선생님이 재미있어서 좋았어요. 전\*\* (초등1, 여)
- 만들기 활동해서 재밌었고 그림 그리는 게 재밌었어요. 이\*\* (초등2, 남)
- 프로그램이 만족스러웠고 재밌었다. 하지만 2학기에 사서 선생님들을 못 만나서 아쉬워요. 김\*\* (초등2, 여)

## 사서의 소감 한마디

시작하기 전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이들과 15주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중간에 이탈하지는 않을까? 작년에 성공적으로 마쳤던 프로그램을 내가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 걱정이 오가는 동안 프로그램은 무탈하게 진행이 되었고, 유난히 밝고 잘 따르는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할 수 있다’는 힘을 얻었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은 저뿐만 아니라 함께 고군분투한 유진 선생님, 강사 선생님들, 작가님들과 아이들까지 수많은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모여 함께 이루어낸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사람의 힘이 모여 프로그램을 끝까지 잘 마무리한 만큼 제 기억 속에서도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이후에도 도서관에 자주 방문하여 책을 읽고, 해맑게 웃으며 먼저 손을 뻗어 인사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프로그램 진행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며 웃곤 합니다.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은 많지만 이렇게 서로 애뜻한 마음을 나누는 아이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프로그램은 끝난 지는 오래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도서관에서 만나던 시간이 종종 떠오르곤 합니다. **현서림(사서)**

책 썩! 마음 썩! 프로그램이 종료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요새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도서관에 옵니다. “이 선생님이 딸기쌤이야~” 하며 저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때는 정말 웃음을 참을 수 없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덕분에 오로지 아이들만을 위한 좋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아이들이 도서관을 즐겁고 자유로운 곳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 사서로서의 큰 보람을 느낍니다. ‘15회라는 만남이 아이들에게 지루했던 건 아닐까?’, ‘프로그램의 끝이 나에게만 아쉬운 걸까?’ 하고 걱정했는데, 아이들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김유진 (사서)**

## 강사의 소감 한마디

학교 공부를 마치고 땀범벅이 되어 허겁지겁 달려온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은 시간을 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맘껏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손놀이와 말놀이 등 게임을 시작으로 마음을 이완시킨 후 그림책 속 그림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갈수록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자신을 표현해 나가는 아이들을 보며 함께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가을, 생각이 쏙쏙 커나가고 있을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박경숙(강사)**

그림책을 기획, 제작하기도 하지만 그림책 속의 이야기를 감정으로 담아내는 일도 합니다. 정다운도서관에서 만난 아이들은 첫 만남이 감정에 대한 나눔이었습니다. 각자의 별칭을 표현했는데, 저의 어릴 적 별명인 '캔디'를 사용하게 되어 흐뭇했습니다. 한 친구가 작은 메모지에 저를 그려 주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처럼 경계도 하지 않고 각자의 성격대로 10가지 색으로 둥글둥글 잘 어울렸습니다. 처음에 나는 어떤 동물일까? 라는 이야기로 1학년, 2학년 아이들답게 표현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꼬마 곰 프리다'를 통해 세이프 게임으로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간다는 즐거움, 아이들의 호기심이 빛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다섯 권의 그림책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발견해 나가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여덟 컷의 스토리를 짜고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정다운도서관 사서 선생님처럼 아이들과 어린이의 마음으로 놀아주는 사서는 처음 보았습니다. 들어주고 공감하며 어떤 것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노래 부르듯 흥겨운 모습에 아이들도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업 5주 차에는 휴가철과 겹쳐 마지막 더미북을 완성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더미북 발표회를 가지면서 영상 제작도 해보고 자신이 만든 소중한 더미북을 엄마와 할머니에게 펼쳐 보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올라 절로 웃음이 납니다. 아이들의 미래의 꿈이 멋지게 펼쳐지길 기대하며 다시 만나고 싶은 정다운도서관 친구들입니다. **남궁기순(강사)**

# 마음도 크고 생각도 크고 꿈도 크고

## 오 남 경

강서구립강서영어도서관

강서영어도서관은 영어로 특화된 Second School Library로 누구에게나 평등한 영어교육 기회와 전 생애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화도서관이자 공공도서관의 사서로서 영어독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를 어려워했던 아이들에게 영어독서의 즐거움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참여기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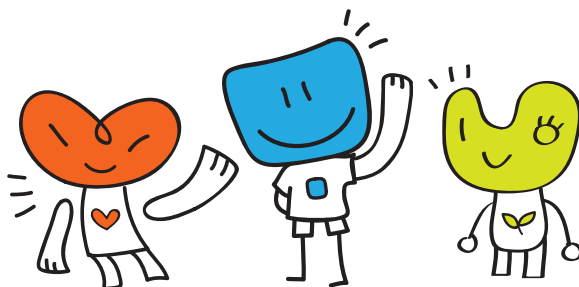
화곡지역아동센터

**참 여 인 원**

초등 2~4학년, 10명

**운 영 기 간**

[총 17회] 2023년 4월 6일 ~ 8월 4일,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강서영어도서관은 영어특화도서관이자 공공도서관으로 누구에게나 영어도서를 제공한다. 영어 학습이 필수가 된 오늘날이지만 지역사회 곳곳에 영어소외계층, 곧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있다. 지역의 특수성, 환경, 경제력 등의 다양한 요소로 영어 독서 및 학습에 소외된 아이들이 있고, 영어뿐만 아니라 문해력의 부분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2022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본적인 정규교육 과정 외에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즐거운 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식정보취약계층 아이들의 정보격차 해소의 과정은 단기간에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더해졌을 때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화곡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고 아이들의 성장도 함께 지켜볼 수 있었다. 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생각과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다.



## 영어도서관이 살아있다

강서영어도서관이 살아있다! 도서관에 가면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물론 책을 읽는 공간인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 하지만 영어그림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강서영어도서관은 조용히 북적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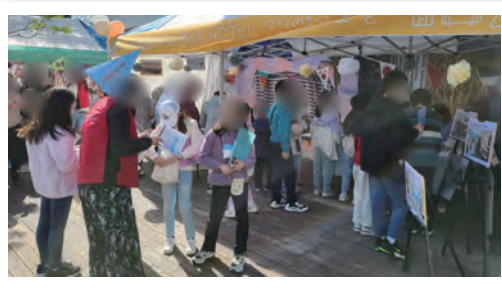
학습을 위해 영어독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어독서는 단순히 학습적 측면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 책 속 이야기를 읽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내용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 집도 아니고 학교도 아닌 도서관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아이들을 초대하였다.

### (1) 아시아나와 함께하는 강서영어 시티캠프

영어캠프라고 하면 ‘파주영어마을’을 떠올리곤 한다. 영미문화권 마을을 통째로 가지고 들어온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체험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요건으로 파주 영어마을에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영어캠프를 도서관에 가지고 들어왔다. 입국에서부터 호텔 체크인, 레스토랑에서 음식 주문, 도서관에서 책 빌리기, 마켓에서 물건 사기까지, 각 장소별 부스를 설치하여 일련의 과정을 영어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영어캠프를 진행했다.



여행을 떠나는 주인공과 함께 아이들도 여행의 준비를 시작했다. 여행에서 사용하게 되는 기본 표현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배우고, 기초 문장을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각 부스에서 직접 역할극을 하며 사용해볼 수 있도록 했다. 조별로 나뉘어 부스를 체험하며 아이들이 여행의 체험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김○○ 친구는 공항부스에서 입국심사를 거쳐 도장을 받았을 때가 가장 설레었다고 했다. 시티캠프는 강서구 내에 위치한 아시아나 항공의 협조와 영어재능기부 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행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



## (2) 빨간머리 앤이 되어 힘차게 나아가 보자

주근깨 뽀뽀마른 빨간머리 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가정의 달 5월, 강서구에서는 동화 속 주인공으로 변신하여 함께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강서어린이 동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는 ‘빨간머리 앤’ 속 등장인물 중 앤, 다이애나, 길버트가 되어 퍼레이드에 참여하였다.

꽤 오래전에 나왔던 동화였기에 아이들이 모르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많은 아이들이 알고 있어 놀라웠다. 앤은 책을 좋아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당찬 캐릭터로, 아이들에게 앤의 용기와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랐다.

양 갈래 빨간 머리에 밀짚모자를 쓴 앤, 왕리본을 달고 꽃바구니를 든 다이애나, 방모자에 주황 조끼를 입은 길버트까지! 모두 변신을 마치고 빨간머리 앤의 주제가를 부르며 함께 길을 나아갔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앤의 대사를 함께 외치며 함께 각자 자신의 꿈을 위해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I’ll be ambitious!”



### (3) 아이들을 사랑한 작가 로알드 달의 번역가와 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여행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마술 손가락 등 아이들을 위한 작품을 썼던 작가 로알드 달. 어렸을 적 로알드 달의 책을 읽으며 주인공의 멋진 도전을 응원하고, 함께 상상의 세계를 키워갔던 기억이 있다. 나아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닌 어느 작가의 책을 이어서 읽는 경험은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이제 책에 대한 흥미를 조금씩 키워가는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을 나눠주고 싶었다.

로알드 달의 책은 영어로 읽기에는 수준이 높았기에 한글도서와 다양한 영상자료를 준비했다. 아이들에게 책을 먼저 주어 스스로 독서를 하게 한 다음, 책의 온전한 소화를 도울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로알드 달 작품의 대표 번역가인 김난령 선생님과 함께 그의 이야기를 돌아보았다. 2회에 걸친 작가와의 만남 수업에서 아이들이 온전히 그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번역가님이 준비한 발표 자료를 보는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고,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아이들의 발걸음에는 설렘이 묻어있었다. 작가와의 만남 수업이 가장 좋았다고 했던 한 친구는, 번역가님께 사인을 받을 때 나만의 소중한 책이 생겼다고 책을 소중히 가지고 돌아갔다.







#### (4) 과학의 역사에서 미래 우주과학까지

얼마 전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가 우주로 떠올랐다. 누리호의 성공으로 우주와 과학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이 뜨거워진 이때, 과학 도서를 배놓을 수 없었다. 어린이 공학자 Jabri(자브리)의 이야기와 태양계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난 후, 이를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과학관으로 견학을 떠났다.

과천과학관은 과학의 역사에서부터 미래과학까지 아이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다. 과학의 시작이었던 자연사 과학관과 과학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한 신소재공학과,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미래우주과학관까지, 과학관의 가장 좋은 점은 강의식 수업도 아니고 박물관처럼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도 아닌, 직접 손을 만지며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과학원리를 활용한 체험으로 아이들의 즐거운 미소를 볼 수 있었다.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게 신났어요. 또 참여하고 싶어요. 이\*\*(초등4, 남)
- 사서선생님이랑 자주 수업하고 싶어요. 자주 보고 싶어요. 염\*\*(초등3, 여)
- 작가님이랑 하는 수업이 끝나고 받은 책이 너무 좋아요. 이\*\*(초등4, 남)
- 도서관에 놀러 갈거예요. 김\*\*(초등3, 여)

### 사서의 소감 한마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와는 다르게 아이들이 도서관을 즐겁고 행복한 공간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었기에 아이들이 책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직접 체험하고,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 내려가는 아이들을 볼 때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긴 글쓰기와 영어 작문에 어려움을 느꼈던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이 기뻐했습니다.

영어도서를 쉽게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영어 그림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으로 접근장벽을 허물고, 나아가 영어책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도서관에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책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상상력과 꿈을 키워 자신의 미래를 찾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참여기관 담당자의 소감 한마디

2년 연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도서관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참여하기 전에는 책에 대해 흥미가 없었고 읽더라도 만화책을 읽거나 아주 얇은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책 읽기에 흥미가 생겼고, 만화책 이외에 다른 책에도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집중하면서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책의 이야기에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자신이 몰랐던 영어단어를 알게 되어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책과 연관되고 그것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화곡지역아동센터 엄송희)

# 두근두근 함께 커가는 독서 교실

## 김민경

개봉도서관

구로구립개봉도서관 사서 김민경입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고, 책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해주어서 뿌듯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참여기관명

하모니지역아동센터

### 참여인원

초등 1~4학년, 10명

### 운영기간

[총16회] 2023년 5월 15일 ~ 9월 11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30분





## 첫 만남, 첫 수업

수업 시작 전에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쉽게 이용자 교육을 받아들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아이들이 청구기호를 쉽게, 재미있게 받아들이 수 있도록 청구기호와 책 서명이 적힌 쪽지를 뽑아 찾아오는 게임을 준비했다. 준비해 둔 쪽지를 다 뽑고도 아이들은 책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청구기호를 처음 보는 아이들도 있어서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조금씩 힌트를 주며 책을 찾아보도록 했다. 첫날 수업의 마무리로 아이들 각자의 도서 대출증을 이용해 책을 빌려보도록 했고, 주제 도서인 『사서가 된 고양이』 활동지를 통해 나만의 장서인을 그려보도록 숙제를 내주었다. 아이들이 그린 장서인은 스티커로 만들어 수업이 끝난 후 각자의 책에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교육 (5.15)



이용자 교육 (5.15)



## 설렘 가득 작가와의 만남

(『내 마음 ㅅㅅㅎ』 김지영 작가와의 만남, 『나는 토끼 품품』 이새롬 작가와의 만남)

작가와의 만남은 7월 10일, 8월 21일 두 번 진행했다.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기 전 아이들에게 “다음 수업 때는 작가님이 오실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책을 한 번 더 읽어오도록 미리 책을 나누어주었더니 아이들 모두 설렘했다.

첫 번째 작가와의 만남은 『내 마음 ㅅㅅㅎ』 김지영 작가님과의 만남이었다. 작가님과 만나기로 한 날, 아이들 모두 눈을 반짝이며 작가님을 기다렸다. 작가님께 책이 만들어진 배경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책 속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초성 퀴즈 카드로 낱말도 만들어 보고, 내 마음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작가님께 각자의 책에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작가와의 만남은 『나는 토끼 품품』 이새롬 작가님과의 만남이었다. 책 표지에 토끼 품품이가

그려져 있어서 아이들 모두 책을 받자마자 너무 귀여워하며 책을 반겨주었다. 작가님과 만나서 작가님께서 읽어주시는 품품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재료로 책을 만들었는지도 함께 들었다. 작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활동지에 그려진 품품이를 꾸며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함께 적어보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했다. 작가님께 각자의 책에 사인을 받고 인사를 하며 수업을 마무리했다. 수업이 끝나기 전 한 친구가 슬며시 다가와 “선생님 저는 작가님이 이렇게 오시면 마음이 너무 설레요”라고 수줍게 말해주었는데, 그 말을 듣는 데 마음이 사르르 녹아드는 느낌이 들었다.



김지영작가님과과의 만남 (7.10)



이새롬 작가님과과의 만남 (8.21)



## 즐거움 가득 웃음 가득 꾸샘과의 동화나라

16회차의 수업 중 10회차를 진행해 주시는 꾸샘과의 수업은 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처음 강사님과 수업을 진행할 때는 강사님이 책을 읽을 때 짚어주셔야만 보고, 찾던 출판사를 점점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가면서 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초반에는 수업에 집중을 못 하고, 집에 가야 한다며 나가려고 했던 친구도 점차 수업과 독후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멋진 작품을 완성하기도 했다.

5회 수업에는 그동안 아프고, 연휴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모두 모인 날이었다. 주제 도서는 『별 낚시』 강사님이 가져오신 도서에는 김상근 작가님의 사인이 있어서 아이들이 더 쉽게 집중하면서 동화를 들을 수 있었다. 잠이 오지 않는 친구들이 나오는 책인 만큼, 나는 잠이 오지 않을 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진행했다. 온 가족을 다 깨운다는 친구도 있었고, 엄마 아빠한테 간다는 친구들도 있었다. 책을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책 속에서 잠들지 않은 친구들도 찾아보았다. 독후 활동으로 달 토끼 조명을 만들었는데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이 많이 있었다.

6회 수업을 진행하는 날이었다. 주제 도서는 『던져라 공깃돌』이었다. 주제 도서를 다 읽고, 독후 활동으로 공깃돌을 만들고, 다양한 방법의 공기놀이를 진행했다. 놀이를 할 때, 다른 친구의 공기와



섞이지 않도록 공기를 꾸였고, 공깃돌을 이용해 훌쩍 놀이도 하고, 코끼리 손으로 탑을 쌓기도 했다. 공깃돌을 쌓다가 떨어져도 다시 쌓고,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웃고 즐거워했다. 수업을 준비해 주신 강사님도, 수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나도 너무나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5회차 별냇시 (6.19)



6회차 던저라 공깃돌 (6.26)



## 눈물의 마지막 수업

10회차 수업을 진행해 주셨던 강사님과의 마지막 수업 날이었다. 유독 강사님을 잘 따랐던 한 친구는 강사님과의 마지막 수업을 앞두고는 왜 끝나냐고, 선생님 다음에는 언제 오냐면서 울먹었다.

강사님과의 마지막 수업 주제 도서는 『상자거북』이었다. 틀린 것이 아닌 다른의 이해에 대해 배운 시간이었다. 책 속 주인공처럼 나만의 등딱지 보관함을 만들어 보았는데, 그 친구는 만든 상자에 강사님과의 마지막 수업 날이라고 적어두면서 서운함을 드러냈다. 주인공 거북이와 비슷한 다른 거북이의 동화를 듣고, 다른 거북이 보관함을 만들어 보았다.

마무리 인사를 하고 수업이 끝나자 강사님을 잘 따랐던 그 친구도 울고, 강사님도 우시고, 빨개진 눈으로 사진을 찍으며 강사님의 10회차 수업이 끝이 났다.

16회차의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수업이 정말로 끝나는 날이 왔다. 수업을 준비하러 센터에 방문하자마자 아이들이 “선생님 오늘 정말 끝나요?” 하면서 많은 질문을 해왔다. “왜 벌써 끝나요? 언제 다시 와요?”라고 하면서 수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는 친구도 있었다.

마지막 날 수업 주제 도서는 『인사를 나눠드립니다』였다. 아이들과의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 아이들 인원수가 10명이기는 하지만 센터 구조상 모두가 또복또복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PPT 자료를 만들었다. 수업이 끝나는 날이 9월이니, 인사말을 적은 카드와 단풍나무를 만들어 인사말 나무 만드는 활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보았던 책들을 다시 한번 더 보았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편지를 쓰고 싶었던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걸 추가로 진행했다.

아이들은 그동안 수업을 진행해 주셨던 강사님들과 작가님들, 그리고 나에게 편지를 써주었다. 사랑한다고, 즐거웠다고, 또 만나자고 적혀있는 아이들의 편지는 정말 소중히 간직해야 할 보물이었다. 센터 1층에서 아이들에게 마지막 책을 나눠주고,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나누어준 책에 간단한 메시지를 적고 이름을 적은 후 아이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다. 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 센터장님이 선생님 보고 싶으면 너희들이 도서관에서 가서 선생님 보면 된다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선생님 보러 도서관에 가겠다는 아이들과 인사를 하며 정말로 수업이 끝이 났다.



15회차 상자거북 (9.4)



16회차 인사를 나눠드립니다. (9.11)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선생님! 그동안 재미있게 동화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10세, 여)**
- 선생님이랑 수업하니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김\*\*(9세, 여)**
- 항상 재미있는 수업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만날 기회 있으면 만나요 사랑해요. 앞으로 계속 수업해주세요. **ㅏㅏ 김\*\*(11세, 여)**
- 정말 감사했습니다. 책 잘 읽을게요. **홍\*\*(9세, 여)**

### 사서의 소감 한마디

5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4개월. 그 4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은 강사님의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을 듣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지 하면서 감탄을 했던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한지 인사도 잘 안 하던 아이들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는 다음 주에도 또 오라면서 울면서 인사를 하고, 선생님 보러 도서관에 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4개월 16회차라는 수업이 아이들에게도 기억이 많이 남는 수업이 된 것 같아서 내심 뿌듯했다. 사랑이 가득한 아이들의 편지를 받고, 보물 같은 선물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되었다.

### 강사의 소감 한마디

하모니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한 수업들은 매년 기억에 남는 수업이었다. 첫 수업에 『너는 어떤 씨앗이니?』 그림책을 읽어준 뒤 〈모두 다 꽃이야〉라는 노래를 들려주니 만들기를 하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던 예쁜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한 아이는 처음에는 모든 말에 반대로 행동하고 태도도 거칠었는데 그림책 수업에 계속 참여하면서 책에 관심을 가지고 점점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였다. 『별 낚시』, 『던져라! 공깃돌』, 『팔빙수의 전설』을 읽고 깔깔거리며 신나게 활동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얼굴은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졌다.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관련된 독후 활동을 하며 아이들이 자신만의 색깔로 상상력을 펼치는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고 예뻐다. 마지막 수업이 끝난 뒤 헤어지기 아쉬워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을 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아이들이 이 수업을 통해 그림책을 읽는 즐거움도 알고 서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들을 경험한 것 같았다. 나 또한 책을 사랑하고 수업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만날 수 있게 해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개봉도서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참여기관 담당자의 소감 한마디

안녕하세요~ 저는 개봉3동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담당자입니다!

개봉도서관에서 좋은 수업을 소개해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도서 수업이라는 것에 망설이기도 하고, 하기 싫어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매 회차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은 도서 수업 시간을 일주일 동안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에 작가님들을 직접 만나볼 기회가 없었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 책을 쓴 작가님도 직접 만나보면서 아이들이 도서에 대한 흥미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진심과 정성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저희 센터 아이들은 강사님과 사서 선생님과의 마지막 시간에 울기도 하고 많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에게 진심과 정성어린 마음으로 수업해 주신 강사님과 사서 선생님께 정말 많이 감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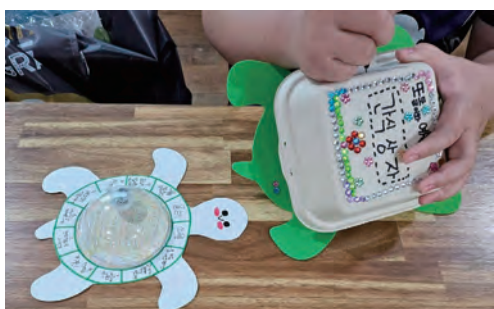




3회차 클레이로 내 얼굴 만들어보기 (6.5)



5회차 달토끼 조명 만들기 (6.19)



15회차 상자거북만들기 (9.4)





# 청소년, 도서관과 함께 사회를 읽다

## 김 태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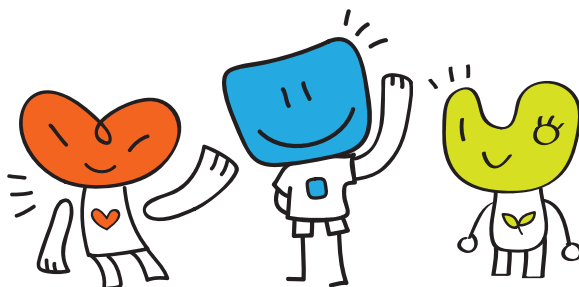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입사 3개월 차 열정만 가득했던 새내기 사서가 진행한 첫 공모사업인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도서관이 어려운 공간이 아닌 즐거운 공간으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참여기관명**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참 여 인 원** 14~16세, 청소년 8명

**운 영 기 간** [총 10회] 2023년 4월 18일 ~ 8월 22일, 격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 도서관에겐 너무 어려운 ‘청소년’

대다수의 공공도서관들이 겪는 고민 중 하나인 청소년 이용자. 종이책보다는 미디어가 익숙한 청소년 이기에 프로그램을 모집하기도 어렵고, 도서관에서 얼굴을 마주하기도 어렵다. 이런 청소년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청소년 서비스 담당자라니 걱정이 앞섰던 입사 3개월 차 새내기 사서였다.

하지만 ‘사서 고생’이라는 수식의 사서답게 열정만 앞세워 청소년 공모사업을 혼자 해보겠다는 포부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청소년을 진행하게 되었다. 열정과 는 별개로 청소년과의 간극을 줄이기는 쉽지 않았다. 도서관 이용 통계에서 청소년은 처참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고 더욱더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에게 다가가고자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와 손을 잡았고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지역사회 청소년기관과 협업을 통해 청소년의 독서문화 진흥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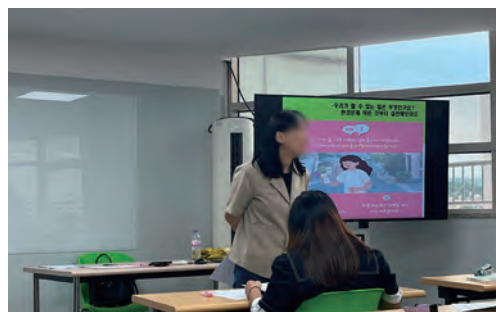


## 도서관과 함께 ‘사회’ 읽기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도서관과 함께 사회 읽기’를 주제로 책을 통해 다양한 사회 이슈들을 접하고 윤리적으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 사업으로 연을 맺은 백은하 작가님과 8회차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수 있었다. 백은하 작가님께서 『푸른 빛으로 사라진 아이』라는 작품으로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 동대문구 관내 중학교로 직접 찾아가 사회 이슈를 접목한 그림책을 함께 읽고 글쓰기 및 토론 활동을 진행한 경력이 많으셨기에 본 프로그램의 주제인 ‘도서관과 함께 사회 읽기’에 가장 적합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독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교폭력, 안전불감증, 환경오염, 진로, 사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청소년들의 독서 습관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었다.



강의사진



## 청소년에겐 너무 어려운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참여율이었다. 진득하게 앉아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청소년 시기인 만큼 10차시를 잘 따라와 줄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1차시 수업은 다들 데면데면 어색했기에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는데 분위기가 풀리자 바로 2차시 진행부터 문제가 생겼다.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에 직접 방문하는 ‘도서관 활용 수업’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도서관까지 오기를 거부했다. 도서관이 너무 멀고, 날씨가 덥고, 이미 가본 적이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절반도 참여가 어려워 보였다.

청소년에게 도서관이 친하지 않은 공간으로 보여 속상한 마음이 앞섰지만 이대로 물러설 사서 선생님이 아니다. 그렇게 방문하기가 어렵다면 도서관을 직접 가져오겠다고 선언했다. 아이들이 이래도 관심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되었지만, 다행히도 잘 속아주었다. 직접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 어떻게 ‘도서관 활용 수업’을 진행했을까?



## 도서관과 친해지길 바라!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에는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는 확장성과 현실감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이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ZEP’을 활용한 미래형 도서관 서비스이다. 아이들이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도서관 이용 교육과 정보 활용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평상시에는 하지 못하게 하던 핸드폰과 컴퓨터를 오히려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해주니 더 흥미를 가지고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 총 10차시 중 이날이 가장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고, 사서 선생님이 직접 진행해서 좋은 건지, 아니면 메타버스가 좋은 건지 몰으니 메타버스를 보여준 선생님이 좋은 거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었다.

아이들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도서관의 영역을 탐험할 수 있었고 도서관이 딱딱하지만은 않은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되었다. 또한 ‘내 앞에 서 있는 이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도 줄 수 있었다. 도서관 사서라는 직업이 아이들에게 낯설게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은 의외로 사서선생님이 왜 도서관에 있지 않고 여기까지 나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아이들이 생각하던 사서는 도서관에서 바코드를 찍는 선생님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았다.

메타버스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 영역 확장 촉진과 다양한 방법의 독서문화를 확산해 냈다고 자신해 본다.



메타버스 1



메타버스 2



## 페이지 너머 책과 가까워지기

문화 체험을 기획하면서도 고민이 많았다. 가뜰이나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의 무거운 엉덩이를 기꺼이 움직이게 만들 공간이 필요했다. 선생님도 나를 MZ 세대라며 도서관보다 책방이 더 친한 ‘MZ 감성(감성+개성)’을 담아 지역 독립 서점 ‘무아레 서점’ 방문을 기획했다. 도서관이 재미없어서 책과 만나기 어렵다면 독립서점만의 개성 있는 큐레이션을 맛볼 수 있는 독립서점을 소개해 주고자 했다.

무아레 서점은 동대문구에 위치한 공간을 다루는 독립 서점으로 무아레(moire)라는 이름은 ‘물결무늬’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다. 이 무아레의 의미를 확장해서 ‘규칙적이고 일정한 삶이 겹치는 곳에 때때로 불규칙하고 예측하지 못한 마주침을 만든다’로 해석했다고 한다. 창조적인 영감과 관계를 탄생시키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다채로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서점에서 청소년과 만들기 체험을 해도 되나요?” 다소 실형적인 질문이었지만 무아레 서점 사장님은 흔쾌히 아이들을 받아주셨다. 처음엔 조용한 서점을 본인들이 시끄럽게 만드는 게 아닐지 걱정하던 아이들도 무아레 서점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빠져 ‘제로웨이스트 클래스’ 체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천연 수세미 제작을 통해 지난 수업 때 배운 제로웨이스트를 몸소 체험해 보고, 동시에 지역 독립 서점을 경험하는 복합 문화 예술 체험을 순조롭게 해냈다.

독립 출판물의 의미를 배우고 직접 책을 골라보기도 하며 새로운 발견에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책과 가까워지기 미션은 달성한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권장 도서를 읽지 않아도 책과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선생님의 마음을 아이들도 느꼈으리라 믿는다.

물결처럼 서로 만나 합쳐지는 커뮤니티 서점을 지향하는 무아레 서점처럼 청소년들의 물결이 만나 서로의 가치관을 보듬어 주고 합쳐지는 세상을 꿈꾸어 본다.





무아레서점



문화탐방 수세미 만들기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처음에는 그림책으로 수업을 진행해서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흥미로웠고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14세, 남)**
- 책을 쓴 작가님과 직접 수업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 됐어요. **조\*\*(14세, 여)**
- 사서 선생님과 친해져서 좋았어요. 도서관 놀러 갈게요. **김\*\*(14세, 여)**
- 책이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그동안 프로그램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14세, 남)**

### 사서의 소감 한마디

청소년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어 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첫 공모사업인지만 부족함이 많았지만 믿고 따라와 준 청소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 회차가 계속될수록 적극적이고 진지한 생각을 표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성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길 바라며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 작가의 소감 한마디

첫 시간에 아이들과 어색하긴 했지만, 무척이나 솔직했습니다. 책에 대해 흥미가 많지 않다면서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매주 책과 관련 주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키고 관심을 갖도록 했더니, 스스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부듯하고 행복했습니다. 토론 형식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갈 수 있어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참여해 준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이 자존감이 향상되고 성장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HOMES &gt; 뉴스 &gt; 지역구공민

## 동대문구립심리도서관, 지식정보취약계층 어린이 및 청소년 지원

출판대국 · 승인 2023.04.17 21:51

10월까지 장안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청소년 대상



동대문구립심리도서관 2023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포스터

[사정일보 영대규 기자]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택환)에서 운영하는 동대문구립심리도서관이 지역의 지식정보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유를 위해 지역 아동센터 및 청소년센터와 연계하여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운영한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식정보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활용도서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정보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답십리도서관은 해당 사업의 어린이·청소년 운영도서관으로 선정되어, 2년간(2023~2024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

도서관은 4월부터 10월까지 장안지역아동센터(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85) 어린이와 함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는 그림책 함께 읽기 △작가와 함께 작품 알아보기 △답십리도서관 건학 동 중 15회에 걸쳐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로33길 25)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함께 사회 읽기 △도서관 활용 수업 △문화체험활동 등 총 10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식정보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사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대규 기자

보도자료1

HOMES &gt; 뉴스 &gt; 서울

## 동대문구립심리도서관,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출판대국 · 승인 2023.04.18 21:59

동대문구 청소년 독서 문화의 성장을 위한 협력 도로



동대문구립심리도서관과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업무협약 사진

[내외일보] 이수현 기자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택환)에서 운영하는 동대문구립심리도서관(관장 송원준)은 지역사회 청소년기관과 협업을 통한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유를 이루고자 4월 18일(화)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센터장 박지영)와 청소년센터 사무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지식 정보 공유 ▲청소년 대상 공모사업 및 특화 서비스 관련 운영 협조 ▲청소년 대상 행사 및 프로그램 상호 홍보 협조 등이다.

도서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관, 지난 2월 선정된 '2023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청소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등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글로 표현하는 '도서관과 함께 사회 읽기' ▲도서관 이용방법 및 정보활용 교육을 진행하는 '도서관 활용 수업' ▲동대문 독림서점에 방문하는 '문화체험활동' 등 총 10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도서관 빅데이터와 유관기관 추천도서로 구성된 청소년 특화서가인 '책루터(Letter)'를 활용해 진로·입시·논술 등 청소년 관심 소재를 주제로 북큐레이션을 진행하여 해당도서를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에 순회문자로 제공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해 특화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앞으로도 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동대문구립심리도서관 <http://https://www.s4d.or.kr/join> ☎02982-1959

이수현 기자

사정일보 영대규 기자 및 채재호 기자

보도자료2

# 두근두근 이야기 보물찾기

## 김윤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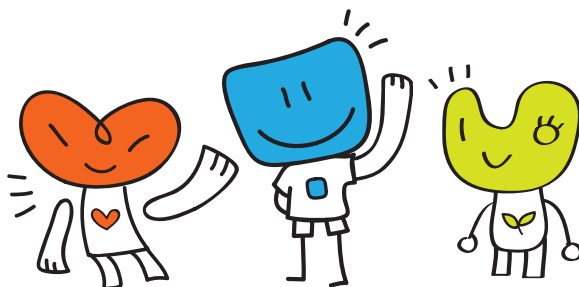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도서관에서 책 친구를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주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기관명** LH행복꿈터 열린마음지역아동센터

**참여인원** 초등 2~5학년, 9명

**운영기간** [총 15회] 2023년 5월 18일 ~ 8월 24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2021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맞이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2021년에 진행했던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도 어린이날과 성탄절이 되면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종종 지역아동센터 친구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이렇게 소중한 연을 맺어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의 긴 여정을 오래간만에 다시 본격적으로 떠나볼 생각을 하니 내심 걱정과 기대가 가득했다.



## 나와라! 이야기 보물

초반에는 책 읽기 활용 독서 콘텐츠(또북또북)을 활용해 독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책 읽는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을 연계했다. 커다란 책장을 달력처럼 넘겨 가며 함께 읽을 때마다 이야기 전개와 그림의 세세한 부분까지 서로 앞다투어 포착했던 친구들은 독후활동까지 집중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스토리텔링 전문 강사님과 이야기 보물을 찾아 나섰다. 책보다 미디어에 익숙한 친구들이었기에 의성어, 의태어, 다의어, 동형어 등 기본적인 단어부터 비유와 반전, 상황에 맞는 어휘표현을 익히고, 전체 이야기 맥락을 매끄럽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글씨가 적힌 종이만 봐도 일단 거부감부터 표현했던 친구들은 매주 강사님과 재미있게 책을 읽어가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 모험을 떠났다.



책 읽어주세요\_스토리텔링



강사프로그램\_그림을 읽어요



강사프로그램\_여기가 바로 나의 무대



## 그림책 작가님과 펼치는 상상나라

15회차 동안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참여 어린이들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작가와의 만남 일정을 3~4회씩 간격을 두었다.

첫 번째 만남은 코딩동화 '팜' 시리즈와 다수의 그림책, 웹툰까지 재미있고 유쾌한 그림으로 어린이들과 소통하고 있는 지문 작가님과 함께했다. 독후활동으로 저마다 좋아하는 동물의 특징을 살려 캐릭터 부채를 만들었는데, 원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친구들이 작가님의 꿀팁까지 전수받으니 더욱 즐거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여름 섬 보물들』 최유희 작가님과 함께 일일 그림작가가 되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명 초코아트라고 해서 작가님이 하신 것처럼 오일파스텔을 가지고 등장인물을 직접 그려보았다. 예상보다 시간이 꽤 소요되었지만 생소한 그림 재료와 기법에 눈이 휘둥그레 커진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임했다.



지문 작가와의 만남



최유희 작가와의 만남



## 도서관이 좋아요

도서관 활용수업은 도서관 견학과 이용 교육으로 진행했다. 먼저 도서관을 무작정 둘러보기보다 도서관 이용 경험 여부와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보면서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서 사서의 업무를 설명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찍은 사진을 여러 장 나열해 보여주었다. 재미 삼아 사진 속에서 나를 찾아보도록 했는데 정말 작게 나온 사진도 금방 찾아낼 정도로 어느새 친구들의 눈빛은 반짝반짝 생기가 넘쳤다.

도서관이 어떤 곳이고 사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혔으니 이제는 도서관 이용에 대해 배울 차례! 도서관 운영시간, 도서관 용어, 바람직한 독서 태도 등 평소에 아리송했던 부분을 OX 퀴즈로

쉽게 이해를 도왔다. 그리고 자유로운 도서관 이용을 위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책 찾는 법을 배운 뒤, 다 함께 책 찾기 미션이 적혀있는 쪽지를 가지고 함께 자료실로 나섰다.

어렵게만 느끼던 도서관 책 찾기에 성공한 친구들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내게 함박웃음을 지었다. 요리조리 서가를 살살이 살피며 찾아낸 여러 권의 책을 보물처럼 한 아름 안고 있는 친구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도서관 활용수업\_이용 교육



도서관 활용수업\_책 찾기 미션



## 책으로 통통통

사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놀고 싶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이 강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신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때는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흠뻑 빠져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들었던 내 마음이 사르르 풀리고 미소가 지어졌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의 강점은 무엇보다 책을 매개로 한 참여 어린이들과의 교감 형성이라고 생각한다. 매주 같은 시간에 만나 다양한 이야기로 가득 채운 책 소통은 도서관과 참여 어린이, 그리고 담당자 모두에게 단순 독서 그 이상의 기쁨을 선사했다. 진귀한 보물을 찾아 함께 모험을 떠나는 기분이 바로 이런 느낌일까? 곰곰이 생각해본다.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100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최고! 황\*\*(초등3, 여)
- 만들기가 재미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수업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김\*\*(초등3, 남)
-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또 같이 책 읽고 싶어요. 이\*\*(초등2, 여)
- 항상 좋은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초등3, 남)
- 정말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초등5, 여)

### 사서의 소감 한마디

프로그램하러 센터에 들어서면 아이들은 앞으로 쏘르르 달려와 그날에 읽을 책부터 확인한다. 이야기 시간에 어떤 친구는 내 옆에 찰싹 달라붙어 귀를 종긋 세운다. 마무리 인사를 하면 서로 먼저 책을 받았다고 줄을 선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하는 매주 목요일, 이 순간만큼은 일상이 아닌 특별함으로 다가왔다. 잠깐이나마 도서관과 함께한 시간이 어린이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기를 소망한다.

### 강사의 소감 한마디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활기찬 에너지를 발산하는 아이들을 만났다. 책 이야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들려주기 위해 준비하면서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뜻이 잘 전달될지 걱정이었는데, 기우였다. 잘 따라와 준 아이들이 고맙다. 책은 공감해주고 때론 위로를 주고 재미도 주는 친구가 된다는 것을 느꼈으면 한다.



## 참여자 활동 결과물





# 책 씨앗이 자라나 책 나무로 쏙!

## 정혜정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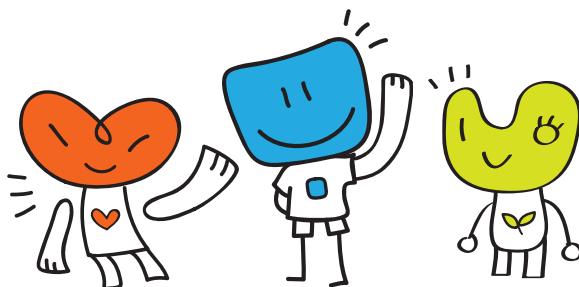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도서관과의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여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책 씨앗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작은 책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서로서도 한 발 성장하는 뿌듯한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참여기관명** 나래지역아동센터

**참여인원** 초등 1~3학년, 10명

**운영기간** [총 15회] 2023년 4월 7일 ~ 7월 27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만화보다 더 재밌는 그림책 함께 읽어 볼래?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에게 사전에 아이들의 평소 독서 습관을 미리 여쭙었더니, 아이들이 주로 학습만화만 읽는다고 말씀해 주셨다. 어떻게 하면 책을 지루해하는 아이들에게 책의 매력을 알게 해줄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고민하였고, 더불어 재미도 있지만 책을 통해 나를 알아가고,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서 선정과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첫 수업 도서로 피터 레이놀즈의 『너에게만 알려 줄게』를 선정했다. 맨 처음 장면에서 아이는 선언한다. “난 행복한 아이!”, 주인공처럼 한 명씩 돌아가며 “나는 OO야”라고 소개하면서 첫 수업을 시작했다. ‘행복을 만드는 온갖 장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책을 통해 남과 비교하며 나의 불행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행복의 열쇠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전달해주고 싶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책은 ‘디스코 팡팡 소시지’이다. 기발한 상상력과 배꼽 잡는 유머로 아이들의 인기 투표에 1위를 차지했다. 만화 못지않게 책도 재밌다는 것을 아이들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강사와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3회차  
『두근두근 빵집』 읽고 활동



강사와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5회차  
『출줄이 굴비』 읽고 활동



강사와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9회차  
『꿈을 향한 도전』 읽고 활동



강사와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9회차  
『꿈을 향한 도전』 읽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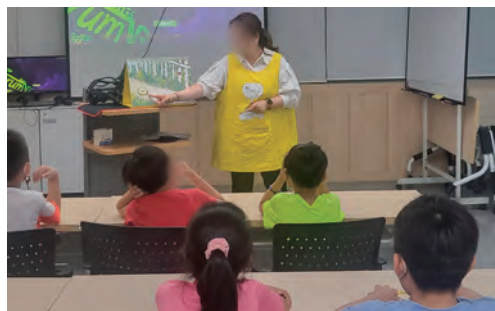
## 소통하는 시간 “사서선생님, 책 읽어 주세요”

책 읽어주기에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또북또북을 활용하여 ‘사서선생님, 책 읽어주세요’를 운영하였다. 또북또북은 우선 책 크기가 큼지막하고 달력 형식으로 넘길 수 있어 아이들과 마주하고 눈을 맞추며 읽어 주기에 매우 적절한 형태의 책읽기 자료이다. 활용 도서로 『무서운 날의 그림책』과 『딩동 거미』를 선정하였다. 만들기 등 독후 활동을 하기보다는 ‘책 읽어 주세요’ 시간에는 아이들과 묻고 답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다.

노란 앞치마를 입고 등장하는 사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딩동 거미』는 매 장면마다 아이들이 퀴즈 문제를 내듯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며 읽기에 좋은 책이다. ‘딩동~’하고 반복되는 운율을 따라 하며 어느새 마지막 장면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등장한다. 몇몇 아이들은 단번에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해하는가 싶더니, 금세 알아채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무서운 날의 그림책』을 읽고 무서웠던 경험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누구나 두렵거나 쓸쓸한 기분을 느끼는 때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림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다.



사서선생님 책 읽어주세요1  
또북또북 『무서운 날의 그림책』



사서선생님 책 읽어주세요2  
또북또북 『딩동 거미』



##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

첫 번째 만나는 작가, 『우리 곧 사라져요』의 저자 이예숙 작가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였다. 먼저 그림책을 함께 보며 알록달록 화려한 색감의 바닷속 다양한 생물들의 모습으로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가 싶더니, 작가님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환경파괴로 가까운 미래에 더이상 그림책 속 바다 세상을 더이상 볼 수 없게 된다면?”

잠시 조용해지더니 아이들의 머릿속에 뭉게뭉게 생각들이 피어오르고 저마다의 생각들을 꺼내 본다. 책을 읽고 바닷속 팝업북 만들기 독후 활동을 한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개성 있는 작품들을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만난 작가는 『문어 목욕탕』의 최민지 작가이다. 언니, 누나 같은 젊은 작가님이 등장하자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난다. 작가님이 읽어주는 『문어 목욕탕』 속으로 아이들은 어느새 풍덩 빠져들었다. 혼자 읽을 때는 놓쳤을 그림책 속 숨겨진 작은 포인트를 발견하는 재미와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으로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졌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작가의 친필 사인이었다. 단순하게 이름만 적어주시는 서명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신 그림 도구로 마치 작품과도 같은 문어 캐릭터 사인은 옆에서 보는 나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다. 어느새 작가님 곁에 옹기종기 모여 작가의 손길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작가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작가와의 만남’의 진정한 묘미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시간을 계기로 미래의 그림책 작가를 꿈꾸는 아이들이 한두 명 생기지 않았을까?



이예숙 작가와의 만남1



이예숙 작가와의 만남 2



최민지 작가와의 만남 1



최민지 작가와의 만남



## 참여자들의 변화

처음에는 책 읽는 수업이라고 하니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자폐 성향이 있는 한 친구는 첫 수업부터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한 번만 참여해 보고 그래도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초반에는 수업 도중에 누워있거나 딴짓을 하던 친구가 나중에는 가장 먼저 와서 수업 시간을 기다렸다. 현장학습 등 다른 일정 때문에 책 읽기 수업에 빠지게 되자 너무 아쉬워했던 친구들을 보며, 아이들이 이 시간을 좋아하고 더불어 책 읽기를 즐거워하게 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 어서와! 도서관은 처음이지?

### 무인회원증 발급기로 도서회원증 만들기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도 스스로 또는 부모님과 함께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 어린이 모두에게 회원증을 만들어 주고자 했다. 하지만 미성년인 아이들은 본인 인증, 서류 제출 등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부모님 동반 없이 회원증을 발급받기가 쉽지 않았다. 마침 6월 학습관에 무인 회원증 발급기가 도입되었고,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조율하고 준비하여 가정에서 온라인 회원가입을 완료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아이들 10명 모두가 학습관에서 직접 회원증을 발급받았다. 무인 회원증 발급기 앞에서 자기 이름이 새겨진 회원증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고 기뻐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생생하다.

### 도서관은 판타스틱한 곳! 포룸 VR 독서토론

도서관 활용수업으로 ‘포룸 VR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전문 강사까지 섭외하는 등 준비를 꼼꼼히 하였다. 포룸 VR은 우리 학습관 특색프로그램중 하나로 ‘원더랜드-엘리스의 선택’을 테마로 한 포룸 VR 체험 후, ‘선과 악’에 대한 독서토론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VR 체험 기기를 머리에 쓰고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토론까지 진행하였다. 하지만 프로그램 진행 중에 통신 오류 등으로 중간중간 시스템이 멈추는 등 차질이 생겨 담당자로서 다소 아쉬웠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오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포룸 VR 독서 토론이 가장 재밌었다고 꼽은 친구들이 많았고 다음에도 또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려와는 달리 작은 실수에도 아이들은 관대하였고, 재밌고 흥미로운 콘텐츠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듯하다. 사실 학습관에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VR 프로그램은 처음 시도한 것이었는데 의외로 열띤 호응을 받게 되었다. 이에 학습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VR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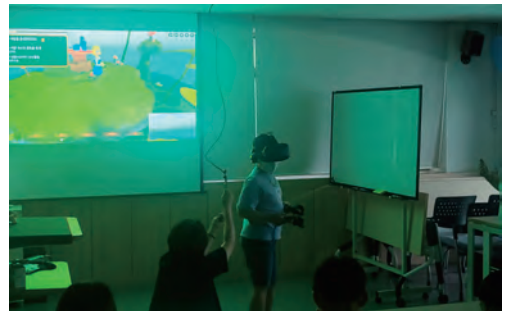
도서관 견학1\_회원증 발급받기



도서관 견학 2\_스스로 대출 반납 해보기



도서관 활용 수업1\_포럼 VR



강사와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5회차  
『줄줄이 굴비』 읽고 활동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저는 VR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책으로 읽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박\*\*(초등2, 여)**
- 예전에는 만화책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동화책도 좋아졌어요. 최민지 작가님, 프로그램 진행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평소에 하기 어려운 VR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화책을 VR로 하니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박\*\*(초등3, 여)**
- VR 체험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VR 체험을 좋아했는데 조금 화났어요. 버섯이 빨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화책을 VR로 하니까 더 재미있었고, 신기했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책이 원래 좋았는데 더 좋아졌어요. **한\*\*(초등3, 여)**
- 처음으로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도서관도 많이 갔고, 아바랑도 갈 거예요. **문\*\*(초등2, 남)**
- 실제 같았어요. VR 체험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앨리스가 되어 아이템도 잡고 너무 실감 났어요. 또 오고 싶어요. **양\*\*(초등2, 남)**
- 회원증 만들고 다른 책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반납하는 법 배웠어요. **신\*\*(초등2, 여)**
- 앨리스 VR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조금 무서웠어요. 진짜 세계 같았어요. **양\*\*(초등1, 남)**
- 집에서 엄마 아바랑 책을 같이 봐서 좋았어요. **박\*\*(초등1, 남)**
- 도서관에 가서 대출증을 만들고 책도 빌리는 방법도 배워서 앞으로 도서관에 자주 갈 거예요. **장\*\*(초등2, 여)**
- 『문어 목욕탕』 작가님을 봐서 좋았어요. 책도 재미있었어요. **한\*\*(초등1, 남)**

## 사서의 소감 한마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에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되었다. 학습관에서 다양한 어린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지만, 사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사업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손이 많이 간다. 하지만 4개월에 걸쳐 긴 호흡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과의 유대관계가 깊어진다. 그 과정에서 책과 도서관에 차츰차츰 친해지는 아이들의 변화를 보게 되면, 수고로움 이상으로 사서로서 부듯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무엇보다 사업을 추진하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아끼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나래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과 담당자님,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수업을 이끌어주신 강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학습관과 지역아동센터가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가 아니라서 비까지 내리고 아이들의 개인 일정이 제각각인 상황에서도 여러 번 이동하며 도서관 견학 수업에 아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다. 아이들의 소감문 중 도서관 회원증을 만들어서 좋았고, 아바와 도서관에 오겠다고 다짐한 글을 보고 몽글한 감정이 들었다. 프로그램을 계기로 책과 친해지고, 함께 성장하는 아이로 자라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다.



### 강사의 소감 한마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수업이 몇 차시 진행되면서부터는 센터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오늘은 무슨 책? 무슨 활동? 하나며 궁금해 했다. 처음엔 만화책 말고는 안 보던 ○○이도 이제는 내가 책 읽어주는 자리에 가까이 앉으려고 엉덩이를 들이민다. 어느 날은 복지사님께서 자리를 지정해 주기도 하셨다. 나래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면, “책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구나”라는 느낌을 몸으로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림책 큐브를 만들고 그림책 속 네모 세상 친구들을 만들어서 센터 책꽂이에 붙여두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그림책을 기억하게 된 친구들!! 마지막 시간에 그동안 읽었던 책을 살펴보고 인기투표를 해보니 보조 도서로 읽었던 책까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열 번의 그림책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나래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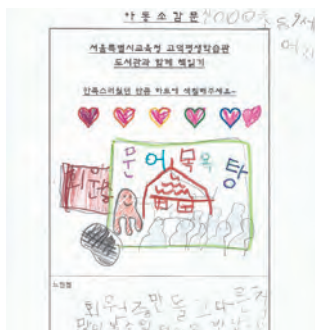
유선영(강사)

### 참여기관 담당자의 소감 한마디

아동들이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로 학습만화를 읽으며 동화책에는 관심이 적었던 아동들이 매 회 한 권의 책을 읽으며 내용을 생각해 보고, 다양한 독후활동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들에게 매 회 진행되었던 책을 책 읽기 수업이 끝난 후 나누어 주어 센터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책과 더욱 친숙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강사님과 고덕평생학습관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나래지역아동센터 담당자)

## 참여자 소감문



## 부록

## 참여자 활동 결과물



활동작품1  
그림책 큐브



활동작품2  
네모세상 네모친구들 만들기



활동작품3  
이파라파 나무나무 그림책 큐브

## 부록

## 보도자료



언론보도1 - 구민신문



언론보도2-서울동부신문



언론보도3-토요일저널



언론보도4-한국강사신문



언론보도5-디지털광진



언론보도6-서울교육소식

#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도서관

김 예 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 김예은입니다. 이번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통해 다문화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기관명** 지구촌학교

**참 여 인 원** 초등 3~4학년, 14명

**운 영 기 간** [총15회] 2023년 4월 6일 ~ 7월 20일,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50분





## 우리는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고척도서관이 위치한 구로구는 서울특별시 내 다문화 가구원 수가 1위인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참고) 또한 기존 다문화 서비스를 지원하였던 '지구촌학교'에서 장기적으로 독서활동 지원을 희망하였던 작년의 피드백을 통해 올해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함께 할 기관으로 지구촌학교를 선정해주었다. 지구촌학교는 중도 입국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대안학교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과 다중언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일정과 방향에 대한 협의를 위해 지구촌학교 부장 선생님과 사전 면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글 학습이 완료되어 이제 독서에 흥미를 유발하여야 하는 초등 3~4학년 학생들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을 연결해 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뿐만 아니라 여러 독서활동으로 경험이 많으신 이현숙 강사님을 섭외하게 되었다. 강사 선생님과 미팅을 통해 한국 문화가 생소한 참가자 학생들에게 한국의 옛이야기 관련 도서를 함께 읽고 이를 현재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 아이들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의 운영 도서관으로 선정되자마자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학교 일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다 보니 4월 첫 주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에서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중에 도서관 활용 수업과 사서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책 읽어 주세요'시간이 담당자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또한 지구촌학교의 경우 학교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한 차시당 2시간의 수업을 진행해야 했다. 그때 마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제1회 어린이·청소년 담당 사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그 주제가 '또북또북과 독서활동 매뉴얼, 어떻게 활용할까?'였다. '그래, 이거다!'라는 생각으로 오랜만에 알람을 맞춰두고 정각에 수강신청하듯이 교육을 신청했다. 운영 기간도 하루여서 부담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워크숍을 통해 또북또북과 독서활동 매뉴얼 활용방법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워크숍을 다녀온 덕분에 수업 진행에 대한 부담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고 아이들 만날 시간이 더욱 기대가 되었다.





## 도서관에서의 첫 만남

도서관 활용 수업을 제일 처음 시간으로 배치하였다. 공공도서관을 처음 방문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회원가입과 이용 교육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다. 또한 다문화 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국어로 된 책을 자유롭게 보는 시간도 주고 싶었다. 처음 만난 아이들은 무척이나 활발했고 도서관 이용 교육시간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우리 앞으로도 잘할 수 있겠지?’라는 걱정을 뒤로 한 채, 처음 ‘사서 선생님, 책 읽어주세요’는 『책 먹는 여우』로 어린이실 사서 선생님께서 해주셨다. 아이들이 책 속에 여우가 등장하자 너무 좋아하였고, 여우 만들기도 집중해서 열심히 하였다. 또한 고척도서관 로비에는 큰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의 금붕어, 거북이, 자라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모습을 보고 ‘작가와 만남’ 시간에 ‘동물’이 등장하는 책 중에서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는 작가분을 섭외하여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자유독서’ 시간에는 다문화 자료실에서 모국어로 된 동화책을 대출하여 어린이자료실에서 독서활동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더 있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았다. 이 친구들이 정말 그리워하던 책들이 여기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 다문화 도서 단체 대출 서비스도 필요할 것 같아 그 방법을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도서관 이용교육시간:  
자신이 고른 모국어 책을 대출해보는 친구들



도서관에 처음 방문한 날:  
삼삼오오 모여 책을 보는 친구들



도서관 연못구경:  
물고기와 자라 이름 지어보기



‘사서선생님, 책 읽어주세요’ 후  
독후활동에 참여하고 게임중인 친구들



## 사서 선생님, 책 읽어주세요

또북또북을 신청하고 어떤 책이 올까 궁금했었는데, 도착해 보니 원하던 책이어서 반가웠다. 낮은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려는 친구들을 위해 『인사를 나눠드립니다』라는 책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았다. 『인사를 나눠드립니다』로 수업을 하고 이와 비슷한 주제의 책들을 대출하여 수업을 보완하면서 진행하였다. 아이들이 또북또북을 처음 봐서 신기하고 재미있어하여 두 번이나 읽어주었다. 수업 후 도서와 함께 또북또북을 기관에 기증하였는데,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옹기종기 모여서 책을 넘겨 본다고 좋아하셨다. 독후활동으로는 『인사를 나눠드립니다』에 나오는 표정으로 썸 캐처 만들기과 명패 만들기를 준비해 갔다. 2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신나고 정신없이 수업을 마쳤다.



사서 선생님, 책 읽어주세요



사서와 함께하는 독후활동



## 강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독서활동, 작가와 함께 하는 책놀이

다문화 친구들을 위한 맞춤형 독서활동 내용으로 생각을 키우는 옛이야기, 생태 체험 후 환경 이야기, 자존감 향상 시리즈를 강사 선생님과 구상하였다. 또한 작가와의 만남 시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이 주인공이자 ‘너와 나의 다름을 이해하기’라는 내용이 담긴 책 2권을 선정하여 출판사에 직접 연락해 작가를 섭외하였다. 강사 선생님과 시간은 지날수록 더욱 친밀해졌고, 그림책 작가의 사인과 책 주인공을 그린 그림, 작가님이 준비한 퀴즈 선물을 받은 친구들은 너무 소중하게 책을 꼭 안고 교실로 돌아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강사 선생님과 독서활동



김유진 작가와의 만남



## 숲 체험, 숲 놀이를 즐겨봐요! 야외 수업은 언제나 좋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특별수업 장소를 정하면서 지구촌학교의 주변을 살펴보니 도보로 이동 가능한 ‘푸른 수목원’이 있었다. 관리 사무실에 연락을 하여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를 하였더니 추후 서울특별시 공공 서비스 예약 누리집에서 숲 해설 프로그램이 열리면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 연락처를 남겨두니 담당자께서 숲 해설사가 진행하는 공원 탐방 프로그램이 기획된 날과 접수일을 알려주셔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었다. 단체 신청이기 때문에 신청비도(5,000원) 저렴하여 예산 걱정도 덜 수 있었다. 수업 당일 숲 해설가께서 식물과 곤충들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게임도 많이 준비해주셔서 너무나 알찬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야외 외부 행사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하다보니 전문가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고,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었다.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여 아이들의 안전에도 걱정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생태학습: 숲 속 친구들 관찰하기



생태학습: 숲 해설가 선생님과 함께하는 숲 속 게임



## 선생님, 오늘은 어떤 책 가지고 왔어요?

공공도서관 사서에 대해 낯설던 친구들이 세 번째 만나는 날부터 “선생님, 오늘은 어떤 책 가지고 왔어요?”라고 묻고는 하였다.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보았지만, 특히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의 경우 참여 기관을 제일 많이 방문하였던 것 같다. 또한 학교 시간표의 특성상 옆 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치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작가와 의 만남’ 시간에는 혹시 남을 시간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그림책 한 권씩은 챙겨서 이동하고는 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독후활동 수업 보조를 하고 책을 읽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이름도 불러주게 되었다. 야외 수업도 함께 하게 되면서 아이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도서관에 처음 가봤을 때 연못 구경했던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중국어 책도 엄청 많아서 재미있었어요. 또 가고 싶어요. **이\*\***
- 매번 다른 책도 주시고 만들기도 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또 오세요. **오\*\***
- 선생님이 퀴즈 맞히면 간식도 주시고 좋아요. 모르는 것도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 수업이 끝나면 새 책이 생겨서 좋아요. 작가 선생님이 오시면 사인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셔서 좋았어요. 저도 책을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박\*\***
- 수목원 가서 벌레도 만져보고 나무 이름도 배워서 좋았어요. 다음에도 꼭 하고 싶어요. 그림 발표할 때마다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셔서 기분이 좋은 수업이었어요. **김\*\***

### 사서의 소감 한마디

다문화 친구들을 처음 만날 때 도서관 이용 교육을 시작하자마자 도서관과 사서에 대해 궁금해하던 표정들이 생각납니다. 도서관을 처음 왔다는 친구들이 과반수이었습니다. 첫 만남에 데면데면하던 표정들은 도서관 연못 구경과 다문화실 모국어 책을 보여 준 순간 다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모국어 동화책들이 많이 그리웠나 봅니다. 또북또북을 읽어주고 다른 책들을 소개해 줄 때마다 아이들의 호기심 넘치는 질문들이 수업 시간을 유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의 인원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과 독서수업, 작가와의 만남, 생태체험에 많이 동행 하다보니, 마지막이라고 인사한 날에 다음 주에 또 오라 고할 만큼 많이 친해졌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공공도서관에 자주 발걸음하여 모국어 책뿐만 아니라 한국어 책도 가까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강사의 소감 한마디

엄청 활발한 아이들과의 첫 만남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한국의 옛이야기를 즐겁게 읽고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책과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책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고, 매 시간마다 읽은 책을 가지고 어떤 독후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넘쳤습니다. 수업을 진행할수록 책에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는 아이들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또한 긴 차 시 동안 아이들을 만나서 활동하다 보니 글쓰기에 소질이 있는 아이, 그리기에 재능이 있는 아이, 종이접기를 집중적으로 잘하는 아이 등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즐거운 책 추억을 남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여기관 담당자의 소감 한마디

고척도서관에서 운영해 주신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 덕분에 매주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활동하고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책과 다양한 독후활동으로 아이들이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고,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아이들이 책을 더 집중해서 몇 번씩 읽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챙겨주시고, 직접 그림과 사인도 해주셔서 아이들이 책을 소중히 다루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즐거워 지더군요. 또한 푸른수목원 생태체험까지 경험할 수 있어서 아주 풍족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스쳐갔던 식물들과 주변 환경들도 숲 체험 전문가를 통해 설명을 들으니 다르게 보였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잘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고 매번 신경 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독후활동에 열정적인 아이들의 모습과 작품들



## 웃음 가득한 책 놀이동산

### 고 하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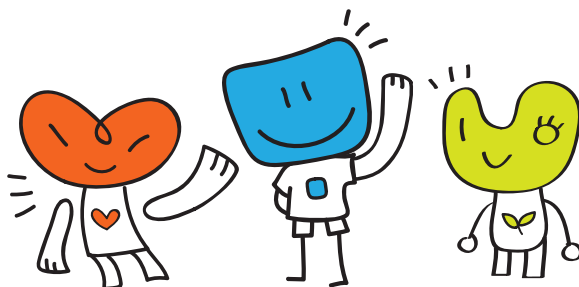
은뜨락도서관

한없이 밝고 웃음 가득한 아이들과 함께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 함께 한 모든 순간이 행복한 추억과 소중한 인연들로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기관명** 갈현지역아동센터

**참여인원** 초등 1~3학년, 10명

**운영기간** [총 15회] 2023년 6월 7일 ~ 9월 6일,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그날의 약속, 그리고 오늘의 선물

2023년 나의 첫 중요 업무는 밝아오는 새해와 함께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 사업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전 담당자의 노력으로 2022부터 갈현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운영하고, ‘다시 만나러 올게!’라고 했던 이전 담당자와 아이들과의 약속을 내가 대신 지키기 위해, 작년보다 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획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은뜨락도서관과 인연을 맺게 된 갈현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한 해가 되었다.

아이들과 주어진 15번의 만남을 통해 내가 초등학교 때 『지선아 사랑해』를 읽고 받았던 위로와 여름방학 때면 동화 구연을 보고 들으면서 느꼈던 책의 재미와 흥미를 선물해 주고 싶었다. 그 마음가짐으로 3번의 사서와의 만남, 10번의 독서지도 전문강사의 독서교실, 2번의 작가의 만남을 기획했다.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아이들과 첫 만남은 도서관에서 시작했다. 은뜨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에 살을 덧붙여 첫 수업을 시작했다. 아이들의 첫 모습은 마치 단짝 친구의 손을 잡고 새 학기가 시작된 교실에 들어오는 모습과 같았다. 한마디로 어색한 공기 한 손가락과 설레는 공기 한 손가락이 녹아든 분위기였다. 그 분위기를 설레는 공기로 가득 채우는 건 앞으로의 내 몫이었다. 밝게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도서관 예절 교육과 이용 방법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영상으로 시청했다. 미디어에 익숙한 아이들이 순식간에 집중하며 화면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고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가 종료된 후에는 책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 더 익숙한 아이들이 되길 소망했다.



## 상상해봐 너만의 도서관을!

『바람숲 도서관』은 도서관의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 책을 통해 수많은 상상 속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책이다. 바람과 함께 타고 들어오는 생각 실타래가 계속되길 바라며 마음으로 바람개비도 만들어보고 내가 상상하는 도서관의 모습을 친구와 함께 그려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완성된 너만의 도서관 그림을 앞에 나와 발표할 때의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우주 정복 후 새로운 도시와 건물을 건설하는 설계자처럼 보였다. 그때 느꼈다. 오늘 아이들은 『바람숲 도서관』이라는 책을 통해 미지의 공간 우주를 여행하고 왔다는 것을.



도서관 견학 & 독후활동 1



도서관 견학 & 독후활동 2



## 또북또북, 사서 선생님 ‘책 읽어주세요’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사서, 강사, 작가와의 만남을 고루 분배하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이 늘 같은 장소에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은뜨락도서관에 와서 사서의 ‘책 읽어 주세요’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기분 전환과 더불어 도서관과 친숙해질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6월은 『인사를 나눠드립니다』, 7월은 『우주 전사 복실이』 또북또북 도서를 활용한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독서수업은 하나의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초등 1~3학년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활용해서 적절한 내용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그때 책 읽기 활용 도움자료 또북또북과 독서활동 매뉴얼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연령/운영방식(대면, 비대면)/단위별(개별, 가족)로 세분화된 수업 설계 덕분에 갈현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적합한 독서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늘 밝고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게 ‘인사 용기 팔찌’를 진행했는데, 독후 활동 시간에 ‘팔찌 절대 안 벗을 거예요! 오늘 손 안 씻어야지~’라고 말하는 개구쟁이 같은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기억으로 남는다.



사서 선생님 책 읽어주세요 1



사서 선생님 책 읽어주세요 2





인사 용기 팔찌 만들어보기



〈우주 전사 복설이〉 우주복 그리기



## 매일 놀러 가는 책 놀이동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데월드와 에버랜드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은 놀이동산이다. 놀이동산은 일상을 벗어나 다양한 볼거리와 놀 거리를 만날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이다. 책이라는 것도 누구나 언제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곁에 위치한 놀이동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독서지도 전문 강사님이 진행하는 독서교실 프로그램명을 ‘책 놀이동산’으로 지었다.

독서지도 수업을 전문적으로 강의해오신 강사님을 섭외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의 책과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 기획을 요청했다. 문학, 과학, 미술, 한국사, 음악, 건축, 고대(공룡), 도서관 등 종류부터 역사까지 도서관을 축약해 놓은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셨다. 주제 도서 선정과 차시별 활동 내용을 살펴보니 충분히 ‘책 놀이동산’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놀이동산처럼 보였다.

놀이동산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만지고 놀 것, 타고 놀 것, 먹고 마실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에 맞게 차시별 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갖추는 일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했다. 강사님은 시중에 설명서 대로 만드는 DIY 형태의 제품보다는 여러 부속 재료들로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고 새로운 것을 창작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싶어 하였고, 나 또한 이 부분에 있어 전적으로 동의했다. DIY를 샀다면 직접 기안해야 할 품의, 결의 문서 수나 비교해야 할 타 사이트, 견적서 등을 알아보는 수고스러움을 덜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부속 재료 하나하나 고심해서 물품들을 골라 구매하고 차시별로 준비해서 강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강사님의 운영방식과 나의 값진 노력의 결과가 아이들이 만든 독후활동 창작물들로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 노력의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

책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 상상하면서 간접 경험을 쌓게 된다. 요리책을 읽으면 냄새를, 음악책을 읽으면 소리를, 소설을 읽으면 움직이는 그림들을 상상할 것이다. 보통의 독서는 여기에서 멈춘다.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책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사고하거나 숨은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자기 삶에

대입해보고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이 교육적으로나 자아 성찰 면에서는 도움을 주는 훌륭한 독서의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초등 1~3학년 아이들이 가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어딘가 특별한 수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강사님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중 『슬기덩 덩들당들 저 소리 들어보요』 도서를 읽고 진행된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 17개를 동시와 함께 소개하는 책이다. 아이들에게 미리 책을 읽어보게 했는데, 대평소의 경쾌한 소리와 사물놀이의 흥겨운 소리를 상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강사님과 함께 독서수업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악기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각각의 악기가 어떤 소리는 내는지 흥내도 내보면서 함박웃음을 지어냈다. 바로 이어 독후활동으로 우리 악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비록 실제 장구와 피리는 아니었지만, 책을 통해 알게 된 장구와 피리의 모양과 특징을 살려 설명서 없이 스스로 만들어보았다. 이어서 만들어본 여러 악기를 활용해 직접 연주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자 아이들은 사물놀이패처럼 합주를 해보기도 했다. 그곳에 있었던 기관 담당 선생님, 강사님 모두가 놀라 사진과 영상을 찍지 않을 수 없었다.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움직이는 신문이 정말로 발명되었다면, 아마 이번 운영 사례집에 해당 영상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어린왕자』 독서수업



『유관순』 독서수업



『슬기덩 덩들당들 저 소리 들어보요』 독서수업



『저학년이 보는 공룡 이야기』 독서수업



## 세상에서 제일 멋진 어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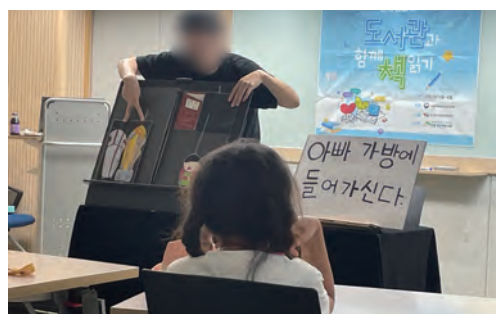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작가님은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독후활동을 하거나 기념할 수 있는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주는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 진다. 분명 아이들에게 내가 읽어본 그림책 작가를 직접 만나 보는 시간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의 독서수업과 비슷한 형태보다는 아이들에게 더 기억될 만한 시간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림책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을 일인극의 형태로 재 창출하는 공연 워크숍인 ‘그림.책.몸짓’을 이수하신 작가님들을 섭외하였다.

어린 시절 내 눈길을 끌었던 TV 속 등장인물은 뽕뽕이와 번개맨이었다. 그때 인형의 탈 속에 땀 흘리며 움직이는 어른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쫄쫄이 의상을 입고 번개에 탄 머리 분장과 선글라스 속에 가려진 어른의 눈빛을 보지 못했다. 어른이 되어서야 그들의 땀과 노력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웃게 하는 어른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2023년 최고의 어른상’이 있다면 그 일인극을 보여주신 이육재 작가님과 박규빈 작가님께 드리고 싶다.

이육재 작가님의 『용기로봇의 비밀』, 박규빈 작가님의 『왜 띄어 써야 돼?』 그림책을 일인극 공연으로 아이들과 함께 만나보았다. 이육재 작가님은 웅장한 배경음악 소리와 함께 펄쩍 뛰어올라 아이들의 이목을 사로잡고서는 생동감 있는 표정과 행동으로 『용기로봇의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박규빈 작가님은 특수 제작한 자석 그림책과 막대 인형을 활용해 『왜 띄어 써야 돼?』의 등장인물들이 되어 다양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두 분이 처음 공연을 시작할 때 비로소 뽕뽕이와 번개맨을 연기한 그 옛날의 어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육재 작가와의 만남



박규빈 작가와의 만남



## 사랑합니다.

처음 도서관을 방문한 아이들이 이젠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며, 다음 수업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을 무렵,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방과 후에 독서수업을 듣는 게 지칠 만도 한데 아이들은 늘 언제나 웃음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참 고마웠다. 사서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때로는 특정한 소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면 어김없이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도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매 시간마다 책을 읽어오고 사서와 강사, 그리고 작가와 함께 즐기고 놀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다.

갈현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할 때면 참여기관 담당자 선생님과 강사님은 늘 아이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센터에 전시하고 사진을 찍어 자랑하시곤 했다. 나도 수업 사진은 많이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강사 프로그램 마지막 날 강사님께 사진과 영상을 메일로 받아 보니, 그동안 얼마나 따뜻한 마음과 눈으로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을 가지셨는지 느껴졌다.

“사랑합니다.” 15회차 마지막 수업 때 아이들이 건넨 인사였다. 참여기관 담당자 선생님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사서 선생님께 우리 인사할까?”라고 말하는 순간 10명의 아이들은 모두 커다란 하트를 머리 위로 그리며 외쳤다. “사랑합니다.”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잘 뻗어지지 않는 말이 있다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다. 2023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면서도 가장 듣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남긴 마지막 그 인사는 나에게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가 가져다준 선물과도 같았다.



강사 프로그램 마지막 날



전체 프로그램 마지막 날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이젠 두렵지 않아요! **이\*\* (초등2, 여)**
- 매주 책 선물 받고 책 내용으로 만들기 활동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이\*\* (초등3, 남)**
- 책을 읽고 악기도 만들고 연주도 하면서 책이 좋아졌어요. **황\*\* (초등3, 여)**
- 더 자주 도서관에서 책 읽고 놀고 싶어요~ **변\*\* (초등3, 남)**
-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요, 사서님 강사님 작가님 모두 감사합니다. **김\*\* (초등2, 여)**
- 이젠 글이 많은 책도 잘 읽어요! **정\*\* (초등2, 남)**
- 선생님 좋은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 (초등3, 남)**
- 과자로 재미있는 놀이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해요! **카\*\* (초등2, 여)**
- 올해 들어 제일 재미있는 수업이었어요. **이\*\* (초등1, 남)**
- 다음에 또 만나요! 사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방\*\* (초등3, 여)**

### 사서의 소감 한마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아이들의 함박웃음입니다. 여름의 시작과 끝을 함께 보낸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저도 함께 웃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읽어 내려간 책 글귀들이 한데 모여 악기가 되고, 건축물이 되고, 멋진 창작물로 재탄생하는 것을 보며 아이들의 창의력에 감탄했습니다. 더욱 감탄한 것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아이들 스스로 도서관을 찾아와 책읽는 모습들을 마주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삶에 책이 불러오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사서로서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 강사의 소감 한마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갈현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 상상의 문, 생각의 문을 활짝 열고 신나는 책 탐험을 즐겼습니다. ‘의미 있는 책을 재미있게’ 만나면서 공감하고 소통하며, 자기 세계를 넓혀가는 친구들의 성장이 대견했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독후활동은 책 읽는 과정을 즐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문 없이 조용하던 친구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호기심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상상하고 꿈꾸며, 책 내용을 재구성하던 변화는 강사에게도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모두를 위한 책, 모두를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경희(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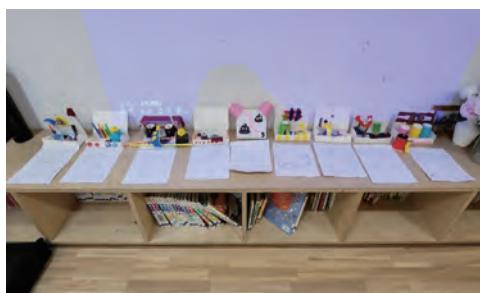
참여 어린이 작품 1



참여 어린이 작품 2



참여 어린이 작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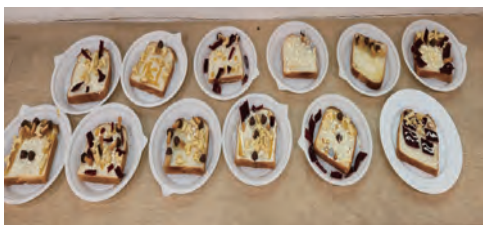
참여 어린이 작품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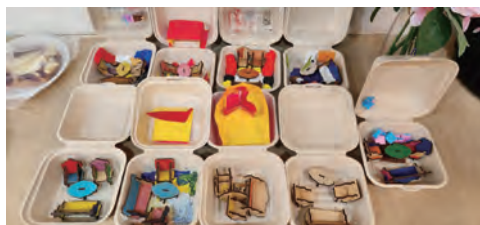
참여 어린이 작품 5



참여 어린이 작품 6



참여 어린이 작품 7



참여 어린이 작품 8





## 도서관과 함께 놀자!

### 박주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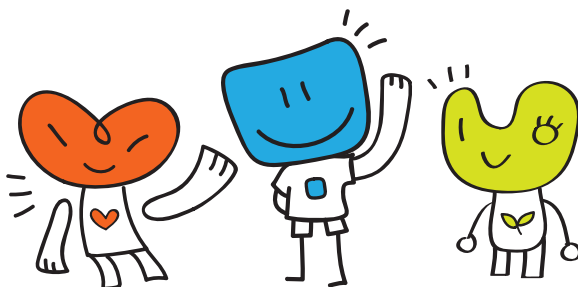
자양한강도서관

올해 자양한강도서관에 배치되어 프로그램 업무를 맡았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한 명의 사서가 두 번째의 사업 운영을 통해 열 명의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열다섯 번의 만남을 거쳐 스무 곱절 이상은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기관명**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참여인원** 초등 2~3학년, 10명

**운영기간** [총 15회] 2023년 4월 27일 ~ 8월 3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책과 함께 놀자! 그런데 놀기도 전에...?

자양한강도서관은 올해 8월 3일 수업을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그러나 최초 준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전 담당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한 후, 급하게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담당자는 기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모든 진행과정을 일주일 내에 구체화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다.

그러나 담당 강사님의 빠른 피드백과 함께한 복지관 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업을 함께 도와준 또 다른 사서 선생님과 함께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세부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복지관에서의 아동 모집까지의 모든 과정이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그제야 도서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모집 아동들과 사서 선생님과 만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준비 과정이 험난해도 수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는 열정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으며, 그 과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 책과 함께 놀자! 사서 선생님도 함께 놀까?

아이들과 함께 만난 첫날은 아직도 생생하다. 하나둘씩 쭈뼛거리며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을 보며 서로 낯가리던 아이들은 자리에 앉아서 출석을 부를 때도 소극적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사서 선생님이 읽어 주는 『책 읽어주는 곰』 내용을 통해 청구기호 읽는 법과 도서관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점차 입을 열기 시작했고, ‘도서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이후 도서관 릴레이 미션을 하며 완전히 몸이 풀린 아이들은 “선생님, 너무 재미있어요!”를 연신 외치며 도서관을 제집처럼 뛰어다니며 다음 주에 또 보자는 말과 함께 도서관을 나섰다. 첫 시간부터 제대로 친해진 사서와 참여자들은 이후 진행된 열네 번의 수업에서 ‘선생님, 왜 저번 시간에는 일찍 갔어요?’, ‘선생님, 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진행 안 해요?’ 등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유대감을 쌓아나갔다.

아이들과의 유대감은 자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두 번의 토북토북을 활용한 수업 시간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인사를 나눠드립니다』를 읽는 시간에는 참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책을 읽기 위해 사서 선생님 앞으로 끊임없이 다가왔으며, 『마음버스』를 읽는 시간에는 그림책의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기 위해 발표 경쟁까지 일어났다. 책을 매개체로 하여 어른과 아이가 서로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구나 싶었다.



도서관 이용교육



도서관 견학 및 릴레이 미션



책 읽어주세요 활동 1



책 읽어주세요 활동 2



## 책과 함께 놀자! 이번에는 전래놀이와 요리 수업으로!

세 번의 사서 선생님과의 책 읽기 시간이 끝나고, 이후에는 그림책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강사 선생님과 만남이 시작되었다. 일곱 번은 아이들이 읽기 좋아하는 전래동화를 기반으로, 세 번은 캐릭터 개성이 강한 그림책을 기반으로 요리 수업을 진행해 수업을 놀이화하여 진행했다.

『흑부리 영감』, 『토끼와 자라』, 『토선생 거선생』, 『100만 번 산 고양이』 등의 책을 함께 읽고 난 후에는 전래동화에 맞게 전래놀이 실뜨기를 활용하여 패러디 동화를 만들기도 하고, 등장인물을 실뜨기로 표현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대로 책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왔다. 이 밖에도 『나는 누구인가?』, 『친구의 전설』, 『무지개를 찾아서』 등의 주제 도서로 '나, 너,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며 참여자가 독후 활동을 통해 책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사업과의 차별점으로는 세 번의 요리 수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인데, 참여 소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이들은 요리 수업을 가장 재미있어했다. 책과 함께 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직접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안으로 요리라는 소재를 선택하게 되었다. 참여자는 『곰이 강을 따라갔을 때』를 읽고 캐릭터 곰 샌드위치를, 『아프리카 초콜릿』을 읽고 동물들이

좋아하던 책 속 초콜릿을, 『오늘 바다에 갔어요』를 읽고 미니 바다 케이크를 만들며 즐거워했다. 3시에 수업을 시작해 90분의 수업을 듣는 참여자들에게 직접 완성한 요리들이 좋은 간식으로 제공된 것도 긍정적인 시너지로 작용했다.



강사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프로그램



강사와 함께하는 협동화 프로그램



강사와 함께하는 곰 샌드위치 만들기



강사와 함께하는 바다 케이크 만들기



## 책과 함께 놀자! 책을 쓴 작가님을 만나보는 건 어때?

열 번의 강사 선생님과 수업 진행하며 어떤 작가님을 섭외해서 주제를 이어 나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다. ‘놀이’와 ‘요리’를 주제로 한 작가님들은 누가 있을까 고민하던 사서는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도 결정하지 못해 미완성된 상태로 계획서를 제출했다. 고민을 거듭한 끝에 주최 측에서 제공해 주신 강사 인력풀에서 『소리 통통 음악 시간』을 집필하신 김리라 작가님을 섭외해 ‘놀이’라는 주제를, 직접 출판사에 전화해서 『된장찌개』, 『떡국의 마음』을 집필한 천미진 작가님을 섭외해 ‘요리’라는 주제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김리라 작가님은 다년간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단련으로 수려한 강의 솜씨를 보여주시며 아이들에게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소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주셨다. 소리가 가진 힘은 어떨고, 또 소리에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작가님이 준비해 온 ‘어떤 소리일까?’

문제에 열정적으로 답변하며 다시 한번 발표 경쟁에 불이 붙는 모습도 재미있게 관찰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과 사서가 한 땀 한 땀 열심히 준비한 재료를 통해 아이들은 소리꽃을 피우는 모빌 종을 만들었는데, 모빌 제작이 어렵지 않고 참여자가 모빌을 통해 책과 작가를 기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중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천미진 작가님은 『추석 전날 달밤에』 도서를 주제로 우리 전통 음식에 캐릭터를 부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참여자들과 '나만의 그림책 주인공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자는 약과, 한식, 송편, 배추, 깍두기, 오곡, 감자 등을 소재로 다양한 주인공을 그리고 비즈 스티커와 눈알 스티커를 붙이며 이를 구체화했다. 이후 작가님께 캐릭터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며 그림책 읽기를 넘어, 본인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리라 작가와의 만남



천미진 작가와의 만남



## 책과 함께 놀자! 사업이 끝난 후에도 우리 도서관에서 자주 만나요!

모든 수업이 종료된 8월 초 이후, 참여자들은 거짓말처럼 도서관에서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달리 얼굴과 이름이 눈에 익어서일 수도 있고, 실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여름 독서 교실과 어린이독서회, 독서의 달 특강은 물론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을 때도 도서관 어린이실에 방문해 선생님을 꼭 찾아내어 인사를 하곤 했다. 그러면서 참여자들은 “내년에도 복지관에서 선생님 또 볼 수 있어요?”와 같은 귀여운 질문도, “선생님 더 못생겨지셨네요.”라는 친구 같은 질문도 서슴없이 던지며 친분을 과시하곤 했다. 그런 아이들이 반갑고 소중해 사서는 만날 때마다 작고 소중한 간식을 내어주며 “선생님께 그런 질문은 안 돼요.”라는 따끔한 한마디로 일축하지만 서로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열다섯 번의 수업이 소중한 열 명의 친구를 만들어 준 셈이다. 끝으로 멋진 수업을 만들어 주신 최연주 강사님과 유성희 강사님, 많은 도움을 주신 김형경 사회복지사님과 자양한강도서관의 사서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 준 열 명의 친구들에게 사랑을 보낸다.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샌드위치 만들기, 실뜨기 등 책 읽고 하는 활동이 친구들과 노는 것처럼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또 하고 싶고 김리라 작가님과 만남이 제일 기억나요. **손\*\* (9세, 여)**
- 마지막 시간에 했던 바다 케이크 만드는 게 재미있었어요. **한\*\* (9세, 여)**
- 작년에 소감 말할 때 다음에도 꼭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진짜 또 하게 돼서 신기했어요. 저는 초콜릿 만드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만들면서 몰래 계속 초콜릿을 먹었거든요. 근데 계속 주셔서 좋았어요. 친해진 친구들과 협동해서 전지에 그리는 활동도 재밌었어요! **배\*\* (10세, 남)**
- (편지 내용 발췌) 재미있는 책을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책 읽기가 좋아서, 재미있어서, 목요일만 기다렸어요. 수요일은 '내일 목요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전 원래 책 읽기를 싫어했는데 선생님과 책 읽어서 '어? 재미있네!'라고 느꼈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강\*\* (9세, 여)**

### 사서의 소감 한마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독서회와는 결이 다르게 좋았습니다. 사서가 어린이 친구들의 생각을 접하기 쉽지 않은데, 책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는 점이 이 사업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다양한 책을 읽으며 놓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생각이 한 뼘씩 자라나는 게 느껴져서 보람있었고, 목요일 3시마다 도서관에서 오는 선생님을 반기는 표정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사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자라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관 담당자의 소감 한마디

담당자도 책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참여하는 아이들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다음에도 도서관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  
저는 7월 자양한강도서관에서 실습생으로 있었습니다. 실습하면서 3번 정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에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사서 선생님과 담당자님의 노고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작가와의 만남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작가님과 사서 선생님이 준비하신 재료들을 하나씩 포장해 오셔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신 후에 만들기 수업할 때 저희도 참여했는데 열 명의 아이와 이야기하며 수업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사서로 기획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뜻깊은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실습생**

## 부록

## 활동지, 참여자 편지, 참여자 활동 결과물



도서관 릴레이미션 활동지



참여자 편지



참여 어린이 활동 결과물 1



참여 어린이 활동 결과물 2



참여 어린이 활동 결과물 3



참여 어린이 활동 결과물 4



참여 어린이 활동 결과물 5



# 그림책으로 다독다독 마음 읽기

**김 현 진**

학마을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책 읽는 즐거움과 함께 도서관의 베스트프렌드가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참여기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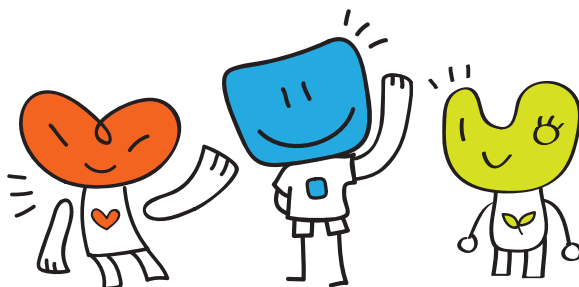
참솔지역아동센터

**참 여 인 원**

초등 1~5학년, 11명

**운 영 기 간**

[총 15회] 2023년 5월 17일 ~ 8월 23일,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준비하며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지역 아동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도서관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 도봉구립 학마을도서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새로운 기관에게 손을 내밀어 보다 많은 지역아동들이 도서관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독서 관련 활동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도서관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책과 도서관이 친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친구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책으로 마음을 나누며 친구가 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 도서관과 친구하지 않을까?

학마을도서관은 프로그램 운영 시작에 앞서, 사서 선생님과 함께 친해지기 시간을 마련하였다. 사서는 서로 간의 어색함을 풀고 보다 친밀해지기 위해 참살지역아동센터를 사전 방문하여 얼굴을 익히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도서관 견학 날에는 지역아동센터로 사서들이 아이들을 직접 마중 나가기도 하였다. 함께 손을 잡고 신호등을 건너며 골목골목 사진을 찍었고, 즐겁게 도서관으로 오는 길을 익혔다. “이렇게 10분만 걸으면 도서관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라고 묻는 사서의 손을 잡고, 참여 어린이는 “몰랐는데 내일 또 올래요.”라고 밝게 대답해 주었다.

아이들은 사서 선생님과 함께 도서관 곳곳을 견학하고 이용법을 익히며 즐거운 게임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쳤다. 책을 찾는 방법, 회원증 만드는 방법, 도서를 대출하는 방법을 게임을 통해 알아보고 이름을 외우기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첫 견학을 통해 아이들에게 도서관이야말로 아무 때나 어떠한 제약도 없이 찾아와, 즐겁고 편안하게 이용해도 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포북포북을 이용한 〈책 읽어 주세요〉 시간을 포함하여 사서 진행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보람찬 시간이었다. 어느새 친밀하게 말을 걸고 귀여운 장난을 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낯선 공간에서 즐거운 공간으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서 선생님 책 읽어 주세요



사서와 함께 도서관 친해지기





알콩달콩 도서관 견학가는 길



학마을도서관 견학



## 마음을 읽어주는 책 읽기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지역아동센터 및 진행 강사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을 때, 아이들에게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의견을 서로 교환하였다. 아이들이 일상 및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바르게 표현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담당자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우리 아이들이 정서표현력을 기르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동 주제를 <다독다독, 마음읽기>로 선정하였다. 심리 정서를 지원하는 회차별 독서 주제를 통해 다채로운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였다.

‘나 지금 이런 기분이야’를 시작으로 ‘두려움 극복하기’, ‘자신감을 만나봐’, ‘소중한 나’ 등으로 구성된 회차별 소주제를 통해 책과 함께 스스로의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올바른 표현을 통해 사회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심리·감정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다. 강사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야기거리를 찾아내고, 독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처음에는 쉽게 집중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점차 손을 들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새로 익힌 표현의 방식으로 감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신나고도 뿌듯한 과정이었다. 책과 함께 웃고, 화를 내고, 두려움을 나누며 어느덧 우리는 하나가 되어갈 수 있었다.



다독다독 마음읽기 1



다독다독 마음읽기 2





다독다독 마음읽기 3



다독다독 마음읽기 4



## 신성희, 이지현 작가와의 만남

『딩동 거미』, 『괴물이 나타났다!』의 저자 신성희 작가님과 함께하는 독서활동은 아이들에게 몹시 즐거운 시간이었다. 작가님은 먼저 직접 제작한 거미줄을 펼쳐, 멋지게 자신을 표현한 거미 모형들을 소개해 주었다.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공 모양의 거미, 디저트를 좋아하는 도넛 모양의 거미 등 아이들은 거미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그림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작가님 특유의 그림 스타일에 더한 화려한 채색과, 재미있는 말놀이를 구성한 독서 활동은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책 읽기와 즐거운 문해력 향상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그림책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림책 예술놀이』의 저자 이지현 작가님과는 멋진 나만의 그림책을 만들어 볼 수 있었다. 15주간 그림책을 통해 감정 읽기와 도서관 친해지기를 다양하게 경험한 아이들이, 자신의 그림책을 만들며 프로그램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작가님께서도 그림책을 활용하여 창의 생각을 연상하고, 사고를 확장시키는 활동을 선물해 주었다. 아이들 손에 쥐어진 작은 그림책이 마중물이 되어, 책과 함께 앞으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기를 희망한다.



이지현 작가와의 만남 1



이지현 작가와의 만남 2



신성희 작가와의 만남 1



신성희 작가와의 만남 2



##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 아이들을 가까이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다. 하루하루 어린이들이 성장하며 시나브로 몸과 마음이 커가는 시간에 도서관이 책으로 함께할 수 있어 오히려 보람과 행복을 얻어가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책을 읽으며 얻은 즐겁고 편안한 독서경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를 희망한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개월의 시간 동안 도서관도, 아이들도 함께 성장하며 돈독한 감정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기를 바란다.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더 길게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서 아쉬워요. 주\*\*(9세, 여)
- 작가 선생님과 함께 그림책을 만들었던 일이 재미있었어요. 강\*\*(9세, 여)
- 사서 선생님이랑 친해져서 좋았어요. 이\*\*(12세, 여)
- 수업 전에 매번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김\*\*(10세, 남)
- 처음에는 수업이 싫었는데 갈수록 수업이 좋아졌어요. 황\*\*(12세, 여)
- 사서선생님과 독서선생님 모두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김\*\*(10세, 남)
- 도서관에 자주 놀러가고 싶어요. 강\*\*(11세, 여)

### 사서의 소감 한마디

참슬지역아동센터와 첫 만남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긴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학마을도서관과 참슬지역아동센터에 뜻깊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모두 외워서 불러주고 싶었는데 가능할까 라고 걱정했던 마음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빠르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 반갑게 포옹과 하이파이브로 인사하는 사이가 되어 기쁘고 무척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초반 사서 선생님과 함께 도서관 견학을 진행하고, 책 읽어주세요 활동을 함께 했던 것이 참여자 아동과 도서관이 가까워지는 데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사서가 직접 도서관을 소개하고 독후 활동을 진행하는 경험을 통해, 낯설게만 생각했던 도서관에 편한 친구가 생긴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보람찬 일은 우리 아이들을 프로그램이 종료된 뒤에도 도서관에서 마주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게 된다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과 더욱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 강사의 소감 한마디

지난여름, 참슬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호기심으로 반짝이던 눈빛이 기억납니다. ‘과연 책 읽기 활동에 얼마나 흥미를 갖고 참여하여 호응할까?’ 하는 우려와 함께 시작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은 회차가 거듭될수록 그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처음엔 눈조차 마주치기 힘들어했던 아이들이 강사와 친구들 앞에서 밝고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책에 관심이 없었던 어린이들이 여러 활동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강사 또한 진심으로 부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책을 읽은 후 주제에 맞게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기만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완성하여 발표하는 과정은 어린이들 스스로 성장의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무더운 여름날 어린이들과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며 참슬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다시 한 번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희들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야! 사랑합니다.”

### 참여기관 담당자의 소감 한마디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 읽기의 중요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고, 센터 차원에서도 독서를 지도하고자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하였는데, 이렇게 도서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에게 독서는 건강한 소통과 성장의 매개체가 됩니다. 우리 센터 아동이 도서관과 친해지고, 책으로 함께하는 독후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책 읽기에 몰입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으로 성장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함께’라서 즐거웠던 시간

**조 현 진, 손 수 현**

금샘도서관

저로서는 두 번째로 진행하게 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한 층 성장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참여기관명** 두레지역아동센터

**참 여 인 원** 초등 3~4학년, 10명

**운 영 기 간** [총 16회] 2023년 4월 20일 ~ 8월 31일, 매주 월 또는 목요일 오후 3시 30분



무더웠던 8월, 금샘도서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갑작스럽게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미 프로그램은 절반 이상 진행됐고, 남은 프로그램은 사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참여하는 아이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아이들과 책 읽기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조금은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씩씩하고 밝은 아이들 덕분에 걱정과는 달리 마지막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함께 했던 순간이 즐거웠다. 이렇게 밝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더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울 뿐이다.



## 안녕? 도서관에 온 것을 환영해!

조현진 사서 선생님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하게 되어 프로그램 운영에 노련함이 돋보였다. 작년과 다른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여 더 많은 아이에게 참여 기회를 주었고 강사 선생님 섭외 시,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을 우선순위에 두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프로그램 첫 시간, 이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도서관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금샘도서관에 방문해 봤던 아이도 있었지만, 대부분 도서관이라는 장소가 처음이라 낯설어했다. 도서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사서라는 존재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지켜야 할 규칙들을 알아보았다. 또,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을 탐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도서관에 대한 어색함을 덜어냈다. 아이들은 포티컬러 북이나 팝업북, 점자책 등 다양한 책 종류에 흥미를 느꼈고, 금샘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참여형 이벤트에 아이들은 가장 큰 반응을 보였다. 직접 그림을 그려 갤러리에 전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도서관 견학 대부분의 시간을 갤러리에서 보낼 정도로 즐거워했다.



도서관에 온 것을 환영해!



내가 그린 그림, 갤러리에 직접 전시하기





## 너, 나, 우리가 함께 하는 책 놀이

정안나 강사님은 노인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출강을 다니시며 다양한 강의 경험이 쌓인 분이셨다. 그 덕분에 강사와 함께하는 독서 프로그램은 매끄럽게 계획되었다. 프로그램은 ‘나’로 시작하며 시야를 넓혀나갔다. ‘나’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다른 친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나’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옆으로 옮겨 ‘너’와 ‘우리’, ‘가족’과 ‘친구’에 대해 알아보며 서로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웠다. 이후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하여 현재의 삶과 과거의 삶을 바라보고 미래에 일어날 변화가 무엇인지, 부정적인 변화를 막기 위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10회차 동안 다양한 주제를 가진 10권의 책을 읽게 되었다. 처음엔 책과의 조우가 힘들었던 아이들이었지만 마지막 수업에서는 쏘르르 달려와 먼저 책을 읽어 달라던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이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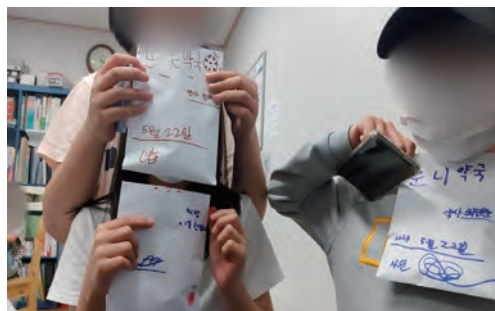
세계사에 숨겨진 재미난 이야기 듣기



커피 방향제 만들기



친구들에게 나를 소개해보기



행복해지는 약 만들기





##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사서와 함께하는 독서 프로그램은 또북또북과 체험형 VR 동화구연을 활용하여 진행했다. 『마음버스』 또북또북은 책 크기가 커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을 때 몰입감이 올라갔다. 도란도란 모여 그림책을 자세하게 보면서 책 속 인물들의 표정을 추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들의 상상력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곤 했다. 책 읽기에 단순히 그치지 않고, 곰 아저씨의 얼굴을 그려보는 등 연계 독후활동 시간을 가져보았다. 이 시간을 통해 『마음버스』가 아이들의 마음에 오래 남아 있기를 소망한다.

체험형 VR 동화구연에 활용했던 책은 『해님달님』이다. 아이들에게 『해님달님』은 익숙한 전래동화지만, 책 속 주인공과 거리감이 없이 활동하는 경험은 부족했다. 체험형 VR 동화구연은 아이들이 책으로 들어가서 호랑이와 싸우고 오누이를 도와 이야기를 완성해 가는 활동이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책 속에 있는 상황을 너무도 신기해하고 즐거워했다. VR 동화구연 수업은 처음이어서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도 다소 있었지만, 나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

여름 끝자락에 마지막 수업 날이 밝았다. 도서관과 책에 대해 충분한 경험을 가진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수업 마무리로 다 함께 영화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풍을 나온 것처럼 매우 설렌 표정을 가진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절로 웃음이 났다. 길다면 길었고, 어찌 보면 짧았던 16회차 수업이 이렇게 막이 내렸다. 비록 아이들과 만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헤어지게 되었지만, 아이들과 다채로운 추억을 쌓게 되어 좋았다. 아이도 어른도 성장하게 해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에 감사함을 느낀다.



마음버스 함께 읽고 하트 만들기



해님달님 책 속으로 풍덩!



다 함께 영화 관람하기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재미있는 책도 읽고, 만들기도 하고,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최고예요! 김\*\* (초등3, 남)
- 선생님이 올 때마다 새로운 책을 읽어주셔서 참 재미있었어요. 최\*\* (초등4, 여)
- 나는 책을 안 좋아하는데 이제 좋아진 것 같아요. 최\*\* (초등4, 남)
- 도서관에 가니까 신기한 게 많았어요. 다음에 또 갈게요 권\*\* (초등3, 여)
- 연극이 진짜 재미있었어요. 자주 보고 싶어요. 하\*\* (초등2, 여)
- 금샘도서관에서 내가 만드는 책 이야기를 하니 내가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 신기하고 참 좋았어요. 김\*\* (초등4, 여)
- 나는 책을 잘 안 읽었는데 이번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책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정\*\* (초등5, 여)
- 영화를 본 것이 정말 좋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하\*\* (초등3, 남)

### 사서의 소감 한마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는 것이 보여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자!”라고 약속하고 센터를 나왔지만,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으로 인해 약속이 지켜지지 못해 늘 마음에 걸렸고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조현진(사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함께 하게 되었지만, 반갑게 맞아주던 아이들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아이들의 성장에 발돋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수현(사서)

### 강사의 소감 한마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에 참여한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할 때마다 다른 아이들, 다른 상황들로 긴장감과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봄 햇살이 제법 따가워질 무렵, 아이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책과 별로 친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책이 참 재미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림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들어하고,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던 아이들이 아주 조금씩 조금씩 책을 읽어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옆의 친구들에게도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며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은 매번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심지어 왜 수업이 10회 만에 끝나는지 물어보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을 바라보면, 그동안의 수업 시간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의미 있던 시간이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책과 친해진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과 다양한 기회들을 통해서 책 속에서 꿈을 찾고 위안을 받으며, 살아가는 방법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기관 담당자의 소감 한마디

책을 읽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요즘 아이들에게 책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하는 학습이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지만, 첫날 금샘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서 선생님과 함께 도서관을 돌아보고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조금씩 흥미를 보였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할 때마다 책을 읽어보고 책의 주제와 어울리는 창작활동을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달려와 오늘 만든 작품을 자랑하느라 바쁜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은 활동을 넘어 다양한 활동들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수업은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활동이었는데 인기가 폭발하여 서로 가겠다고 앞다투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하며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쉬는 시간 책을 보면서 지내는 아이들도 있지만, 책이라면 공부라고 생각해서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도망 다니는 아이들도 어렸을 때 책과 도서관에 대한 좋은 기억이 훗날 다시 책과의 인연을 이어주는 좋은 영양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콩시루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어느새 싹싹 자라나는 콩나물들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뿌려진 도서관과 함께 읽은 책들의 좋은 양분들이 어느 날 지혜로 자라나길 바라봅니다.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도서관과 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간직할 수 있게 도와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칭찬하며 고생 많으셨던 담당자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함께’라서 가능한 즐거운 책 읽기

## 오 하나

범어도서관

이번에 처음으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책과 가까워지고 도서관을 ‘가고 싶은 곳, 즐거운 곳’으로 떠올리고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운영했습니다.

**참여기관명** 황금지역아동센터

**참 여 인 원** 초등 1~3학년, 10명

**운 영 기 간** [총 15회] 2023년 4월 12일 ~ 7월 24일,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책=즐겁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책을 가까이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책이라는 이름에서 떠올리는 것은 지루한 것, 재미없는 것, 보기 싫지만 봐야 하는 것쯤이 아닐까? 책이 싫지 않더라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것들이 가득한 어린이들의 세상에서 책은 그렇게 즐거운 선택지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 책 읽기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즐거운 것,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도서관은 신나는 곳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 그래서 누가 권유하지 않고도 스스로 책을 읽고 싶고 도서관에 가고 싶어진다면 대성공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렇게 목표는 정해보았지만 막상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이 이어졌다.



## 사서와 함께 ‘즐겁게’ 책읽기

갈수록 우리 생활 반경 가까운 곳에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많아지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독서활동에 대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도서관을 처음 방문해 보는 어린 친구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반납하는 것 외에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소개해 주고, 그 중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골라 보았다. 내가 선택한 프로그램은 바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3D펜 체험하기였는데 수업 마지막 날까지도 3D펜 체험이 재미있었고 다시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았다. 어떤 친구는 그날 아쉽게 결석해서 가지 못했으니 다른 날 도서관에 가서 다시 수업을 할 수 없느냐는 의견을 줄 만큼 반응이 좋았다.



4월 12일 도서관 활용수업(3D펜 체험) 1



4월 12일 도서관 활용수업(3D펜 체험) 2

사서가 직접 진행한 두 번의 ‘책 읽어주세요’ 수업은 책을 활용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 번째 수업에서는 책을 활용해 퍼즐 교구를 만들었다.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직업을 소개하는 책이다. 책의 이미지를 활용해 퍼즐 배경 판과 퍼즐 조각을 만들어 아이들이 직접 책을 읽고 원하는 직업의 배경 판을 골라 퍼즐을 완성할 수 있도록 했다. 완성된 퍼즐 판을 들고 직업을 소개하는 아이들을 보니 이미지를 편집하고 가위질을 해가며 힘들게 만든 보람이 느껴졌다. 두 번째 시간에는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라는 책을 읽고 우리 동네에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를 엽서에 그려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도록 했다. 요즈음의 어린이들은 수성 못에 가서 탕후루 먹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 등 친구들의 관심사를 즐겁게 나눌 수 있었다. 엽서 소개가 끝난 후 이어서 우리 마을 꾸미기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었다.



5월 12일 책 읽어주세요



7월 10일 책 읽어주세요



## 강사 선생님과 작가 선생님 섭외하기

10회 간 이어지는 강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은 독서심리치료와 미술심리치료를 공부하고 각종 공예 자격증도 소지하고 계신 북아트 선생님이 진행했다. 여러 가지 책들을 함께 읽으며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책 읽기에 대해 좋은 기억을 남겨 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매번 수업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지역에서 활동해 주시는 그림책 작가님들을 모셨다. 김민지 작가님은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인형극 공연을 했던 경험이 있어 아이들을 위해 다시 부탁드렸다. 아이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에 따라 아이들 품으로 숨어들기도 하는 생생한 인형극에 푹 빠져서 자꾸 앞으로 다가오는 바람에 책상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즐거운 수업이었다. 인형극 이후에는 직접 배경 판을 꾸미고 인형을 만들고, 대본을 써보는 체험 수업이 이어졌다. 수줍어하는 친구들도 자신만만한 친구들도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훌륭히 해내어 성취감을 느끼며 수업이 마무리되었다. 이지수 작가님은 그림책 『나리의 정원일기』 저자이자 플로리스트로 활발한 강의와 활동을 하고 계신다.



작가님과 함께 선인장 그림책을 읽고 직접 스투키 화분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했다.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화분을 만들고 집으로 가져가 오래오래 돌보며 즐거운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화분이 완성될 수 있었다. 부디 그 화분을 볼 때마다 즐거웠던 그림책 수업을 떠올려주기를!



5월 8일 김민지 작가님 수업 1



5월 8일 김민지 작가님 수업 2



6월 12일 이지수 작가님 수업 1



6월 12일 이지수 작가님 수업 2



## ‘도서관’에 또 와야해!

여름방학이 다가오자 수업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다음 수업은 언제 또 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방학 후에는 수업이 없다고 말하자 너도 나도 아쉬워하며, 재미있었던 수업, 다시 하고 싶은 수업, 참여하고 싶었지만 결석해서 아쉬웠던 수업에 대해 재잘재잘 떠들었다. 다음번에는 꼭 모든 수업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끝이라니 담당자로서도 몹시 아쉬웠다.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인사하며 수업을 마무리했다. 마지막에 했던 인사처럼 친구들이 정말 도서관에 스스로 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도서관에 가면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 것 같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정도면 나를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책 내용과 관련된 미술활동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서\*\*(10세, 여)**
- 한 명씩 돌아가며 책을 읽었는데 책 내용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정\*\*(10세, 여)**
- 『나만 아는 우리 동네』 책을 읽고 우리 마을 꾸미기를 했는데 제가 마음껏 꾸밀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김\*\*(9세, 여)**
- 책을 읽으면서 인형극을 했었는데, 인형극이 재미있었어요. 또 나만의 인형 만들기를 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정\*\*(8세, 여)**

### 사서의 소감 한마디

‘도서관 수업’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딱딱한 느낌을 떠나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어 노력했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전달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통해 책을 재미있게 생각하고 도서관을 잘 모르던 어린이들이 즐겁게 도서관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책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강사의 소감 한마디

책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고,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며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독후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했다.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소리도 작고 부끄러워하였지만 수업 회차가 지날수록 먼저 읽고 싶어 하고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말해주는 등 수업을 즐기고 수업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였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다음 회차의 책을 궁금해하고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보여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 참여기관 담당자의 소감 한마디

요즘 아동들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짧은 글이나 문제집의 내용조차도 읽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아이들에게 독해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좀 더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책 내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미술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책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해보면서 책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책과 친해지는 소중한 시간

### 김 잔 디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에 대하여 알려주고 책 읽는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책 선물을 받고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던 어린이들의 모습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저에게도 사서로서 설렘과 뿌듯함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기관명** 동대구지역아동센터

**참 여 인 원** 초등 1~5학년, 12명

**운 영 기 간** [총 15회] 2023년 6월 2일 ~ 9월 8일,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 설레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준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4년 차 초보 사서인 나에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맡아서 기획하고 이끌어 나간다는 설렘을 준 사업이다. 참여기관 선정부터 독서교육에 열정이 있는 기관과 함께 하고 싶어 동부도서관에서 취약계층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서 선생님과 상의 후, 동대구지역아동센터에 연락하게 되었다. 다행히 아동센터에서도 흔쾌히 함께 하고 싶다고 하였고, 15회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참여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을 즐기고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다.

참여기관과 대상을 정하고 나니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교과과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고, 함께 책을 읽었을 때 익숙한 느낌이 들어 책에 대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과서 수록 도서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강사 선생님과 첫 수업에서 『까만 아기 양』을 함께 읽고 독후활동을 진행했는데, 책을 읽자마자 “선생님! 어디서 본 내용 같아요!”라고 말하는 어린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도했던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 같아 부듯했다.



## 사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는 도서관!

첫 수업은 ‘사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는 도서관 이용법’으로 도서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불가능해서 어떻게 하면 친근하고 재미있게 도서관에 대하여 알려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고민 끝에 ‘도서관 골든벨’과 ‘동부도서관 스퀴시 북 만들기’를 준비해 수업을 시작했다. 책 빌리는 방법, 책 찾는 방법,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여러 용어들을 차근차근하게 설명한 후에 진행하였다. 골든벨 퀴즈에서 너도나도 손을 번쩍 들면서 열정적으로 퀴즈를 맞히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통해 도서관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았다. ‘도서관 골든벨’을 진행한 후에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스퀴시 북을 동부도서관 건물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스퀴시 북 안에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15차시 동안 함께 읽어 볼 책 13권의 표지를 오리고 붙여서 앞으로 진행할 수업에 대하여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스퀴시 북을 만들면서 “선생님! 동부도서관은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등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고 싶다는 모습을 보며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손이 많이 가서 힘들었던 마음이 사르르 풀리곤 했다.



도서관 골든벨



동부도서관 스쿼시 북 만들기



동부도서관 스쿼시 북 만들기



동부도서관 스쿼시 북 만들기



##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는 교과서 속 이야기

교과서 수록 도서와 인성 관련 그림책으로 진행한 강사 선생님과 수업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한 수업은 『오싹오싹 크레용』을 함께 읽고 독후 활동을 진행한 수업이었다. 먼저 ‘오싹오싹 시리즈’인 『오싹오싹 당근』과 『오싹오싹 팬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었다. 책을 읽은 후에는, 함께 북트레일러 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걱정과 고민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발표하기 부끄러워하고 소극적이었던 어린이들이 한 명, 두 명 발표를 시작하자 서로의 고민에 대하여 경청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독후 활동으로 ‘걱정인형 휴대폰 거치대’를 만들면서 인성 관련 그림책 『오싹오싹 크레용』 수업을 마무리했다.





강사 프로그램 『오싹오싹 크레용』



강사 프로그램 『까만 아기 양』



강사 프로그램 『저리 가 짜증 송아지』



강사 프로그램 『바삭바삭 갈매기』



책 읽어주세요! 『딩동거미』



책 읽어주세요! 『앗! 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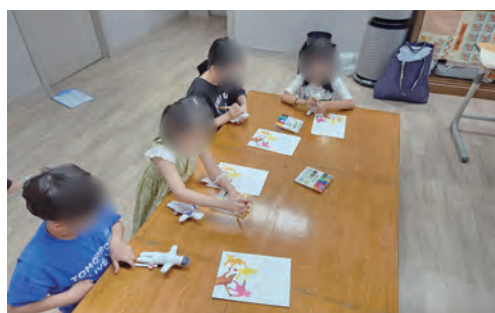


## 나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인형극 공연

그림책 『이게 뭐야』의 김민지 작가님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림책 인형극’ 수업을 진행했다. 먼저 김민지 작가님의 인형극 공연 후, 어린이들이 직접 인형극 캐릭터와 극본, 배경을 만들고 친구들 앞에서 공연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형을 만들 때는 적극적으로 표정을 그리고 색칠하던 어린이들이 막상 극본을 쓰고 이야기를 창작할 때는 많이 어려워했다. 그런 어린이들에게 작가님은 평소에 학교, 집 등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보라고 제안하셨고, 2팀 모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극본과 무대를 만들었다. 짧은 시간 안에 인형극 캐릭터, 극본, 무대를 모두 만들고 연습해서 공연을 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인형극 공연을 끝내고 난 어린이들의 표정에서 해냈다는 뿌듯함이 보여 작가님, 아동센터 선생님과 함께 큰 박수를 보냈다.



작가 프로그램 : 작가님의 인형극 공연



작가 프로그램 : 인형극 만들기



작가 프로그램 : 내가 만든 인형극 공연



작가 프로그램 : 내가 만든 인형극 공연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선생님이 재미있는 책을 골라 읽어주셔서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이 수업을 한다면 꼭 참석할 것이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초등5, 여)**
-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주셔서 좋았습니다. **김\*\* (초등2, 여)**
- 매주 금요일마다 책과 재미있는 만들기를 해서 재미있었고, 만든 것을 잘 활용했습니다. **최\*\* (초등4, 남)**
- 재미있었는데,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니 아쉬웠습니다. 더 길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독서 수업 중에 가장 재미있는 독서 수업이었습니다. **김\*\* (초등4, 여)**
- 너무 재미있어서 내년에도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 (초등1, 여)**

### 사서의 소감 한마디

저에게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은 배울 점도 많았고, 사서로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 공모 신청을 할 때만 해도 전체적인 프로그램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도 많았고, 막막했지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있는 운영사례집과 도서관에 계시는 여러 선배 사서 선생님, 동대구지역아동센터 담당 선생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참여 어린이들이 도서관과 책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다는 것이 저의 작은 목표였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수업이라고 알려주니 많이 아쉬워하고 내년에도 또 하고 싶다는 어린이들의 소감을 들으면서 저의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 많이 부듯했습니다.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동대구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의 독서 교육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 강사의 소감 한마디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했었지만,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에는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 수록 도서와 인성 관련 도서들로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기억을 남겨주고 싶다는 바람이 컸습니다. 10회의 수업 동안 아이들이 끝까지 집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책을 좋아할지에 대해서도 마음 졸였습니다.

첫 시간,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무슨 책 봐요? 알려주세요.”라며 나한테 안기는 아이들을 보며 남은 9회의 시간들도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집중하는 아이들을 보며 책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 발표도 잘 하지 않던 아이들이 책 관련 질문에 앞다투어 발표하고, 다양한 독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수업을 하는 저의 마음도 벅차올랐습니다.

마지막 수업 날, “선생님, 이제 못 봐요? 또 오세요. 책 보여주세요.”라는 아이들의 말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하고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참여기관 담당자의 소감 한마디

사서 선생님께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고 15차시에 걸친 수업에 참여하면서 도서관 이용법, 교과서 수록 도서 함께 읽기,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과과정을 통해 이미 배웠거나 앞으로 배워야 할 책을 함께 읽고 책 속의 한 대목을 주인공이 되어 멋지게 흉내도 내보면서 평소 아이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제 선정부터 캐릭터, 대본 구성까지 아이들 스스로 해낼 기회를 제공해주고 대본을 써 내려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 이야기가 제대로 마무리되는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걱정과 달리 아주 멋진 작품을 완성하여 함께 참여한 친구들의 부러움은 물론이고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도 아낌없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오디오북은 결코 낯설지 않으며, 머지않아 학교 교과과정에서도 온라인 교과서가 지금의 교과서를 대체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종이책을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많은 미디어 노출로 책과 점점 멀어져 가는 아이들에게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종이책이 주는 즐거움을 알게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또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수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책을 통해 알아가는 ‘나와 우리’

## 조 아 라

검암도서관

아이들에게 도서관과 책을 알려주고, 그들의 내면적인 성장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15주가 지난 후 성장한 건 아이들 보다 오히려 저였습니다. ‘함께’ 읽어 행복했습니다.

**참여기관명** 새일꾼지역아동센터

**참 여 인 원** 초등 1~5학년, 10명

**운 영 기 간** [총 15회] 2023년 5월 17일 ~ 8월 23일,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 기대감으로 시작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사업을 신청하며 도서관에서 타 기관과 다 회차 수업을 진행하기에 가장 좋은 구성이라 생각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하였다. 도서관과 책에 대해 알려줄 사서와, 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강사님, 그리고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려주며 아이들에게 책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작가님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 기대가 되었다. 15회차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세상을 향한 눈을 키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 너, 우리에게 대한 메시지를 담아 도서를 선정하였다.



## 사서, 강사, 센터 담당자의 전문성으로 시너지!

실수였다. 주차별 도서와 주제를 선정할 때 기관에 대한 이해가 적었다. 우리에게 대한 메시지를 담으며 가족에 대한 도서를 선정하였으나 한부모 가정 아이가 있었다. 게다가 아이들은 1~5학년으로 지식수준 차이도 있었고, 아이마다 스케줄이 달라 90분의 수업에 온전히 참여 하지 못하고 책만 읽고 가야 하는 경우, 늦게 와서 독후활동에만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어쩔수 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운영시간을 변경하고, 도서로 전달하고자 했던 주제와 활동 내용을 변경하였다.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높은 지역아동센터와 책과 활동 내용에 관한 지식이 많은 사서, 강사의 협업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 사서와 함께 도서관, 책과 친해져요!

검암도서관과 새일꾼지역아동센터는 검암 권역의 유일한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로 아이들은 이미 검암도서관을 방문해본 경험이 있었다. 프로그램 운영 중에는 견학 대신 도서관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와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 아이들이 기존에 알았던 도서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고학년 친구들은 십진분류와 청구기호에 관심을 보였다. 학교도서관 책에도 붙어있는 걸 봤다며 이후 수업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였고, 도서관과 한층 친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을 때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지원받은 또북또북을 활용하였다. 센터 규모가 작아 빔 보다는 모두 모여 또북또북을 볼 때 아이들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북또북의 가이드를 따라 책을 읽고 독서활동 매뉴얼을 활용하여 활동 내용을 선정하였다.

아이들이 1~5학년으로 지식수준의 차이가 크고 흥미를 느끼는 부분도 달라 조별 게임을 많이 진행하였다. 고학년-저학년을 섞어 한 팀을 만들어 고학년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에게 알려주며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저학년도 함께할 수 있는 복당고 게임, 메모리 게임, 그림 맞추기 등 단순한 게임을 진행하였다.

『나의 초록 스웨터』는 원래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선정하였으나, 센터 특성에 따라 시대의 변화를 느끼고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책에 나온 이미지를 활용하여 옛날에 이용했던 물건들이 오늘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를 카드로 만들어 메모리 게임, 복당고 게임을 하였다. 이후 복당고 게임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되어, 매 회차 시작할 때마다 “오늘도 복당고 게임 해요?”라고 묻는 것이 아이들의 인사가 되었다.



## 강사님의 경험을 통한 맞춤 강의 진행!

처음부터 강사님은 학교, 교회, 도서관, 보육원 등 다양한 곳에서의 경험이 있는 분을 선정해야겠다 생각했고, 다행히 오랜 기간 함께 해왔던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담되, 아이들의 수준이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동화책보다는 그림책으로 도서를 선정하고, 글쓰기보다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수업 초반에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 작은 게임이나 만들기를 통해 주제를 먼저 알려준 다음, 함께 책을 읽고 아이들이 이를 흡수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갔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중 진행된 『도깨비 빙수』를 읽고 빙수와 와플을 만들어 먹은 것이었다. 다행히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날 빙수와 와플을 만들어 먹었는데,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 우리도 부듯하였다. 모든 아이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 하였는데, 팔빙수는 자신의 취향대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사서만 먹어봤던 와플을 직접 만들었다는 점이 아이들의 성취욕을 자극했다. 향후 설문조사에서 모든 아이가 빙수 만들어 먹은 날이 좋았다 답하여 아이들의 선호도가 분명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인형 만들기, 전통 놀이하기, 열두 띠 병풍 만들기 등 나만의 물건 만들기과 활동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강사님이 아이들의 특성을 알게 되어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하였다. 먼저 발표하기 수줍어하는 아이, 글자 쓰는데 부담을 느끼는 아이, 먼저 관심을 가져주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 등 아이마다 다른 성격을 파악하여 팀을 꾸리거나 발표할 때 반영하였다. 많은 경험을 통한 독서지도사님의 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 책은 어떻게 만들어요?

인천 지역에 계신 『편의점 비밀요원』의 박주혜 작가님과 『왜 띄어 써야 돼?』의 박규빈 작가님을 모시게 되었다. 첫 수업 때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하며 작가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하자 아이들이 모두 기대하였다. 두 책을 모두 접해본 아이들도 있어 더욱 기대하게 되었다. 작가님과의 만남에서는 책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구상하고, 주제를 만들고 표현하는지를 상세히 알려주셨다. 『편의점 비밀요원』은 3개의 주제에 관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제비뽑기와 상상력을 동원하여 나만의 편의점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왜 띄어 써야 돼?』와 『왜 맞춤법에 맞게 써야 돼?』를 통해서는 띄어쓰기와 맞춤법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빈 곳 그림 그리기를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이끌어 내었다.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이 작가님께 사진과 사인을 요청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이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책을 사랑하게 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 같아 뿌듯하였다.



## ‘함께’라서 행복했어요.

앞서 아이들이 나, 너,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내면 성장을 돕고 싶어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15주 차가 지난 후 내가 느낀 것은, 성장한 것은 아이들보다 오히려 나였다는 것이다. 사서로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기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웠고, 대상자에 따라 도서 선정과 주제를 달리해야 한다는 점도 배웠다. 그리고 작은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처음에 책은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라고 답하던 아이가 몇 주차가 지난 뒤엔 다음엔 어떤 책을 읽는지 미리 물어보고, 책을 읽을 때에도 먼저 손을 들어 읽겠다고 할 때는 신기하기도 했다. 또, 함께 수업을 듣는 남매가 있었는데, 오빠가 처음에는 동생을 귀찮아 했으나 프로그램 속의 게임을 진행하면서 동생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어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이 책을 통해 앞으로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 아이들과 책이 만날 수 있는 오작교의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이들아, 언제나 도서관에 놀러 와!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프로그램을 통해 책과 더 가까워졌고 중간중간에 게임 활동도 하고 간식도 너무 좋았던 것 같다. 나중에 또 하고 싶다. **이\*\*(초등5, 남)**
- 프로그램에서 읽은 책이 너무나도 재밌었다. 특히 요리를 만들었던 『도깨비 빙수』가 제일 재밌었다. 다음에도 재밌는 활동을 하고 싶다. **조\*\*(초등2, 여)**
- 와플이랑 빙수도 만들어서 먹고 재밌는 책을 읽어서 재밌었다. 그리고 다음에 도서관 프로그램을 또 하고 싶다. **조\*\*(초등4, 남)**

### 사서의 소감 한마디

도서관에 대해 소개하고, 책을 함께 읽으며 성장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일상을 공유하며 시간이 쌓일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사소하게 놓쳤던 부분도 보였고, 다시 한다면 더 잘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년 봄에도 아이들과 또 만나고 싶습니다.

## 참여기관 담당자의 소감 한마디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우리 주변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과 언제나 방문하여 지역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다. 다양한 도서관들을 만나볼 수 있고, 책과 관련된 게임, 미술 등 재미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동들이 높은 흥미와 적극성을 보였다. 도서관과 좀 더 친해질 기회가 된 것 같고, 아동들도 높은 만족도를 보여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 부록

## 보도자료

### 기호일보

인천 서구 구립도서관, '2023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 선정

출처 : 성지 | 시작/영성

### 인천 서구 구립도서관, '2023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 선정

A | 위경원 기자 | 2023.03.01 | 1분 40초

인천시 서구 구립도서관(관장 석남·겸단 삼국 신석)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최하는 '2023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에 선정됐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해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도서관 기능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립도서관사업단은 5개 지역아동센터(새밀문지역아동센터·석남지역아동센터·서문사랑하늘지역아동센터·샘물지역아동센터·여매동무신나는꿈지역아동센터)와 협업체 ▲사서와 함께 하는 도서관 활용 수업 ▲전문 강사의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작가와와의 만남 등 15차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구시립도서관단 구재용 이사장은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 어린이들이 책 읽기 즐거움을 느낄 만한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 독서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기관 간 협력해 도서관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상철 기자 csc@khiho.co.kr

### 신아일보

#### 꽃어집 발자 매디칼 분쇄기

### 인천 서구 구립도서관, '2023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 선정

최상철 기자 | 2023.03.01 | 1분 40초



인천 서구 시립도서관사업단이 운영하는 서구 구립도서관(관장 석남·겸단 삼국 신석)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최하는 '2023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에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해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서관사업단은 5개 지역아동센터(새밀문지역아동센터·석남지역아동센터·서문사랑하늘지역아동센터·샘물지역아동센터·여매동무신나는꿈지역아동센터)와 협업체 ▲사서와 함께 하는 도서관 활용 수업 ▲전문 강사의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작가와와의 만남 등 15차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립도서관 이사장은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어린이들이 책 읽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독서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기관 협력을 통해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구/박주환 기자  
pjy6093@hanmail.net

최상철 기자 csc@khiho.co.kr

# 우리의 진로는 특별하다!

## 진로이즈백(百)

김 세 희

수봉도서관

‘긍정·다정·열정·진정’이 넘치는 14년차 경력의 청소년 담당 사서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먼저 다정하게 다가가고, 열정을 뽐어내는 마음으로 2년 연속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에 선정되어 진정성을 갖고 운영하였습니다.

참여기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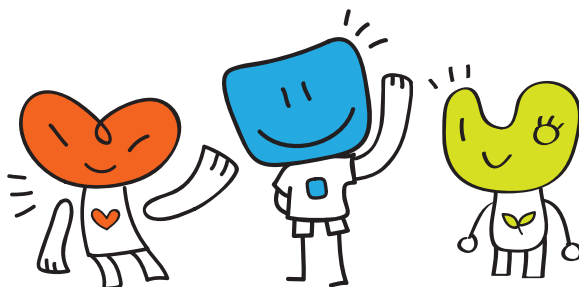
미추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참 여 인 원

14세~19세, 청소년 10명

운 영 기 간

[총 12회] 2023년 5월 12일(금) ~ 7월 28일(금) 매주(금) 오후 1시 30분







## ‘담장너머 큰 세상으로’

청소년기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큰 물결, 바람에 비유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라 말한다. ‘질풍노도’라는 이 단어 하나로 알 수 있듯이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감정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찬 시기이다. 누구든 성장 과정에서 거치는 시기이며 이 시기를 어떤 방법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진로가 일찍 결정되기도 하고, 오랜 방황의 시기를 보내기도 하는 등 각기 다른 사춘기의 열병을 앓는다. 특히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에 갇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진로’에 관해 여러 가지 혼란과 충동을 경험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수봉도서관 사서와 미추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복지사가 뚝뚝 뭉치기로 했다. 심리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여 자신의 인생 로드맵을 설계하고 진로 방향 선택의 도움을 주기 위해 ‘독서’와 ‘에니어그램’을 접목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기획하였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수봉도서관은 기획, 강사 섭외 및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미추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참여자 모집과 홍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두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정한 꿈을 찾아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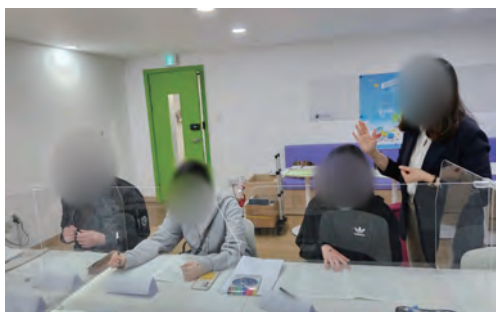
## ‘에니어그램,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진로를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된다. 자신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동시에 타인의 특성을 인정하는 자기 탐색 시간을 갖고자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를 진행하였다.

‘에니어그램’검사는 사람의 성격을 9가지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의 지표로 에너지에 따라 머리(지성), 가슴(감성), 장(의지)으로 분류가 된다. 머리(Head) 유형으로는 5, 6, 7번 유형, 가슴 (Heart)유형으로는 2, 3, 4유형, 장(Body) 유형으로는 1, 8, 9유형이 이에 속한다. 학교 밖 청소년 총 10명이 검사를 진행하였고, 1유형 1명, 2유형 3명, 3유형 1명, 6유형 1명, 7유형 2명, 8유형 2명으로 분류되었다.

검사 결과를 받은 청소년들은 ‘검사결과가 자신의 성격과 잘 맞아서 놀랐고, 성격 유형에 맞는 진로 전략을 짤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에니어그램’ 검사에서 그치지 않고, 전문 강사와 함께 자신의 선호 성향과 성격 특성이 어디에 속하는지 자세히 탐색해보고 자신의 유형에 따른 강점과 보완할 점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 진행 1



'에니어그램' 성격유형 검사 진행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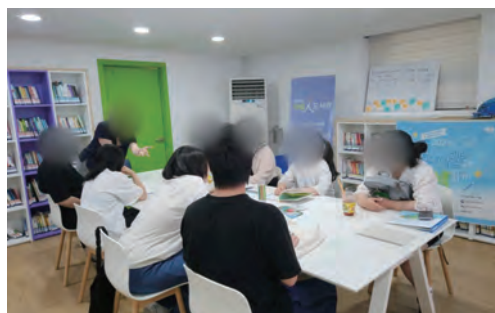


## '청소년, 꿈을 디자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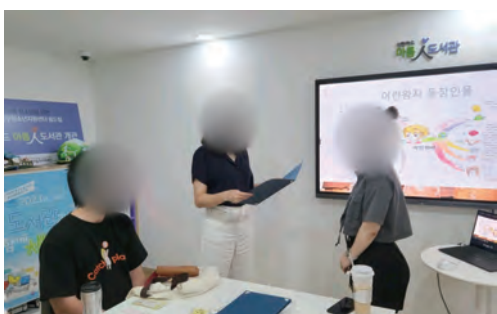
기존의 학업(검정고시) 및 취업 지원 중심의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자기계발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해 양질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진로이즈백(胔)'을 기획하였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 선호도 등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진로 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담당사서-강사는 참여자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각자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다. 다양한 문학작품을 감상하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들을 통해 좀 더 쉽게 에니어그램을 파악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미래의 나를 그려보는 활동으로 진로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하였다.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참여자들은 진로에 대한 크고 작은 그림을 짜임새 있게 그리며 꿈과 미래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갔다.



강사 독서프로그램 운영 1



강사 독서프로그램 운영 2



강사 독서프로그램 운영 3



강사 독서프로그램 운영 4



## ‘Step by Step 이미지메이킹’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만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지메이킹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어필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펼치기 위한 과정이다. 자신의 본질과 장점 표현을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켜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교육이다.

기업과 단체 등에서 CS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아 강사를 섭외하여 예비 사회인의 단정한 용모와 복장, 퍼스널컬러 진단, 올바른 인사 예절, 상황에 맞는 대화,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시뮬레이션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미지메이킹 교육을 진행하였다. 단순 강의 형식의 교육이 아닌 실습과 체험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미지메이킹’특강 1



‘이미지메이킹’특강 2



## ‘인생 이야기들이 더해지다’

‘책’과 ‘인생’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었다. 어떤 장소가 좋을까? 고민하던 중 수봉도서관 인근에 있는 독립서점 ‘판동판동’이 떠올랐다. 사장님의 흔쾌한 협조로 감성 넘치는 서점 투어와 일과 인생에 관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서점 운영 철학을 시작으로 그동안 경험에서 체득한 서점 운영의 어려움, 동네 서점의 존재 의미, 그리고 보람, 앞으로의 계획 등 애정 어린 이야기를 해주셨다.

인생 선배의 진솔하고도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통해 나의 특별함이 필요한 분야,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 되는 분야 등 진로를 위해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독립서점 ‘판동판동’ 문화탐방 1



독립서점 ‘판동판동’ 문화탐방 2



## ‘함께 한 추억, 포토북에 담다’

우리가 함께 한 3개월간의 여정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매 회차 활동에 참여하며 참여자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포토북 구성부터 기획-내용 작성-편집-디자인 등 정성을 담아 직접 제작하였다. 12회차의 운영 사진만 살펴보아도 참여자들의 마음과 태도가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어색하고 낯설었던 첫 만남을 시작으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을 서로 나누며 조금씩 서로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배운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길을 나서자. 그리고 즐겁게, 힘차게 걸어가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멋진 인생이 된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동반자여, 앞으로 전진!” 앞으로 빛날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잊지 못할 추억이 담긴 우리만의 포토북 완성!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포토북 1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포토북 2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포토북 3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포토북 4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여러 책들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고, 에니어그램 검사를 통해 나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 내 유형과 관련된 사람들을 알 수 있고, 그 인물과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서 좋았다. 소설을 썼을 때는 비록 반응이 적어 아쉬웠으나, 오랜만에 작문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토론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고, 나와 나이 차이가 나는 동생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이 프로그램이 마지막이라는 게 제일 아쉽다. **송\*\*(19세, 남)**
- 에니어그램 검사를 해서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릴 수 있어서 즐거웠다.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정\*\*(14세, 여)**
-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독립서점 ‘따똥판똥’을 갔던 일이었던 것 같다. 평소에도 독립출판물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한 곳에서 다양한 책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또 에니어그램을 통해 나의 성격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김\*\*(19세, 여)**
-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외롭고 쓸쓸하게 글을 혼자 쓰고 너무 이상하게 마음이 몽클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사람 소리가 북적북적 들리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토론을 집에서는 전혀 못했고 해볼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두 가지나 하니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고 다음에도 또 하고 싶다. **강\*\*(18세, 여)**
- 나는 책을 읽고 정리하고 외우는 것은 많이 해봤지만, 오히려 책을 읽고 책 내용을 공유하면서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 **안\*\*(16세, 남)**

## 사서의 소감 한마디

‘학교 밖 청소년’은 각자의 특별한 이유와 사정으로 보통 학생들과는 조금 다른 경로를 걸어갈 뿐,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공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제도로 인해 진로·진학의 정보 접근 기회가 부족하여 진로 찾기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독서’를 매개로 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진로이즈백(剖)’을 운영하였습니다.

함께 한 3개월의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로에 대한 간접 독서 경험을 통해 관심 분야의 폭을 넓혀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참여해 준 청소년들이 조금이나마 책 읽기가 즐거워지고 도서관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책을 통해 삶의 갈피를 잡고, 스스로 배우며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이 제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사서의 사명감과 부딪힘, 보람감을 주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 강사의 소감 한마디

고민 가득~, 설렘 가득~ 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미추홀구 학교 밖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성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에니어그램을 매시간 두께가 있는 책들을 가지고 재미있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함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늘 책을 정독하여 읽고 이해해주는 친구, 책 읽기는 어렵지만 수업만큼은 열심히 듣고 어느 날 책을 읽어와 웃어 주는 친구, 나이가 어린데도 언니, 오빠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친구, 수줍어 발표는 힘들지만 웃어주며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는 친구, 누구보다 진지하게 의미를 부여하며 글을 잘 쓰는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이 이번 프로그램의 일등공인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리고 울림 있게 글로 또는 이야기로 풀어 나가주는 친구들은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는 친구들이 그 다름을 하나하나 모아 멋진 무지개를 만들어 준 것 같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소감을 마무리 해봅니다.

# 두 눈을 반짝반짝, 책 읽는 어린이

## 정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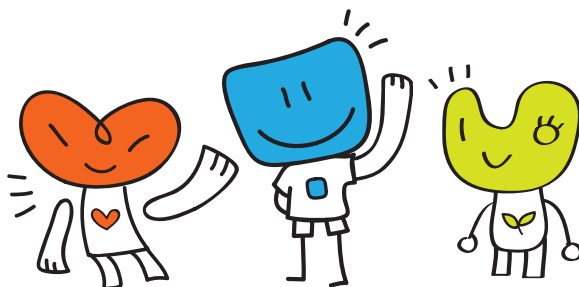
꿈나무정보도서관

어쩌다 보니 11년 차 사서가 되었다. 어린이들이 책과 즐겁게 놀 수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애쓰고 있다. 모두의 도움으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가 잘 마무리되어 기쁘다.

**참여기관명** 아이들웃음터 지역아동센터

**참여인원** 초등 1~3학년 8명

**운영기간** [총 17회] 2023년 5월 1일 ~ 8월 31일 (운영일 프로그램별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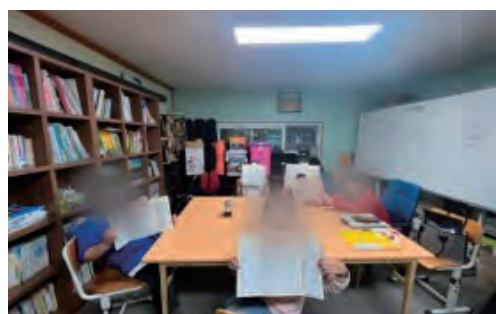
11년 전 동두천시를 사서직을 지원하며 면접에서 사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답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중에 지식정보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사서가 되고 싶다는 것이 한가지 이유였는데 이번에 진행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은 그런 나의 바람에 응답하듯 자연스럽게 다가온 것이었다.

공모에 선정된 후 세부운영계획서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프로그램 운영횟수가 많아 다소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프로그램 구성에서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심어주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자 금방 답이 나왔던 것 같다. 나는 강사프로그램, 견학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또북또북 등 필수 15회의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 공방 체험 프로그램과 우리 도서관의 장점인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전시회를 운영하고자 계획을 세웠다.

먼저 열 번의 강사와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은 어린이 독서지도 마음의 원픽! 구은미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다. 구은미 선생님은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독서지도 프로그램, 어린이 독서회도 함께 운영해 주셨던 분으로 다년간의 경력과 마술, 미술, 만들기, 글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들에게 늘 인기가 있는 분이라 이번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께서는 흔쾌히 수락해 주셨고 나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의 반은 벌써 성공한 것이라고 느꼈을 정도로 마음이 든든하였다. 선생님께서는 『무지개 물고기』, 『리디아의 정원』, 『치킨 마스크』 등의 여러 도서와 협동화 그리기, 동시 쓰기, 자기소개서 만들기, 마스크 만들기 등 도서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하셨다.



독서지도 프로그램 1



독서지도 프로그램 2

도서관 활용 수업인 ‘책 읽어주세요’는 아이들이 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책 읽어 주는 활동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마음버스』 등의 활용도서에 나와 있는 가이드가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서 동화구연에 문외한인 나도 잘 따라 할 수 있었던 것 같았고, 담당자인 내가 신나게 읽으니 아이들이 더욱 집중해 주어서 나도 즐거웠다.

이외에도 도서관 견학에서는 꿈나무정보도서관 소개를 PPT로 간략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책수리마수리’ 애니메이션을 곁들여 관람하게 하여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처음에 지루해하던 아이들도 만화가 나오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도서관 지하에서 운영되었던 책표지로 쇼핑백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였는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담당자분들도 즐거워 해주셨다. 이런 모습을 통해 담당자로서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앞으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해야겠다는 좋은 정보를 얻게 된 것 같다.



책 읽어주세요



도서관 견학 1



도서관 견학 2

두 번의 작가와의 만남은 시작부터 어려움이 조금 있었다. 누구를 초청해야 할지도 고민이 많았고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서 보내준 자료를 참고로 작가님들과 협의해 보았지만 섭외가 어려웠다. 그러던 찰나에 사계절 출판사에 연락을 드렸더니 양선, 김지현 작가님을 연결해 주셨고 작가님들께서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작가님들 선정은 나의 사적인 감정이 다소 포함되었다. 그림책의 그림이 너무 예뻐서 오히려 내가 더 만나보고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쁜 그림들처럼 작가님들도 참 다정하고 따뜻했다. 먼 곳에서 아이들웃음터지역아동센터까지 방문해주셔서 그림책 읽기, 북토크, 체험프로그램까지 진행해주셨다. 아이들은 그림책 작가님을 직접 보는 것이 신기한지 연신 이것저것 물어보았는데, 아이들 한 명 한 명 눈이 마주치며 재잘거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작가님들의 모습에 담당자로서 참 감사했다.



작가와의 만남 1



작가와의 만남 2

마지막으로 지역 공방 스위트로빈과 함께했던 ‘과자집 만들기’와 우리 도서관의 자랑 전시회 운영은 아이들이 관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으면 하는 바람에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구성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보람찼다. 지역의 공방 선생님께서도 프로그램의 좋은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바쁜 와중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주셔서 과자집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다. 아이들은 마치



지역공방프로그램

자신이 헨젤과 그레텔이 된 듯 신이 나서 자신의 작품만들기에 몰두했다. 특히 먹는 것에는 더 마음이 동요하는지 한층 들뜬 모습을 보여 보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었다.

대망의 전시회 운영. 8월 한 달간 독서지도 프로그램과 기존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며 만든 아이들의 작품으로 전시회를 하였다. 지역아동센터 담당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독서지도 강사님을 모시고 아이들의 간담회와 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 사업 보고회를 진행했다.

전시회 기간 동안 동두천의 많은 시민분들이 도서관에 방문해 아이들의 작품을 관람했고 응원해 주셨다. 아이들도 자신의 작품이 도서관 전시공간에 걸려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신기해 했는데 특히 부모님께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며 사진을 찍고 추억을 만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어린이 작품전시 1



어린이 작품전시 2



어린이 작품전시 3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재미있었고 책을 읽으면서 만들기 활동을 하다 보니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전시회 작품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카네이션을 만들 때는 엄마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임\*\***
- 재미있고 많은 책을 알게 되고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시 작품은 활동할 때마다 읽었던 책 내용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만들기 할 때 행복했습니다. **박\*\***
- 전체적으로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무지개 물고기 활동을 할 때 불가사리를 못생기게 그려 속상했습니다. **최\*\***
-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작품 만들기를 할 때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부듯했습니다. **이\*\***
-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 재미있고 만들기가 좋았습니다. 만들기를 할 때는 가족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김\*\***
- 모르는 책이 많았는데 이 시간을 통해 책을 많이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못 만들었다고 말할까 봐 겁이 났는데 잘 만들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안\*\***
- 축구 때문에 프로그램 활동을 많이 못 해서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또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그때는 매일매일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 사서의 소감 한마디

책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담당자로서 또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도움 주신 선생님, 작가님, 출판사, 지역 공방 등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책과 전시회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어 좋았고, 책과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어 보람찼다. 아이들이 앞으로도 도서관과 함께 좋은 기억을 많이 간직했으면 좋겠다.

### 참여기관 담당자의 소감 한마디

어린 시절이 행복해야 어른이 되어도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저는 아이들의 현재 행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아동센터에 흑~ 들어온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과 작가님과의 만남은 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웃음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함께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다시 깨워주고 뇌를 건강하게 해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웃음터 지역아동센터 담당자님**





# 하하 호호 웃음 가득 동화 놀이터에 놀러 오세요

## 신 나 리

송산도서관

16년째 즐거운 도서관쟁이로 지내고 있는 와중에 올해 처음으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서로서의 초심을 다지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어린이들의 소중한 시간을 이야기로 채워 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사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린 친구들이 보여준 미소 때문에 사서 선생님의 마음이 오히려 풍성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여기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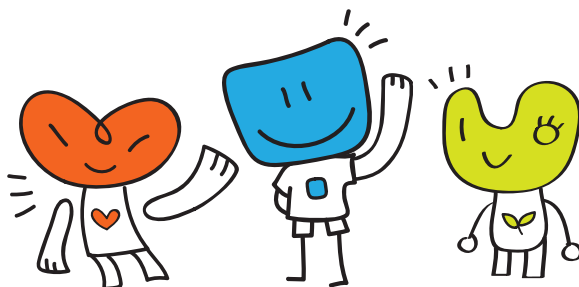
화성푸른지역아동센터

**참 여 인 원**

초등 1~3학년, 10명

**운 영 기 간**

[총 15회] 2023년 4월 25일 ~ 8월 8일,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와의 첫 만남

인구 1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늘고 있는 젊은 도시 화성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는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동·서의 격차가 심하여 동부권역(동탄 신도시 등)에 비하여 서부권역은 교육·문화 인프라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 사서들은 2~3년에 한 번씩 근무지가 바뀌는 와중에 근무지역의 인구와 지리학적 요건을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걸맞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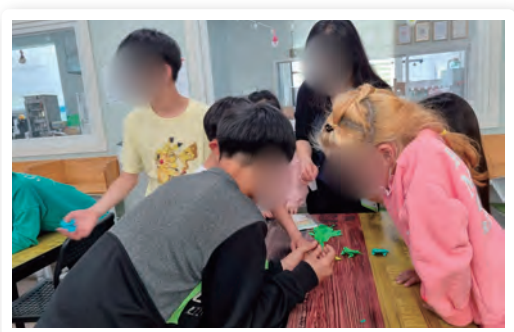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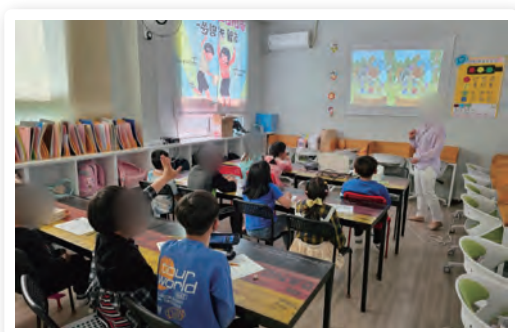
서부권역의 송산도서관에 발령받은 지 5개월, 농촌 지역의 모든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를 나 또한 비켜갈 수는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서는 기획자가 되어 주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스스로의 원칙을 세우고 마음을 다잡으며 연초부터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막상 시작을 해보니 송산도서관이 가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들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다. 예상보다 수요는 많았지만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님을 모시기가 힘들었다.

함께 할 기관은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푸른지역아동센터’였다. 이 센터는 유아층부터 청소년까지 돌봄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열정이 대단한 곳이었다. 업무협약(MOU)을 맺고 함께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아직도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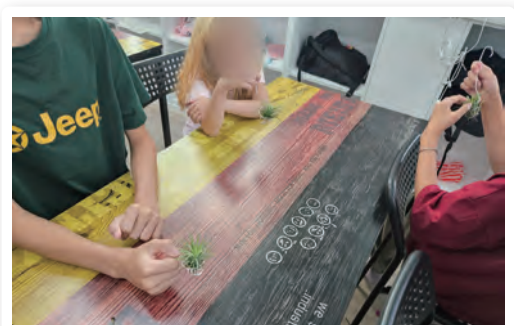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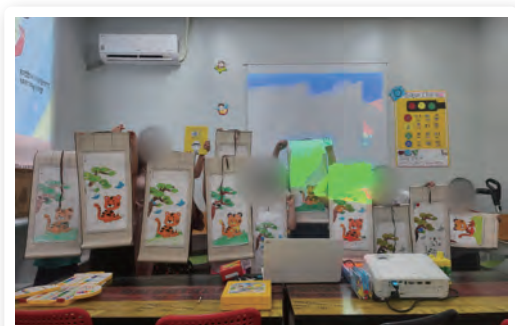
## 동화놀이터의 시작

혼자 독서가 힘든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를 담은 그림책을 함께 읽고, 영역별 독후 활동(글쓰기, 미술, 신체, 전래놀이)을 통해 책과 친해지기’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강사 풀을 구축하였다. 목이 쉬도록 사업의 취지를 몇 번이나 설명한 끝에 드디어 독서프로그램을 함께 할 강사님을 초빙할 수 있었다. 강사님과 전화하고 문자와 E-mail을 통해 부단한 소통을 하면서 10차시의 강의 계획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사업선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문화체험활동 시간을 꾸며주실 작가님도 섭외하면서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 하하호호 웃음 가득

‘동화놀이터’라는 부제가 붙은 프로그램을 강사 선생님과 함께 10번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창밖의 풍경과 절기에 따라 책과 활동을 다르게 기획하면서 진행하였다. 봄에는 아이들과 처음 만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함께 읽고 전래놀이를 신나게 했고, 『개구리와 도롱뇽』을 함께 읽으며 봄을 알려주는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다. 또 종이접기를 해보기도 했으며 5월에는 『나태평과 진지해』를 읽고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름의 문턱에서는 『신비 아이스크림 가게』를 함께 읽으며 시원한 보드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다. 한번은 강사님의 건강 문제로 한 주를 쉬어야 했는데, 매주 화요일 오후 ‘책놀이 선생님’을 목을 빼고 기다리던 아이들이 너무 침울해하는 바람에 강사 선생님께서 큰 감동을 받기도 하셨다.





## 고마워 친구들아

베테랑 사서와 베테랑 독서 강사가 만났어도 처음 시작은 항상 어렵기 마련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학년, 성별, 관심사, 얼굴색(다문화가정 친구들의 비중이 많은 편이다), 독서력이 다양한 친구들이 모인 수업에서 조용하고 편안한 진행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처음에는 “센터 선생님이 들으라고 해서요.”, “이거 들어야만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대서요.”라고 하면서 시큰둥하던 친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몇 차시가 지나자 독서퀴즈를 서로 맞추겠다고 오른손을 번쩍 들고 눈빛이 변하면서 자세를 바로 고치고 활동에 임하는 모습을 금새 볼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 ‘도서관 선생님’으로 불리다가 어느 때부터 ‘사서 선생님’으로 불리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만날 때마다 친구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니 이제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학교에서의 일상까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사서 선생님’이 된 것이다. “애들아, 사서 선생님도 너희들 이름 바로 다 외웠단다!”라고 외치면서 친근감을 보여주자 아이들은 한껏 마음을 열고 다가왔다.

강사 선생님과 10번의 재미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이 끝나고 드디어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시간이 찾아왔다. 처음 계획은 지역아동센터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에 아이들을 초대하여 시설 견학과 함께 강당에서 도서관과 직업인으로서 ‘사서’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논의 끝에 차량 이동에 따른 안전의 문제로 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 점은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매번 조용히 하자고 옆에서 소근 대던 사서 선생님이 노란색 앞치마를 입고 나타나자 “오늘은 뭐 할 거예요?”라며 친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첫 만남의 오리엔테이션에서 도서관과 사서 선생님의 역할을 설명해주고, 덧붙여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과 도서관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강사님과 함께 읽었던 『감정에 이름을 붙여 봐』의 연장선상으로 ‘도북도북’시간에 『마음 버스』를 함께 읽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내가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의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마음버스를 만들어서 친구들과의 공동체 생활에서 가져야 할 마음과 감정에 대해 발표해보았다. 나중에 도서관으로 책을 빌리러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가방도 만들어 보면서 다음에는 꼭 도서관에서 만남을 가져보자고 약속하였다.



## 머리가 하얀 이야기 선생님

사서 선생님과 즐거운 수업에 이어, ‘은빛독서나눔이’ 선생님께서 노란 앞치마를 입고 우리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주러 오셨다, ‘은빛독서나눔이’는 현장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교육을 통해 이야기 활동가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사업이다. 현재 송산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선생님께서 푸른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주셨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 손수 만드신 인형을 들고 오셔서 재미있는 손 인형극과 동화 구연을 해주셨으며, 『금도끼 은도끼』와 『벌거벗은 임금님』을 같이 읽고 멋진 왕관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 동화작가님이 오셨어요

문화체험활동으로 동화작가님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첫 만남 때 책에 관심이 없고 시큰둥했던 친구들도, “와! 이 책을 지은 작가님이 우리 센터에 직접 오신다고?”라고 소리치며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 근무지에서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으로 인연을 맺었던, 『수중 발레리나가 된 수달』, 『나는 엘버트로스다』 등을 지은 조소정 작가님이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다. 작가님의 동화 『흥얼흥얼 노래하는 고슴도치』를 읽고 재미있는 독후활동을 했다. 이어서 작가는 동화를 어떻게 쓰는지, 작가라는 직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친구들의 끝이지 않는 궁금증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전문 독서 강사를 방불케 하는 조소정 작가님의 매끈한 진행에 친구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했고, 재빨리 줄을 서서 책에 사인을 먼저 받으려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8월에는 『우리말을 알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든 나』를 지으시고, 현재 평택 배다리 도서관의 상주작가로 활동 중인 환경지킴이 동화작가 유영진 작가님께서 오셨다. 작가님의 책 『미세 플라스틱 수사대』를 주제로 우리가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방법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독후활동으로 환경정화식물인 '이오난사'를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센터의 고학년 아이들까지 참여하여 북적북적하고 신나는 시간을 가졌다.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행복하고 재미있었어요. 인\*\*(초등1, 남)
- 작가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신기하고 좋았어요. 김\*\*(초등3, 남)
- 친구들과 같이 책을 읽는 게 좋았어요. 추\*\*(초등2, 여)
- 이야기 선생님의 인형극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정\*\*(초등3, 남)
- 다양한 만들기와 종이접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김\*\*(초등1, 여)

### 사서의 소감 한마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주시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문화 인프라가 전무한 화성시 서부권역 주민들의 지식정보문화의 보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독서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15번의 만남 동안 아이들과의 부단한 소통을 통해 정보서비스 수혜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사업의 운영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사서도, 도서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빌려 가는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문화공동체로서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사서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강사의 소감 한마디

‘처음’은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날로 바뀌는 친구들의 기대에 가득찬 눈빛에 힘을 얻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책장을 넘기는 손길을 보면 콧노래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은 뭐해요?”라고 말하며 오늘은 어떤 책과 활동을 하게 될지 기대하며 수업 시간마다 큰 소리로 질문을 해오던 친구들이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사업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에게도 행복한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센터와 사서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친구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다음 만남을 기약하겠습니다.



화성시 송산도서관, 정남도서관 '2023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 선정 - 뉴스와이어 (newswire.co.kr)

화성시 송산·정남도서관, '2023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 선정 - 독서신문 (readersnews.com)



화성시 송산도서관, 정남도서관 '2023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 선정 코리아로컬트리프뉴스 (korealocaltripnews.com)

## 그림책 세상과 소통하기

### 최영환

일가도서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일가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통해 그림책 세상으로 떠나는 16주의 여정을 함께 했는데, 책 읽기를 어려워하던 아이들이 점점 질문도 많아지고, 매주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는 모습을 보며 사서로서 뿌듯함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참여기관명** LH행복꿈터미사강변지역아동센터

**참여인원** 초등 2~5학년 11명

**운영기간** [총 16회] 2023년 4월 8일 ~ 7월 2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이 되어야 해

하남시 일가도서관(이하 일가도서관)은 2021년 8월, ‘하남을 기록합니다. 오늘을 기억합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된 하남시의 첫 번째 공립 작은도서관이었다. 그 당시 하남시는 인구 상승률이 전국 TOP 5위 안에 들 정도였고, 도서관이 위치한 미사강변도시에는 하남시민 40%가 거주하는 한편, 어린이 청소년의 비율이 25%에 이르는 등 상시 이용 인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무척이나 많았던 상황이었다.

공공도서관 예산의 40% 밖에 되지 않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예산 여건상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는 없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많은 고민 끝에 생각한 방법은 바로 공공도서관으로 관종을 변경하는 일이었다. 한정된 시의 예산을 기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도서관법상 일가도서관은 열람석이 부족해 공공도서관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몇 달 후 공공도서관 설립 규정에 열람석 충족 항목을 삭제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러 복잡한 절차 끝에 2022년 12월, 공공도서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도서관도 변화가 필요해

첫 번째 공립 작은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포기하면서까지 공공도서관으로 관종을 변경한 이유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해 살아 숨 쉬는 공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원한 공모사업이 바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이었다.

처음에 지원할 때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경험이 많은 도서관들도 많이 떨어진다는데...’라고 생각하며 걱정도 했지만, 부딪쳐 보지 않으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사업 공고가 나자마자 하남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20개소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접수된 여러 기관 중 다문화와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 LH행복꿈터미사강변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강사는 하남 문인협회에서 추천받았는데, 전문 독서 지도 강사인 이민주 선생님이었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지역적 특색, 수업을 함께 할 아이들의 학년, 성비 구성, 성향과 성격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았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장님과 강사, 사서가 모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선택한 큰 주제는 ‘그림책’이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책을 보면 일단 흥미를 느끼고 열어 볼 수 있는 책, 모든 학년이 봐도 재미있는 책, 다양한 내용과 인물이 담겨있고 뒷이야기를 풍부하게 상상할 수 있는 책을 선정하여 아이들이 책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 어서 와, 책 읽기 수업은 처음이지?

드디어, 수업 첫날인 4월 첫 번째 토요일, 센터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은, “아~ 토요일인데도 수업해요? 놀고 싶은데…”라며 투정 섞인 표정으로 강사와 사서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전년도에 이미 프로그램 계획이 다 짜여 있는데, 갑자기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 이해해 줘 애들아~”라고 말하며 달랬던 기억이 난다.

센터에는 2학년에서 5학년까지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 있다 보니 어느 수준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지 가능하기가 힘들었다. 결국 저학년 아이들이 조금 더 많아서 쉽고 가벼운 내용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책을 좋아하나요? 요즘 읽은 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는데, 스마트폰에 훨씬 더 익숙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16주 동안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감기 걸린 물고기』, 『내 마음이 말할 때』, 『도서관 고양이』, 『어쩌다 슈퍼스타』, 『동물서커스』 등 다양한 그림책을 함께 읽어보았고, 아이들은 숨은그림찾기 하듯 이야기를 찾아내고, 만들어내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첫날의 어색하고 지루해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수업에 집중하고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기도 했다.

아이들의 흥미를 더욱 북돋기 위해 중간중간 그림책과 연관된 보드게임을 하기도 했다. 도깨비와 우리나라 민속신앙을 이야기한 『도깨비 살려』와 『어처구니 이야기』를 읽고 전 세계의 토탐에 관해 이야기해 본 후, 마을과 부족,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는 보드게임인 ‘티키토폴’을 팀을 나누어 진행해 보았다. 이기기 위해 눈치 싸움을 하기도 했지만, 보드게임을 통해 각 신들이 어디쯤 자리 잡고 있을지 상상해보기도 하고, 행복과 안전이라는 우리 모두의 바람을 빌어보기도 했다.



## 그림책 작가를 한번 만나볼까?





이번 사업을 통해 두 분의 그림책 작가님을 모시고 아이들과의 만남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호랭이 꼬랭이 말놀이』를 쓰신 오호선 작가님을 모시고 아이들과 말놀이를 배워보았다. 〈한강물 바닷물〉, 〈자장노래〉를 운율에 맞춰 천천히 노래하며 하고 싶은 말을 반복하거나 바꾸고 싶은 말로 바꿔서 자신의 말놀이를 만들어 보기도 했다. 짧은 옛날이야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듣는 즐거움도 함께 느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수업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준비한 책에 사인을 해주시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두 번째로 만난 작가님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숲속 사진관』과 『숲속 사진관에 온 편지』를 쓰신 이시원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작가님은 처음부터 그림책 작가를 꿈꾸셨던 게 아니었고, 마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스스로 그림책 작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한 주 전에 미리 책을 읽어서인지 작가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아이들이 바로바로 대답해서 작가님이 깜짝 놀라시기도 했고, 아이들이 직접 책에 나오는 동물 역할을 맡아 역할극 놀이를 재미있게 해보았다. 특히 가족이 사진 찍는 모습을 형용사로 표현해 보기도 했는데, 저마다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 사서 선생님, 책 읽어 주세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사업을 하면서 가장 진땀 났던 시간은 ‘도서관 견학’과 ‘책 읽어 주세요’를 직접 진행했던 순간이 아닐까 싶다. 아이들과의 몇 번의 만남 후에 강사님 없이 혼자 진행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기로 했다.

도서관 견학의 경우 도서관을 처음 오는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 소개 영상과 함께 이용 방법을 알려주고, 도서관 예절을 퀴즈로 만들어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책 읽어 주기의 전문가이자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임연빈 하남지회장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마을 도서관에 와 볼래?』와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책을 읽어 주었는데, 반짝반짝한 눈으로 책 읽기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6월과 7월 첫 주 토요일에는, ‘사서 선생님,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을 2회 진행하였다. 아이들과 함께 오호선 작가와의 만남 때 배웠던 말놀이를 하며 어색함을 이겨냈고, 『도서관에 간 여우』를 읽으며 내가 생각하는 도서관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5학년 노\*\* 학생은 책이 너무 좋아서 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책을 읽었고, 도서관에도 자주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서로서 부딪힘을 느꼈다.

또박또박의 책 『인사를 나눠 드립니다』를 읽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달력처럼 넘기는 책은 처음 본다고 어떻게 책을 보지 않고 글을 읽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아 ‘비밀!’이라고 웃으며 대답해 주었다. 인사를 건네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던 경험을 이야기로 나눠보면서 누구에게나 먼저 세상을 밝고 명랑하게 만드는 인사를 하자고 아이들과 약속하기도 했다.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사업을 통해 많은 그림책을 읽고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어서 좋았어요! 김\*\*(초등3, 남)
- 책을 많이 읽어서 힘들긴 했지만, 선생님이 친절해서 좋았어요! 김\*\*(초등2, 남)
- 마지막에 영화를 보러 가서 좋았어요. 이\*\*(초등4, 남)
- 『동물서커스』 책을 읽고 보드게임을 해서 재미있었어요. 도\*\*(초등2, 여)
- 『숲속 사진관』 작가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셔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추억을 남겨 즐거웠어요! 도\*\*(초등2, 여)
- 책을 읽고 역할을 맡아 연극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노\*\*(초등5, 여)

### 사서의 소감 한마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져 종이책을 어색해하는 친구들에게 다양한 그림책을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아이들이 늦잠도 자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해 센터에 들어와서도 자리에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수업이 시작되면 책에 집중하며 이야기에 빠져들고, 환하게 웃어주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애들아! 건강하게 지내고, 내년엔 또 만나자!”

### 강사의 소감 한마디

처음에는 그림책 속의 다양한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책에 집중하고, 책 읽기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장인물과 비교하고 소환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림책의 매력을 제대로 알아가는 친구들,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발표하던 아이들은 자신들의 변화를 알고 있을까요?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 참여기관 담당자의 소감 한마디

센터 아동 중에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동도 있었지만, 토요일에는 놀고 싶어 하고, 책을 읽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도 있어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진행되면서 사서 선생님과 강사님께서 책 읽어 주기를 재미있게 해주셔서 아동들이 금방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독서 후 다양한 활동들이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는데, 수업 초반에는 자기 생각을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반복하여 발표해보며 점점 자신감이 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할을 맡아 연극을 진행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는 무대 앞에 서기까지 더 큰 자신감이 필요했지만 앉은 자리에서 조용히 대사를 읊어보며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진행하며 아동들이 도서관 탐방이나, 영화 관람 등의 외부 활동을 통해 질서 예절을 배우고, 책 읽는 시간이 늘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내년에도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 오늘은 어떤 책으로 놀까?

### 김소정

정남도서관

화성시의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14년 차 사서입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공 지역이지만,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책과 도서관을 통해 꿈을 안고 자신감 있게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여기관명** 정남지역아동센터

**참여인원** 초등 1~2학년, 12명

**운영기간** [총18회] 2023년 5월 11일 ~ 9월 21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우리, 마음껏 읽어보자

화성시 정남면은 중소 제조업체가 산재되어 있는 농공 지역이다.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거주 인구가 노령화되어 있어 아이들이 마땅히 갈 곳이 많지 않은 지역이다. 이 지역의 유일한 교육문화 시설인 정남도서관은 2013년 면사무소가 신축 건물로 이사를 가면서 남긴 건물로, 1987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화성시의 타 지역에 비해 이곳은 도서관을 포함한 교육·문화시설의 환경이 뒤쳐져 있지만 그래도 이곳 지역민의 모든 꿈이 모여야 할 곳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도서관에 아이들이 왜 안 보이지? 작년에 이곳으로 발령을 받은 후부터 도서관에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다. 오래된 건물이어서 오지 않는 것일까? 거주 인구의 노령화로 아이들이 정말 없는 걸까? 그러던 중 협약기관인 정남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상당수의 아이들이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역 내에는 다문화,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많고, 교육기관이 부족하여 아동센터에서의 단체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도서관 방문 경험이 거의 없고, 책 읽기와 학습 능력이 뒤떨어져 보였다.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서관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가장 먼저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의 공모사업인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가 떠올랐다. 도서관의 예산만으로는 소수의 취약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했다. ‘애들아, 우리가 예산이 없지 꿈이 없냐! 책을 안 읽어 본 것이지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공짜로 책 사서 신나게 읽어보자!’ 이렇게 다짐하고 생각하면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가 시작되었다.



## 너의 이름은

도서관에서의 첫 만남 때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이름 맞추기 게임을 준비했다. 그림을 통해 연상되는 글자를 조합하여 아이들의 이름을 맞추는 게임이었다. 예를 들어 그림으로 먹는 김과 초식동물 소, BTS 정국의 사진을 보여주고, 연상되는 글자를 모아 이름 ‘김소정’을 맞추는 게임이었다.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각자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도서관이 떠나가도록 웃었다.

도서관 이용 교육은 아이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퀴즈, 숨은그림찾기, 다른 그림 찾기 등을 활용하였다. 아이들은 도서관 자료 중 점자도서와 다문화 도서를 신기해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도서관에 엄마랑 와도 무료예요?”, “책 빌릴 때 정말 공짜예요?” 라고 묻는 순진한 아이들. 그리고 이때부터 한동안 사서 선생님의 진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아이가 있었지만, “너희가 도서관에 계속 와서 중학생이 되면 알려줄게.” 이렇게 대답해 주고 나는 끝까지 그냥 사서 선생님이로 남기로 했다. 요즘도 등하굣길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여전히 선생님으로만 부른다.



도서관활용수업1



도서관활용수업2



## 차차쌤, 오늘은 뭐하고 놀아요?

독서프로그램 12회를 함께할 강사님은 ‘차차쌤’으로 섭외했다. 나는 너무 경력이 많아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강의 기법이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하려 했고, 열의를 가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강사님을 원하였다. 마침 작년 다른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차차쌤과 함께하기로 했다.

우리는 한 차시당 책 두 권을 활용하기로 했다. 먼저 그림책을 활용하여 독후 활동을 하고, 뒤이어 글밥이 많은 책을 몇 주에 걸쳐 완독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하지만 첫 수업 때 아이들 간의 독서 능력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책 읽기를 흥미로워하는 아이도 분명 있었지만, 상당수가 한글을 모르거나 어려워했다. 자음과 모음조차 정확히 모르는 아이가 있었고,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다음 시간부터는 오지 않겠다는 아이도 있었다.

두 번째 수업부터는 강의 방식을 바꿨고, 매시간 아이들을 관찰하며 계획을 조금씩 수정해나갔다. 아이들은 한글을 어려워하여 스스로 읽기를 싫어했지만, 그림책을 읽어주면 장난을 치다가도 귀를 기울였다. 또한 자신을 표현하거나 관심받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미술 활동시간에 집중을 잘하고 진지하게 수업에 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아이들이 책 읽기와 프로그램에 익숙해질 때까지 짧은 동화구연과 만들기, 초성퀴즈 등을 재미있게 진행하여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을 우선의 목표로 삼았다.

우리는 생각보다 금방 친해졌고, 목요일의 만남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도착하면 “차차쌤은 언제 와요?”라고 아이들이 물었고, 내가 뒤늦게 도착하는 날에는 “왜 늦게 왔어요?”라고 물으며, 목요일의 만남이 서로 선약이 되어 있는 사이가 되었다.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말을 걸고 따르면서, 책 읽기와 독후활동들도 공부가 아닌 즐거운 놀이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목요일 만남을 즐거운 시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아이들은 책 읽기 태도도 바뀌었다. 우리는 짧은 그림책을 페이지마다, 혹은 인물이 바뀔 때마다 순서를 정해 번갈아 읽었다. 내용이 긴 책은 발췌하여 읽거나 중요 장면을 편집하여 대본처럼 읽기도 했다. 아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취감을 느끼는지,



서툴지만 서로 읽고 싶어 하는 경쟁심리가 생기기도 했다.

이제 차차썸을 만나면 “오늘은 뭐 하고 놀아요?”, “무슨 책 읽을 거예요?”라며 책 읽기 프로그램의 마니아가 된 적극적인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다.



강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1



강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2



강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3



## 작가님, 사인해주세요.

‘차차썸’이 운영한 독서프로그램 중 도서 『좋아, 싫어 대신 뭐라고 말하지?』로 수업할 때, 해당 책의 저자이신 송현지 작가님이 재능기부로 방문해 주신 일이 있어서 감사했다. 아이들은 작가님을 처음 본다면 사인받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다. 아이들이 책 읽기 수업에 익숙하지 않았던 초반이어서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었지만, 책의 저자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 신기해 했다. 그 후로 종종 작가님을 또 언제 만날 수 있느냐며 나에게 조르곤 했다.

8월, 드디어 공식적인 ‘작가와의 만남’ 시간이 다가왔다. 『흥얼흥얼 노래하는 고슴도치』의 조소정 작가님과 행복을 찾아 떠나는 고슴도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꽤 긴 내용의 동화라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 고민이 되었다.

나는 아이들 모두가 책의 내용을 알고 작가님을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패널시어터를 제작하기로 했다. 부족한 미술 실력으로 고슴도치, 박새, 두더지 등 주요 인물들을 만들었다. 책을 여러 번 읽고 주요 장면들을 간추려 구연동화로 연습했다. 다행히 작가님과 만나기로 한 날의 일주일 전에 ‘책 읽어주세요’ 수업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시간을 활용했다. 계획하였던 ‘책 읽어주세요’ 수업을 마친 뒤, 조소정 작가님의 『흥얼흥얼 노래하는 고슴도치』를 패널시어터로 들려주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작가님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조소정 작가님은 책을 쓰게 된 계기로 고슴도치를 키웠던 이야기를 해주셨고, 실제 성장 과정의 사진들을 보여주셨다. 또한 키우고 있는 반려견의 성장 과정도 사진으로 보여주어 아이들에게 인기 폭발이었다. 작가님은 아이들의 발표와 그림을 칭찬해 주셨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인도 해주셨다.

9월에는 『미세플라스틱 수사대』의 유영진 작가님을 만났다. 유영진 작가님과 는 책의 내용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한 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다. 아이들이 환경 이야기를 지루해하거나 어려워할까 걱정이 되었는데, 반전이 있었다. 그동안 말썽을 많이 일으켰던 우리 ‘개구쟁이 삼총사’가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질문도 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말하는 아이들이 너무 대견했다. 독후활동으로 ‘이오난사 화분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이 기대하던 작가님과 의 사인회도 열었다.

아이들에게 ‘작가님’은 큰 의미였다. “작가 선생님 또 만나고 싶어요.”, “이 책도 사인받으면 안돼요?”, “집에 있는 책 다시 가져올 테니 사인받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마도 이 책을 만든 작가님을 실제로 만났다는 특별한 기분과 내 이름이 들어간 사인을 받았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작가와 의 만남1



작가와 의 만남2



## 오늘의 주인공은 나

수업 초반에 『좋아, 싫어 대신 뭐라고 말하지?』를 읽고, 『오늘의 나』를 표현하는 감정 카드만들기를 할 때였다. 긍정적인 감정의 카드를 고른 아이들도 있었지만, 상당수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표현했다. 아이들이 선택한 카드는 ‘오늘의 나’, ‘넘어져서 아픈’, ‘누나가 때릴까 봐 걱정된’, ‘손이 아파서 슬픈’, ‘혼날까 봐 무서운’ 등의 연약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많았다. 불안하고 연약한 마음의 아이들은 자주 빠치고, 울고, 고자질하며 싸우기도 했다.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할 때, 온통 검정색으로 만 칠하는 아이도 있었고, “OO아 자리로 가자.”라며 말하며 안아서 의자에 앉히자, 계속 안아 달라거나 자기 옆에만 있어 달라는 남자아이도 있었다. 아이들은 물리적인 방법과 선생님의 대답으로 자신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업을 거듭할수록 아이들은 스스로가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주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하기 시작했다. 책에 대한 감상이나 공감을

스스럼없이 말하고, 내내 활기차고 신이 나 있었다.

『강아지 복실이』를 읽고 ‘받고 싶은 생일선물 카드만들기’를 할 때는 진짜 선물도 아닌데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해했다. 『다정한 말, 단단한 말』을 읽고 ‘감정 스티커 만들기’를 할 때는 모두가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했다. 저마다 ‘사랑해’, ‘상쾌해’, ‘부드럽해’ 등 행복한 표현을 선택하고 발표하였다.

아이들의 실제 마음이 어땠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책과 함께 한 그 순간만큼은 즐거웠기에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어졌으리라 생각해본다. 첫 시간에 공부하기 싫다며 책을 질색하던 아이도 이제는 이름표를 붙여 나눠준 자신의 책을 소중히 한다. 검정색으로 만 색칠하던 아이는 이제 파란색과 갈색으로도 칠한다. 책을 한 권 읽고 활동 결과물이 생길 때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진 것 같다. 책은 아이들에게 행복한 주인공이 되는 효과를 주었다.



### 선생님 보고 싶어서 도서관에 올거예요.

아이들에게 ‘책 읽어 주세요’수업을 할 때는 도서관을 활기찬 곳으로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다. 도서관을 엉망으로 만들며 놀아서 더욱 신이 나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수박 수영장』을 읽고 수박화채 만들기를 했고, 『팔빙수의 전설』을 읽고 팔빙수 만들기를 했다. 꼬마 요리사들은 책상과 바닥을 어지럽히면서도 “도서관이 너무 재미있어요.”, “센터장님한테 말해서 매일매일 오면 안 돼요?”라고 말하며 나를 흐뭇하게 하였다.

매주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다른 업무들을 쫓기듯이 처리하고 수업에 대해 고민했던 힘든 날들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반응과 떠들썩한 웃음소리는 나에게 몇 배나 더 큰 보상이 되었다.

마지막 수업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이들은 나에게 매달려, “우리 수업 몇 번 남았어요?”, “이제 선생님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 선생님 보러 도서관에 혼자 올 거예요.” 등등 귀엽게 서운함을 내비쳤다.

어느덧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이 종료되었고, 공식적으로 매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서운하기도 하다. 내년에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연속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에 조금은 안도하면서, 나는 아이들을 하갯길에 도서관으로 유인할 계획을 세운다.



사서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1



사서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2



사서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3



사서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4



사서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5



사서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6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책을 읽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매일 읽을 거예요. **신\*\*(초등1, 남)**
- 도서관은 책도 읽고, 만들기도 해서 너무 즐거운 곳이에요. **송\*\*(초등1, 남)**
- 선생님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도서관에 올 거예요. **이\*\*(초등1, 여)**
-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 것도 아쉬운데 끝나서 너무 아쉬워요. **김\*\*(초등2, 여)**
- 선생님이 주신 책들 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초등2, 여)**
- 도서관, 작가님, 사서 선생님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전\*\*(초등2,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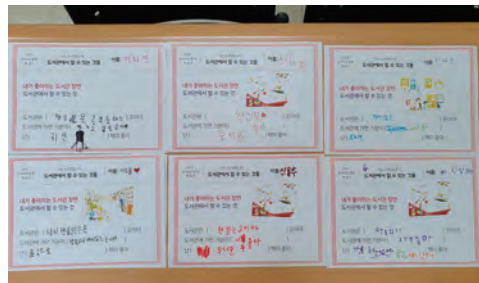
### 강사의 소감 한마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아이들에게 모든 도서가 선물처럼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책 읽기로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책을 또다시 펼쳐보며 함께 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응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책은 늘 아이들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선정하고, 아이들이 책과 더 깊게 친해질 수 있도록 독후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함께 책 읽기를 할수록 아이들이 책에 대한 관심을 더 보이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함께 읽은 책을 학교 도서관에서도 보았다며 신나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외된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이 책과 친해지고 행복한 독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서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 참여기관 담당자의 소감 한마디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는 아직 한글을 잘 알지 못하는 아동이 몇 명 있어서 책 읽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수준을 배려하여 선생님이 읽어주시기도 하고 눈높이에 맞춘 독후활동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하였습니다. 특히 작가와의 만남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영진 작가님의 『미세플라스틱 수사대』라는 책에 대해 흥미로워하며 환경 위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만들거나 활동지 등 자신의 것을 자랑하며 신이 나 있었고, 도서관에 대해 말하며 대화의 주제가 풍부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친근함을 알려주고, 글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처음 책 읽기 수업을 했을 때와 수업이 끝난 지금의 아이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들고 와서 아무런 감흥 없이 사물함에 던져두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 책들이 가져다준 즐거움과 호기심으로 책을 소중히 다루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말을 했을 때, 아이들 모두가 아쉬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모든 아이들이 도서관 수업을 또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다음을 기약하며 달래주었습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 강사 선생님, 그리고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에 감사드립니다.









# 읽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유 소 희

청주가로수도서관

제가 근무하는 가로수도서관은 초등학교, 중학교, 아파트들에 둘러싸여 있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모집은 여전히 힘듭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책이 아닌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 방문합니다. 간혹 학생들이 책을 한 권이라도 빌려 가면 기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청소년들이 책을 더 가까이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를 신청하게 되었고, 3개월 동안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참여기관명

청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느티나무

### 참 여 인 원

14세~19세 청소년 10명

### 운 영 기 간

[총 11회] 2023년 5월 8일 ~ 7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학교 밖 청소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 쉼터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가정 및 사회적 요인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이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학대를 받는 아동들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등을 통하여, 마음 치유를 목적으로 겁 없이 공모사업에 도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작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다. 법원 위탁 청소년, 소위 노는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쉼터를 검색했을 때 법원 위탁 청소년들을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차별적 편견이라고 적혀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고 선도를 통하여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프로그램을 시작되었을 때, 그래도 쉼터 내에서 규율과 규칙이 있어서 수업 진행은 할 수 있었지만, 분위기는 결코 원활하지는 않았다. 쉼터라는 시설 특성상 거주 시설이다 보니 프로그램실이 따로 있지 않아 거실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수업 분위기를 잡기가 어려웠다. 또 수업 장소가 자신들이 거주하는 방과 가까이 있다 보니 수업 초반에는 방에서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도서관 방문 프로그램을 할 때는 외부사회로 도망칠 수도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화장실 앞에서 망을 보는 상황도 펼쳐졌다.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긴장감 속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시가 지나가는 동안 아이들은 유일한 휴식 시간인 주말에도 책 읽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주는 성의를 보여주었다. 쉼터에서는 구역별 청소, 빨래, 기상, 취침 등 엄격한 규율이 있다. 이런 규칙 속에서 주말은 그들에게 개별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이 주어지는 날인데도 그 시간에 책을 읽었다는 것이다. 그림책 읽기나 만들기처럼 활동적이지도 않은 정적인 책 읽기를 11번이나 했으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22시간 동안 독서활동 하나만으로 삶이 극적으로 바뀔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그 시간에 앉아서 빠지지 않고 꾸준히 책을 읽었다는 그 경험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읽은 것 같은 착각’ 청소년 고전 읽기

많은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너무나 익숙해서 읽은 것 같이 착각하는 책들이 있다. 예를 들면 『총균쇠』, 『사피엔스』, 『이기적 유전자』, 『코스모스』, 『정의란 무엇인가』 등 읽어야 할 책 목록, 필독서 목록에 있는 책들이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들은 어려워서 한 번 읽어 보려는 생각도 없이 요약본, 줄거리만 읽기 십상이다. 고전도 그렇다. 그중에서 청소년들의 눈높이 대비 필수 도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문학과 교육계에서 중요한 책으로 언급을 많이 하고있는 책일수록 줄거리들만 알게 되어 읽어 보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우리 도서관에서 시도한 것은 너무나 유명해서 정작 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책을 골라서 ‘그 책의 원서를 읽었다!’라는 만족감과 완독했다는 포만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었다.



## 어서 와~ 도서관은 처음이지?

개인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은 열심히 준비했다. 정성을 쏟으면 도서관에 관심을 더 갖게 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다. 그래서 도서관 활용 수업도 더더욱 신경을 썼다. 2시간을 사서가 직접 수업을 꾸려야 하니 당연히 준비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해야 도서관을 재미있게 소개해줄지 고민을 했다.

선물 공세 전략으로 나갔다. 사업에서 제공되는 책을 웰컴키트로 꾸려서 양손을 무겁게 해주었다. 웰컴키트와 맛있는 다과를 제공해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 OT를 진행했고, 첫인사를 나눴다. 그다음은 도서관 라운딩을 하면서 도서관 견학을 하고, 다음 수업(퀴즈)을 준비하는 동안 도서관 관련 그림책을 읽어 볼 시간을 주었다.

퀴즈는 도서관 라운딩을 하며 설명해 줬던 것(도서관 이용수칙)을 복습하는 내용으로 게이미피케이션\* 플랫폼을 활용해 만들었다. 각자의 스마트폰을 켜서 QR코드로 쉽게 접속하고, 닉네임을 적어 퀴즈프로그램에 들어오게 했다. 실시간으로 점수가 화면에 뜨게 설정했는데, 프로그램 구성 중에 퀴즈를 풀었던 시간이 가장 집중력이 높았다. 퀴즈가 끝난 뒤엔 1등부터 3등까지 나누어 상품을 주었다. 퀴즈 문제 중에 도서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있었는데 보기 중에 영화관람을 넣었다. 이것과 연계해서 ‘드림걸즈’라는 영화를 보고 수업을 마쳤다.

\* 게이미피케이션: 게임이 아닌 것을 게임처럼 생각하고, 재미있는 요소들을 부여하여 게임처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가로수도서관 탐방



가로수도서관 웰컴키트



도서관 이용교육-퀴즈풀기



도서관 이용교육-영화관람



## 어느 날, 비극이 나에게 위로를 건넸다

강사님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책을 추천하셨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는 다양한 비극적인 상황들이 있다. 엄마, 아빠, 남편, 아내와의 갈등이 있는데, 혹여나 아이들의 과거 상처를 상기시키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그러한 상처들의 기억이 커져서 책 읽기가 기만적 선민의식이 깔린 행동으로 비치진 않을까 염려되었다.

불안감 속에서 첫 번째 시간이 되었다. 강사님은, “왜 비극을 읽을까요?”라는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나도 궁금했다. 왜 비극을 읽을까? 다른 고전 소설들도 많지 않은가? 『데미안』, 『노인과 바다』와 같은 다른 문학들도 많은데 왜 하필 비극을 그린 이야기를 읽을까? “바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서예요. 책의 인물에게 자신을 투사함으로써 감정을 이입하고 이야기에 정서적으로 참여해 카타르시스를 간접 체험할 수 있어요”라고 했다. 즉 비극적인 상황을 몰입하면서 마음속 쌓여 있던 답답함을 내보내서 감정적 정확과 해방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어려운 이야기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16세기 판 막장 드라마, 통속극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함께 읽기 시작하였다.



## 모든 감각을 일깨워주는 오감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전 또 다른 걱정은 아이들이 절대 책을 읽어 올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분량이 적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림책도 아니어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낭독하며 읽을 수 있는 셰익스피어의 책은 책에 익숙지 않거나 습관이 들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이었다. 원작이 연극 대본이니 미리 읽어 오지 않아도 배역을 나눠 프로그램 시간에 다 같이 읽을 수 있었다. 또 동시에 청독도 되었다. 다른 사람이 읽는 글을 따라가며 독자가 아닌 청자의 입장에서 들을 수도 있었다. 또 자신의 대사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동시에 눈으로 읽으며, 상황에 몰입하면서 모두 함께 읽을 수 있었다.

오감 독서의 절정은 문화탐방으로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를 연극으로 직접 관람한 것이다. 상상만 하던 책의 내용이 연극으로 공연되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눈앞에 펼쳐졌다. 오감 독서는 배우의 감정을 공유하며 감정적 경험을 체험하면서 책과 문학, 그리고 예술의 매력을 알게 해주는 독서 방법이었다.



가로수도서관\_사진5\_4대 비극 읽기(1)



가로수도서관\_사진6\_햄릿 배역 정하기



가로수도서관\_사진7\_문화탐방 오셀로 연극관람



가로수도서관\_사진8\_문화탐방 오셀로 연극관람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처음엔 참여하기 싫었는데 수업 참여를 빠지지 않고 한 내가 멋있게 생각된다. 곽\*\*(19세, 여)
- 셰익스피어를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김\*\*(18세, 여)
- 오랜만에 책을 읽게 되어 좋았다. 박\*\*(19세, 여)
- 연극으로 본 것을 책으로 읽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이\*\*(18세, 여)

## 사서의 소감 한마디

참여자의 소감 한마디 중 가장 기억 남는 말이 있다.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라는 말이다. 한 문장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시간과 성과가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사례에도 밝혔듯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아이들에게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노력과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어준 것 같아 기뻐다. 삶에서 사소한 것부터 도전하고 노력하면 자연스레 꿈이 생기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열심히 읽어주고, 기획한 대로 잘 따라와 주어서 참여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강사의 소감 한마디

‘모두의 격찬을 받지만, 누구도 읽지 않는 책’

『툼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고전’이다. 고전의 정의를 이처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마크 트웨인의 고전에 대한 정의와 부합하는 책이 있다. 바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다.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작품이다. 심지어 어느 정도의 줄거리와 명대사까지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들을 직접 읽어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이번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에서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함께 읽어보기로 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멸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문학작품은 셰익스피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이 생길 만큼 위대한 작품일까? 그 작품들을 직접 읽어보며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읽기이다. 혼자 읽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매 차시마다 낭독의 형태로 읽기를 진행했다. 희곡의 맛을 살려 역할을 맡아 읽기도 하고, 셰익스피어의 시적 언어의 효과를 느끼며 읽기도 했다. 명장면을 찾아가며 읽기도 하며 완독했을 때의 기쁨은 컸다. 또 문화탐방으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오셀로> 연극을 관람한 것 또한 이번 프로그램과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작품을 연극으로 관람하고 나니 원작에 대한 몰입뿐만 아니라 이해도 높았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만이 줄 수 있는 인간 내면의 모습을 각 등장인물을 통해 파악해보고, 그것이 어떻게 비극적으로 치달게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자연스레 ‘나는 등장인물의 누구와 닮아있는지’ 질문을 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도 되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각자의 삶을 연기 하고 있다고. 그런 삶이 비극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삶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갈등과 고난을 요소요소에 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읽어 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통해 힘들 때 나의 삶에 위로 받고 치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래 본다.

비극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위하여!

# 「배우니까 좋다」

##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 고장 금산의 역사

### 한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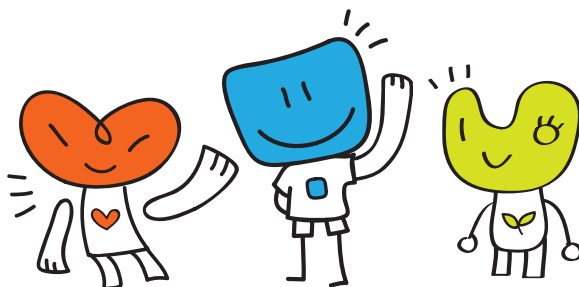
금산기적의도서관

올해는 저에게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금산에서 사서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금산기적의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역사’라는 하나의 주제로 어린이들과 듣고, 만지고, 익히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감으로 배우는 수업 방식으로 아이들의 딱딱한 반응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따뜻해지면서 보람과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기관명** 미라클지역아동센터

**참여인원** 초등 1~6학년, 13명

**운영기간** [총17회] 2023년 5월 12일 ~ 9월 14일, 매주 금요일 오후 16~18시





## 어떤 주제로 어떻게 운영을 해볼까?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사업을 처음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의 주제와 방향성을 기획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였다. 특히 어린이 전용 도서관에서 처음 일하게 되면서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금산에 있는 칠백의총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문득 ‘임진왜란’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고 연이어 이순신 장군과 의병장 조헌 대사라는 두 인물을 떠올리게 되었다. 새삼스레 우리 고장에도 임진왜란과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역사’라는 큰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는 유구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고 특히 이순신 장군과 연계한 우리 고장에서 겪은 임진왜란에 대하여 어린이들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았다.

〈독서 ▷ 생각 나누기 ▷ 그리기/만들기 체험 ▷ 역사 주제로 작가 강연 ▷ 역사 탐방〉

막상 이렇게 주제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나니, 가장 어려운 것이 함께 진행할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알면서 특히 우리 고장의 임진왜란에 대해 잘 아는 역사 전문가를 찾기로 쉽지 않았다. 역사라는 다소 딱딱한 주제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하기에 조건에 맞는 강사를 섭외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다행히 금산군 강사 인력풀 누리집을 통해 성인을 대상으로 금산의 역사에 대해 수업을 진행 경험이 많은 강사님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하여 한연숙 강사님과 인연이 되었고, 함께 역사 관련 도서를 선정하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 독서활동 ‘읽으니까 좋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 중 하나는 독서 콘텐츠(또북또북)를 두 권이나 보내준다는 점이었다. 그것도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게 커다란 스프링 북으로 제작된 점도 좋았다. 특히 키다리 출판사에서 나온 『나의 초록 스웨터』는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 좋은 따뜻한 내용이었다.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와 한 학년 올라갈 때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면서 웃음꽃 피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과 함께하며 독서 활동량이 점차 많아지면서 본인들이 읽었던 책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낀점을 정리하는 습관도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나만의 독서활동 북(book)을 만들게 하고 이를 활용하여 앞으로 읽은 책을 차곡차곡 적립하면서 꿈도 키울 수 있기를 응원하였다.



또박또박 활용 독서 활동



나만의 독서 활동 북(book) 만들기

8월, ‘책 읽어 주세요’를 진행하기 위해 지역아동 센터에 가는 날이었다. 그날따라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일기예보를 확인해보니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원래는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독서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득 어떤 책 한 권이 떠올라 행복이란 주제로 급하게 변경하게 되었다.

천개의바람 출판사에서 나온 『높은 곳으로 달려』라는 책인데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에서 살아남은 약 600명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아이들에게 지금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한 아이가 행복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왜 행복하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 아이는 “그냥요”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 대답이 정답인 것 같다고 했다. 우리가 현재 지진,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도서관에 견학을 온 아이들과 청구기호 출력 표를 가지고 책을 찾는 연습을 하였다.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청구기호로 책을 찾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호기심을 보이며 아이들은 설명을 집중해서 듣고 금방 익혀 원하는 책을 더듬더듬 찾아내었다. 그리고 학년별로 특정 도서 청구기호 출력표를 나눠주고 빨리 찾는 사람에게 도서관 기념품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하였다.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아이들은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독서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했다. 그래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읽은 책에서 소소한 문제를 내주고 맞히는 사람에게 간식을 주는 것이었다. 두꺼운 책은 일정 페이지까지 범위를 정해주고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인데 역시 아이들은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 집중도가 높았다.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읽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고, 모두가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난이도를 쉽게하여 즐거운 독서활동을 유도해 보았다.



사서와 함께 독서 활동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간식까지도 챙겨주면서 독서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사서와 함께 책 찾기



열심히 독서하는 아이들



## 체험 활동 ‘만드니까 좋다’

우리나라 역사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자칫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억에도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기 활동과 병행하여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만들기 활동을 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임진왜란’에 대한 것이었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친숙해하는 거북선 만들기를 하였고, 우리 고장의 임진왜란 관련 역사를 알기 위해 ‘금산의 임진왜란 지도’를 함께 만들면서 조상들의 절개와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우리 고장에 있는 칠백의총을 수없이 많이 가봤지만 그곳이 임진왜란과 어떤 관련 있는 줄 몰랐다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곳에 있는 커다란 무덤이 우리 고장을 지키다가 순절한 700명의 의병을 모신 곳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는 아이들도 많았다. 임진왜란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우리 고장의 역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칠백의총 견학과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거북선 만들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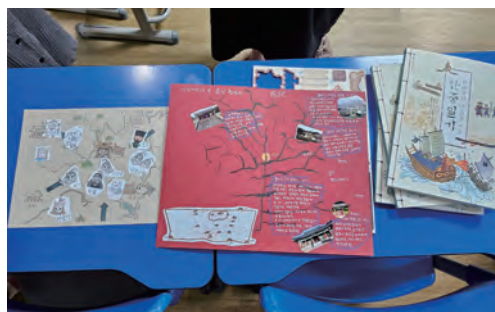


거북선 만들기 2





금산의 임진왜란 지도 만들기 1



금산의 임진왜란 지도 만들기 2



## 작가 강연 '만나니까 좋다'

권오준 작가님을 초청하여 저서인 『새내기왕 세종』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을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A4 한 장과 볼펜을 나눠주셨는데, 아이들이 이걸로 무엇을 할지 많이 궁금해하면서 강의를 들었다. 작가님은 세종대왕과 관련된 퀴즈를 내셨는데 맞혔을 때마다 각자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하였고, 가장 많이 맞힌 친구에게는 작가님이 준비하신 친필 사인이 들어간 선물을 주신다고 했다. 그러자 아이들의 눈에서 빛이 나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자세로 변해 있었다.



권오준 작가 강연 1



권오준 작가 강연 2

장선희 작가님이 '어처구니'라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해주셨다. 나도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정확한 뜻은 모르고 있었는데, 어처구니는 궁궐 같은 처마에 있는 흠으로 만든 조각물인데 보통 화재 같은 악재를 막기 위해 설치했다고 한다. 아이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일 것 같은데 재미있는 옛이야기처럼 집중해서 들어 주었다. 그리고 자신만의 어처구니를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보았다.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스티커도 활용하고 직접 그리기도 하면서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다.





장선희 작가 강연 1



장선희 작가 강연 2



## 역사 탐방 '나오니까 좋다'

아이들과 칠백의총 견학을 가기 전에 사전에 기념관에 문화해설사 설명을 신청하였다. 견학 가는 날에 다행히도 날씨가 아주 맑았고 소풍 가는 기분이었다.

우리를 위해 기념관 직원이 4D로 제작된 칠백의사 전투 장면도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 3D 안경을 끼고 관람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의자가 움직이고 바람이 불 때마다 아이들은 실감 나는 영상에 아주 즐거워했다. 그리고 문화해설사가 기념관을 동행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친절하게 설명도 잘해주셔서 더욱 만족스러운 견학이 되었다.



칠백의총 견학 1



칠백의총 견학 2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수업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많이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초등2, 남)
- 작가님들을 만나서 신기하고 수업도 재미있었습니다. 박\*\*(초등6, 여)
- 예전에는 역사 수업을 싫어했는데 이제는 조금 재미있어요. 최\*\*(초등4, 여)
- 도서관에서 찾고 싶은 책을 이제는 혼자서 찾을 수 있어서 좋아요. 김\*\*(초등3, 남)
- 책을 많이 선물 받아서 좋았어요. 전\*\*(초등4, 남)
- 만들기 수업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최\*\*(초등3, 여)
- 맛있는 간식을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박\*\*(초등3, 여)

### 사서의 소감 한마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게 어제 같았는데 벌써 마무리를 짓는 단계가 되니 아쉬운 마음이다. 수업 때에는 사진 찍기에 바빠서 놓쳤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운영사례를 작성하기 위해 차근차근 사진들을 보면서 기억을 되짚어보니 아이들과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다. 프로그램 마지막 수업 시간에 미라클지역아동센터장님이 올해 최고의 프로그램을 선물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주셨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주신 양분으로 콩나물시루처럼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나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 강사의 소감 한마디

우리 고장 금산군은 수려한 산과 비단을 풀어놓은 것 같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봉우리와 강의 여울마다 역사와 민속이 아름답게 스며있어 ‘비단고을’이라 불립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역사적 상상력을 키우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역사에 숨겨져 있는 가치와 그것을 지켜내고자 노력했던 조상들의 용기를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신념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금산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지역을 더욱 사랑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키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책을 전보다 좋아하고 역사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홍보 자료



지역신문 홍보 자료 (칠백의총 견학)



도서관 누리집 홍보 자료 (권오준 작가 강연)

# 우리의 이야기 나누며 나의 꿈을 키우며

## 김승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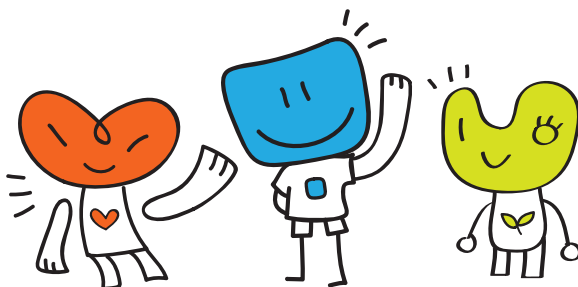
서산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공감하고, 이야기 나누며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통해 도서관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으로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게 해주어 기쁘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참여기관명** 화목한지역아동센터

**참 여 인 원** 초등 1~5학년, 10명

**운 영 기 간** [총 15회] 2023년 4월 13일 ~ 7월 19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늘 함께하는 우리 도서관

서산어린이도서관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기관은 복합시설로 서산문화복지센터 안에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해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 등 3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무엇보다 매년 공모 사업과 독서 교실 프로그램, 견학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 등 여러 활동 및 체험을 통해 도서관을 찾는 어린이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올해 선정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담당자로서 부담 아닌 부담도 있었지만,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 정말 기쁘고, 무엇인지 모를 사명감도 생기게 되었다. 함께 한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 도서관은 오늘도 많은 이용자가 독서 나들이를 오고 있다.



## 도서관 어색하지만 때로는 편안한 곳

처음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업무협의를 하면서 어린이들의 이름과 성별, 학년만 알고 직접 만나보지 못한 상태였다. 첫 번째 만남은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어색했지만 웃음으로 맞이했다. 노란 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었고 어린이들을 향해 뛰어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도서관 방문을 격하게 환영하였다. 무척이나 어색했지만 그래도 나름 눈웃음으로 어린이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어린이도서관 방문이 처음이었던 어린이들은 도서관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복합시설로 이루어진 우리 기관을 자연스럽게 견학하게 되었다.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이 함께 한 곳이라 구경거리가 많은 편이다.



어린이도서관 견학



체험형 동화구연



빅북전시

어색함도 잠시 사진도 찍고, 책도 보고, 그리고 우리 도서관의 자랑이자 무려 10여 년이 넘게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지금도 토요일마다 계속 운영되고 있는 체험형 동화구연 활동에 참여해 보았다. 대형 스크린에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는 화면을 보며 신기하고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웃음이

절로 나왔다. 오프닝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었다. 때마침 '제59회 도서관 주간 행사'로 도서관 내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빅 북이 전시되어 웅기증기 앉아 구경도 하였다. 도서관이라는 어색한 공간이지만 즐겁고 유쾌한 활동과 때론 편안하고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모든 체험활동을 마치고 다음을 기약하며 첫 만남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 마음을 나누는 강사 선생님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선정 결과를 보고 기뻐서 바로 강사님에게 연락했다. 경력도 경력이지만 우선 친구들의 마음을 나누는 모습에 나의 원픽 강사님이었다. 준비된 자만이 강사를 할 수 있다? 강사님과 공모 사업 이야기를 해온 지 몇 달 전 선정 결과를 듣고 함께할 이야기와 그림책, 그리고 독후활동까지 생각했다고 하셨다. 프로그램 계획도 순조롭게 나왔고 스케줄 또한 잘 맞게 짜였다. 자칫하면 일정에 따라 강사님들은 허무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프로그램과 독후활동에 적합한 도서도 직접 선정하고 장단점도 이야기 나눴다. 무엇보다 강사님은 현장에 더 강했고 우리 친구들도 점점 빠져들게 되었다. 10회기 동안 탄탄하게 구성된 계획서만 봐도 든든했다. 선정된 도서를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냥 동화구연이 아니고 책을 같이 읽어 가며 질문과 또 다른 책 속의 이야기를 상상해 나가며 활동했다. 그림책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올 줄이야』를 읽고 이후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고 압화 책갈피를 만들어 보았다. 제일 인기가 좋았던 그림책 『열두 달 나무아이』는 다 같이 한 페이지씩 읽고 자신의 탄생 나무 요정이 되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또 신기한 곤충들의 대화 『홀라 홀라 추추추』는 먹이사슬 보드게임을 통해 학년은 다르지만 양보해 가면서 서로 이마를 맞대고 흥미로운 두뇌 싸움도 하였다. 독후활동은 정말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재미있었다. 신기하게도 첫 시간부터 술술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시간이 금방 흘러갔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발표 시간이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강사님은 10번의 만남 동안 마음을 나누어 주었고, 그 마음이 친구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자신만의 꿈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



압화 책갈피



열두 달 나무 아이



먹이사슬 보드게임



우리 도서관은 내년까지 계속되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기회가 더 나은 사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담당자로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참여기관과의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해 모두에게 충족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바람직한 독서 습관 형성까지 도울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 신비롭고 재미난 작가님과 모래로 스르륵 동화 작가님

남극은 멀고도 먼 곳.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친구들과 함께 만난 작가님은 남극을 다녀온 최초의 동화작가인 전현정 선생님이였다. 철새와 생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작가님은 펭귄을 직접 보고 온 이야기와 남극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극이라니 정말 궁금한 것이 많았고 사진과 영상을 보며 “우와~”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신기하고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강의가 끝나고 생각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자 새로운 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마무리 시간엔 직접 동화책에 친필 사인 해주셔서 친구들이 무척 좋아했다.

두 번째 작가님은 직접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이범재 작가였다. 샌드 아티스트로 활동도 하고 있어 정말 뜻깊은 공연까지 준비해 오셨다. 『노스애르사애』그림책을 통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다. 작가님은 또 다른 그림책 『꾸고』의 내용을 샌드아트 공연으로 표현해 주었다. 우리 친구들의 눈에서 초롱초롱 빛이 나왔고 작가님의 손끝에서도 빛이 나왔다. 우리 친구들에게 따뜻하고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 작가님의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꿈과 희망을 나누는 이 시간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길 바랐다.



전현정 작가 - 남극 이야기



이범재 작가 - 샌드아트 공연



## 자원봉사 강사님 고맙습니다.

노란 앞치마를 매고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시작된 활동. 동화구연 강사님께서 자원봉사로 오셔서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 주셨다. 현재 어린이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 강사님이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특기인 강사님의 목소리가 지역아동센터 가득 울려 퍼졌다. ‘또북또북’을 통해 색다른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가지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참여한 친구들이 직접 나와서 동화구연도 해보고 책과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강사님의 재치 있는 어휘가 더 흥미를 유발시켰다.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도 ‘또북또북’을 보며 직접 동화구연에 참여 해 보고 싶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연습해서 친구들과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다고도 하셨다.



책읽어주세요-자원봉사



책읽어주세요-마음버스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매주 강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독서 수업이 재미있었다. 책을 같이 읽을 때 “땡~!” 하고 외치면서 책을 넘기고 동생, 언니, 오빠들과 발표도 하고 나의 이야기도 했다. 작가 선생님이 남극 이야기를 했을 때 신기하고 펭귄 어린이들도 많이 봤다. 사진으로 봐도 엄청 추워 보였다. 그리고 다른 작가 선생님은 모래로 그림을 그려서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나도 모래 그림을 배우고 싶었다. 제일 재미있는 책은 『열두 달 나무 아이』다. 나의 생일 나무를 알아서 너무 신기하고 만들기도 재미있었다. **박\*\*(10세, 여)**
- 도서관 선생님들이 오셔서 좋았다. 책도 주시고 작가님 사인도 받아서 친구한테 자랑했다. 다음에 작가님들을 또 만나고 싶다. 내가 만들기를 잘 못해서 아쉬웠다. **홍\*\*(12세, 남)**
- 친구랑 같이 지역아동센터에 오는데 같이 하자고 해서 갔다. 책도 많이 주고 만들기랑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했다. 도서관에도 또 놀러 가고 싶다. **조\*\*(12세, 남)**



내 자신 표현하기(미니등)



이야기 퍼즐(구름공향)

## 사서의 소감 한마디

처음 공모 사업 선정되었을 때 너무 기쁘고 정말 기대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고, 작은 바람으로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읍면동의 소재지가 많아 꼭 선정되길 바랐습니다. 좋은 기회를 통해서 뜻깊은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 너무 보람도 느꼈고, 매주 마다 새로운 책과 이야기 나누는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 자신만의 표현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할 때는 놀라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강사님이 선정한 도서 중에는 그림만 있는 『구름공향』이라는 그림책도 있었는데 페이지마다 그림들을 보며 다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생각의 전환과 다른 시각으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니 어른인 저도 깊은 생각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15회기 동안 매주 마음을 나누었던 친구들을 생각하니 저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김\*\*(서산어린이도서관)**

### 강사의 소감 한마디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며 시작한 수업이 금방 끝났네요. 웃고 떠들고 장난칠 시기인 우리 귀여운 초등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책의 소중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과 꿈까지 모두 모두 전달되었기를 바라고 늘 행복했으면 합니다. 담당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 무엇보다 제가 나이가 있는 편인데 저 자신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첫 만남부터 적극적인 활동들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독후활동 할 때만큼은 다들 진지하고 하나하나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소중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나누는 일이 제일 좋습니다. 이번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 더 많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이\*\*(동화구연전문가)

### 참여기관 담당자의 소감 한마디

먼저 좋은 기회로 우리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꿈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담당 선생님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모 사업에 대해 담당 선생님이 처음 업무협의를 통해 이야기 나눌 때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취약한 부분이 많은 면 소재의 지역아동센터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소 책과는 멀게만 느껴졌던 시간과 의무감에 책을 펼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책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견학과 강사님의 재미있는 독서프로그램,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참 유익했던 독후활동도 좋았습니다.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고 다음에도 또 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부듯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독서에 대한 생각이 많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매주 어려운 걸을 해주신 강사 선생님과 담당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3개월 동안의 시간이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화목한지역아동센터장)



# 매주 목요일, 그림책 읽는 시간

## 장 주 희

정읍기적의도서관

정읍기적의도서관 사서 장주희입니다. 이번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을 운영하며 잊고 지낸 어린시절을 다시 한번 통과한 느낌인데요, 신정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참여기관명** 신정지역아동센터

**참 여 인 원** 5세~12세, 8명

**운 영 기 간** [총 18회] 2023년 5월 11일 ~ 9월 14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5시 30분







## 첫 만남은 정음기적의도서관에서

정음기적의도서관과 신정지역아동센터가 함께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에 참여하기로 약속한 순간부터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상상했다. 책 읽기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인상을 느끼고 예정된 회차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깨워주고 싶었다. 첫 수업은 정음기적의도서관에서 『인사를 나눠드립니다』를 ‘또박또박’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2023년 5월 23일 목요일 오후, 신정지역아동센터의 승합차를 타고 도착한 8명의 아이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선 도서관의 규모에 놀라고, 이색적인 도서관 내부를 살피며 수업 장소인 강당으로 향했다. 책 읽기 프로그램 진행이 처음이었던 나는 약간의 두려움과 설렘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 아이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어서, 낯선 장소에서 나처럼 몸이 얼어있었다. 내가 먼저 조용하고 부드럽게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사서 선생님 책 읽어주세요

“정음기적의도서관 사서 장주희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그림책을 읽고 재밌게 놀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여러분이 읽어주는 그림책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의 협조로 아이들의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그중 눈에 띄는 6학년 학생은, “저는 여기서 제일 잘생긴 \*\*\*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서 분위기가 제법 가벼워졌다. \*\*이의 자기소개 인사말은 그 뒤로 돌림노래처럼 불리며 참여 어린이들에게 웃음 버튼이 되었다.

『인사를 나눠드립니다』를 읽는 동안 아이들은 집중해 췄고, 활기찬 몇몇 아이들은 질문에 대답을 해줬으며 처음의 어색함이 제법 누그러졌다. 수업을 준비할 때 만들기를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8명의 아이들 중 5명이 남학생이었고, 연령이 다양해서 몸으로 인사하는 게임을 했다. 두 명씩 짝을 이뤄 발바닥을 부딪히며 두 팔로 안아주고 이마를 비비며 하는 다양한 인사 게임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엉거주춤한 동작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도, 서로 안아주기를 거부하면서 계속 웃었다. 누가 누가 친한지 아이들 간의 관계가 보였고, 앞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경 써줘야 할 아이도 눈에 띄었다. 미리 준비한 PPT를 활용해,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수업 소개를 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아동센터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폴라로이드로 한 명씩 아이들의 얼굴을 찍고 각자의 이름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수업 전까지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첫 만남을 기념하고 싶었다. 수줍어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위치와 포즈를 취하며 스스로를 드러내는 아이들을 보니 귀여웠고, 아직 이 수업시간이 서먹한 아이들에게는 자주 만나면서 조금씩 친숙해져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 책 읽기 수업에서 우리는 -그림책으로 나의 마음을 들여다 봐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수업을 기획하면서 참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책’과 친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심심할 때, 화가 날 때, 슬플 때 아이들이 책을 떠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책 속의 인물들이 이미 겪은 감정과 상황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었을 때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런 고민을 함께하며 잘 통하는 박나영 강사님과 수업을 준비했다. 평소 나를 들여다보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하시는 박나영 선생님의 주도로 그림책을 선정했다.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림책부터 천천히 해석하며 감상할 수 있는 그림책까지 다양했다.

박나영 강사님과 14회차의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수업을 진행했다. 『고 녀석 맛있겠다』를 시작으로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꽃잎 아파트』, 『용기를 내 비닐장갑』, 『참을성 없는 애벌레』, 『치킨 마스크』, 『숲속 재봉사의 꽃잎 아파트』, 『모치모치 나무』, 『틀려도 괜찮아』, 『커다란 벽이 있다면』, 『꽃을 선물할게』, 『작은 눈덩이의 꿈』, 『꿈에서 맛본 똥파리』를 마지막으로 읽었다. 각각의 책들은 특정 감정을 대표하는 주제를 나타내도록 선정되었다. 박나영 강사님이 수업의 도입부에 그림책과 연관된 퀴즈를 내거나, 다른 그림 찾기를 하는 등 수업에 집중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셨다. 나는 거의 모든 회차에 함께 참여했고,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 보조를 했다.

8평 남짓한 공간에서 열 명이 매주 목요일 오후에 만났다. 결석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인근의 초등학교에서 하교한 아이들은 승합차를 타고 아동센터로 모였다. 5살 막내 \*\*이부터 6학년 \*\*이까지 모두 모이면 여덟 명이다. 아이들은 그 나이 또래에서 볼 수 있는 발랄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때로는 서로 토라져서 수업이 힘들 때도 있었다.

박나영 강사님이 매회 그림책을 깊이 있게 읽어주셨다. 첫 장부터 면지와 글, 그림이 담긴 본문과 마지막 장까지 살뜰하게 읽어주셨다. 작가를 소개해 주고 그림책에서 그림을 읽는 방법, 그림책의 스토리와 등장인물들이 느낀 감정을 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느껴보는 시간 등을 가져보면서 한 시간 반 동안 아이들의 호응과 집중력을 점검하며 수업을 운영했다.



작은 눈덩이의 꿈 읽고-장애물 게임



꽃잎 아파트를 읽고-손수건 만들기

아이들에게 아동센터는 돌발적인 외부 자극 없이 또래와 함께 공부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집에서 학교, 아동센터에서 집으로 이뤄지는 일상속에서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 의지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와 OO이는 단짝이다. 책 읽기 수업중에 \*\*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는데 OO이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저 목말라요, 물 마시러 가도 돼요?”라고 허락을 구할 때, \*\*는 이때다 하며 “저도요”라고 작게 말하고 얼른 따라나갔다. 한번은 강사님이 그림책 읽기를 마치고 \*\*에게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물었을 때 늘 그랬듯 탄청을 피우며 대답을 피했다. 그랬던 \*\*가 우리를 놀라게 했던 책 읽기 수업이 있었다. 마지막 책 읽기 수업은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책을 소개하고 그 이유에 대해 발표를 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작은 눈 덩이의 꿈』, 『틀려도 괜찮아』, 『참을성 없는 애벌레』, 『치킨 마스크』를 꼽았다. 이때 조심스럽게 \*\*에게 어떤 책이 가장 인상 깊었느냐고 강사님이 물었을 때, \*\*는 『꽃을 선물할게』라고 짧게 제목만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강사님은 탄성을 지르셨다. \*\*가 선택한 그 책은 지문이 없고 온전히 그림을 해석해야 하는 가장 어렵다고 여겼던 책이었던 것이다. \*\*가 왜 그 책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마지막 수업에서 자발적으로 발표를 해줬다는 점과 예상치 못한 책을 선택한 점에 대해 그동안 \*\*가 수업에 나름대로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석 없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는 우리는 몰랐지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어서 『꿈에서 맛본 동파리』를 시작으로 백희나 작가가 그리는 가족은 모든 형태가 자연스럽다는 얘기를 나누며, 독후 활동으로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감정을 글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알사탕』을 읽고

\*\*에게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매회 침묵으로만 일관했던 \*\*는 아빠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리고 짧게 이렇게 썼다. ‘아빠, 놀아주세요’ 그 문구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아빠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첫 수업시간에 폴라로이드 사진에 적은 아이들의 이름을 라벨기로 출력해 주고, 책 읽기 수업 활동 도서에 각자의 이름을 함께 붙여 주었다. ‘잘생긴 ○○이’는 이름표가 붙인 책을 보자 한껏 기뻐했는데, 그의 단짝 ◇◇는 ‘○○보다 더 잘생긴 ◇◇’라고 해달라고 나에게 요청을 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꾸밈말을 넣어 이름표를 붙여주었더니 아이들은 씩스러워하면서도 즐거워했다.



## 글과 그림을 짓는 작가를 만나서 우리는 -나를 긍정하는 마음을 가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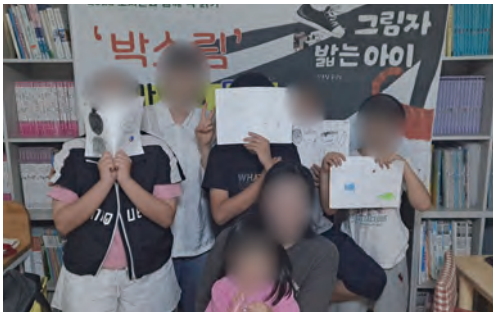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수업 중 작가와의 만남을 두 번 진행했다. 2023년 7월 6일, 아이들과 정읍의 작은새책방에서 진행한 수업에서 이라야 작가님은 『뛰어라 메뚜기』를 실감 나게 읽어주신 후, 각자가 원하는 역할을 맡아 무언극을 하자고 제안하셨다. ○○이가 그림책을 읽을 때, 아이들은 뱀, 메뚜기 등을 동작으로 표현했다. ○○이의 낭독으로 순조롭게 진행됐고 아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테이블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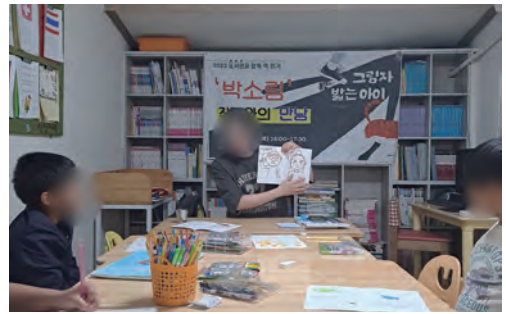
이라야 작가와의 만남-작은새책방에서

올라가 적극적으로 메뚜기를 표현한 △△ 덕분에 분위기가 살아났다. 졸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렸던 ☆☆이도 이날만큼은 제 역할을 해냈다.

박소림 만화가와 2023년 8월 24일 무더위가 한창일 때 아동센터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 작가의 신간 『그림자를 밟는 아이』를 소개하며 글과 그림을 창작하는 만화가의 삶과 아이들이 궁금해한 몇 가지의 질문으로 대화를 마친 후, ‘나만의 캐릭터 그리기’를 했다. 시작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작가님이 시범을 보여줬다. 동그란 원에 안경을 그리고 쓱쓱 머리카락의 윤곽을 넣으니 그날 모인 아이들 중 유일하게 안경을 쓴 ○○이의 얼굴이 그림에서 나타났다. 아이들은 서로 자기를 그려달라고 졸랐는데 작가님은 얼굴의 특징을 포착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의 캐릭터는 선 굵기 낙서로 형태가 없었지만 마무리했다는 점을 칭찬해 줬고, ▽▽는 아이들 중 유일하게 뒷모습을 그려서 작가님에게 남다른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박소림 작가와의 만남 1



박소림 작가와의 만남 2



## 우리는 책으로 만나서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요

매주 목요일 오후 우리는 그림책을 함께 읽었다. 강사님이 주로 읽어주셨지만 때로는 사서인 내가 읽어주기도 하고, 작가와 만화가, 아동센터를 졸업한 선배, 센터를 이끄는 센터장, 그리고 참여 어린이들이 읽었다. 그림책은 읽는 이에 따라 다르게 읽혔다. “나도 저 책 읽었는데!”라고 했던 아이도 책 읽기 시간에 다시 읽었을 때 사뭇 진지해지기도 했다.



책 읽어주는 아이들



책 읽기 수업시간



선배님, 책 읽어 주세요

□□이는 학교 시험은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하고, 선생님에게 ‘시험을 쉽게 내주세요’라고 말하는 아이였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어 나라를 바꾸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강사님의 질문에 정답을 말하고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큰 □□이가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소개한 책은 『틀려도 괜찮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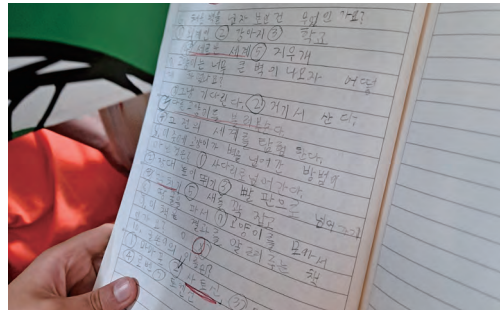


『틀려도 괜찮아』를 읽고-2인1조 컵쌓기



‘언제나 맞는 답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깐 틀리는 게 무섭고 두려워서 손도 못 든 채 작고 움츠려들고 입은 꼭 다문 채 시간만 흘러가. 그러면 조금도 자라날 수 없어. 자꾸자꾸 말하다 보면, 자꾸자꾸 틀리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의 절반 정도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가끔은 정답을 말할 수도 있지. 틀릴 땐 친구들이 고쳐주고 가르쳐 주면 되지. 어려울 땐 선생님이 지혜를 내어주면 되지.’

□□이가 읽는 『틀려도 괜찮아』는 스스로에게 하는 격려였고, 함께 있는 아이들에게는 응원가이기도 했다. 초반의 우려와 달리 □□이는 책 읽기 수업 동안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었다. 각자의 상황과 속도를 인정하고 배려와 즐거움을 주고받는다면 ‘틀려도 괜찮은 교실’의 일원 모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의 독서퀴즈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책 읽기 하면서 오빠랑 사이가 좋아졌다. 배\*\*(5세, 여)
- 힘들기는 했지만, 책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8세, 남)
- 선생님을 또 만나고 싶다. 감사합니다. 배\*\*(10세, 남)
- 솔직히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신\*\*(11세, 남)
- 다음에도 하면 좋을 것 같다. 최\*\*(12세, 여)
- 다 좋았다. 작가를 보아서 좋았다. 최\*\*(13세, 남)
- 작가를 만나서 좋다. 송\*\*(13세, 남)

### 사서의 소감 한마디

첫 만남과 마지막 수업에서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2장을 아이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처음의 어색했던 포즈는 온데간데 없고,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마지막 모습은 시간 여행을 마친 느낌이었죠. 회차를 거듭할수록 아이들이 제법 책을 즐기는 모습이어서 부듯했습니다. “애들아, 잘 있어! 다음에 짠- 하고 올게!”

### 강사의 소감 한마디

그림책 한 권을 읽어가며 나의 생각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책과의 대화입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무엇이 좋은가?’, ‘나는 언제 용기가 생겼나?’ 등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친구들과의 책 읽기 수업이 의미 있고 즐거웠습니다. 수업 회차가 마무리되어갈 즈음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학생들끼리 질문하며 책을 보더라고요.”라는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책과 대화하는 방법을 통해 세상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 지도강사 박나영

큰애들이 박나영 강사님 흉내를 내면서 동생들에게 책 읽어주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과 읽었던 그림책이 자연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센터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과 잘 어울려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림책을 활용해서 연령에 맞춘 독서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신정지역아동센터장 김윤지**

## 동화와 함께하는 뮤지컬

### 문 종 현

목포시립도서관

목포시립도서관에서 근무 중인 문종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덩달아 저도 미소를 머금게 되었습니다.

#### 참여기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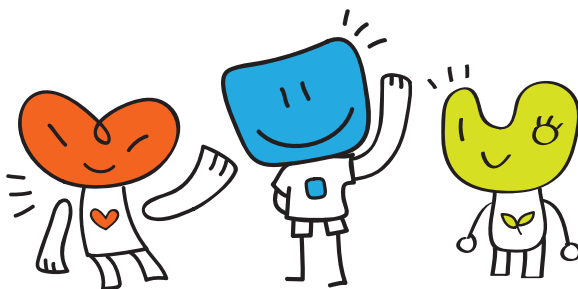
목포시가족센터

#### 참여인원

초등 1~3학년, 10명(다문화자녀)

#### 운영기간

[총 15회] 2023년 5월 6일 ~ 13일 / 8월 5일 ~ 10월 21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목포시립도서관에서는 목포시가족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 자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와 세계 명작, 초등 필독 도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사서와 책 읽기 프로그램이었다. 다문화 자녀들의 경우 유아기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엄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책 읽는 습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책을 읽어주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아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화구연, 만들기, 체험 등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사서선생님과 책 읽기



작가와 함께하는 독후 활동 1



작가와 함께하는 독후 활동 2

올해 공모사업을 처음 운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모사업을 접수하면서부터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선정이 된다면 진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감정이 교차하였다. 그러나 막상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자, 나 또한 어느 순간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아이들도 첫 수업에 내성적이고 부끄러워하면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강사 선생님과 참여기관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매우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주말에 진행되는 수업이라 나뿐만 아니라 참여기관 선생님들과 강사 선생님들이 초기에는 힘들었으나, 차시가 진행되면서 잘 적응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어느덧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다. 처음에 낯을 가리며 경계하던 아이들도 나와 강사 선생님께 마음을 열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다과 시간을 가지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다.



동화와 함께하는 뮤지컬 1



동화와 함께하는 뮤지컬 2



동화와 함께하는 뮤지컬 3



동화와 함께하는 뮤지컬 4

처음 마주하는 아이들에게 도서관에 가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손을 든 친구는 단 1명이었다. 이토록 다문화 자녀들에게는 아직도 도서관의 문턱이 높은가라는 생각과 함께 도서관에 처음 오는 아이들에게 도서관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더 노력했던 것 같다. 9월 독서의 달 행사에도 별도로 아이들을 초대하여 마술쇼 관람, 만들기 부스 체험 등을 하면서 도서관이 꼭 책만 읽고 빌려 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소통의 장소라는 곳도 알려주었다.

지역 언론에 보도자료 게시와 현수막 게시, SNS 홍보 등의 방법으로 프로그램 홍보에 신경을 썼으며, 목포시가족센터의 도움을 받아 다문화 자녀들이 원하는 수업을 사전에 확인해보고 좋아하는 점과 싫어하는 부분들도 파악해 보았다.



도서관 견학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책을 잘 읽지 않았는데, 선생님이라 같이 책을 읽어서 재밌어요. 이제 책을 잘 읽을 거예요. **홍\*\*(10세, 여)**
- 책 읽기라고 해서 하기 싫었는데,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춤까지 같이 춰서 너무 웃겨요. 처음은 창피했는데 이제는 제가 제일 크게 읽고 제일 잘 춰요. **김\*\*(10세, 남)**
- 책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도 좋아요. 앞으로는 책을 더 많이 좋아할 거예요. 독후감도 써볼래요. 감사합니다. **김\*\*(8세, 남)**

### 사서의 소감 한마디

아이들과 처음으로 책 읽기 활동을 하는 날이었어요. 도서관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 곳인지. 도서관 견학 때 잘 들었는지 발표를 잘 하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장면 장면 역할극도 하고 돌아가면서도 읽기도 하고, 이 문장은 어떠한 기분을 표현하는 건지 끊임없이 아이들과 이야기했어요. 적극적인 아이들의 모습에 저 또한 질 수 없어 저도 열심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래 운영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낯설기만 했던 도서관이 이제는 정기적이진 않지만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책을 보러 와요. 그때마다 저를 찾는데 어찌나 고맙고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사서 고생이 아니라 사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한 번은 아이에게, “선생님이 무슨 일하는 사람인지 알아?”라고 물었더니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고마운 선생님이에요.”라는 대답에 혼자 눈시울이 붉어진 적도 있었네요.

### 강사의 소감 한마디

독후활동 뮤지컬 강사 활동 중, 다문화 자녀들과 수업을 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의사소통 때문이에요. 첫 수업을 하고 나서 제 걱정은 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편견이었죠. 미안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공존하며 어느 때보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쭈뼛쭈뼛한 아이들이 어느새 토요일만 기다리고 있네요. 아이들이 어느새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찍 와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메모장에 독후감상문처럼 쓰기도 시작했구요. 정말 이런 아이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 참여기관 담당자의 소감 한마디

이제 아이들이 센터에 와서 책을 읽는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매번 뛰어다니고 싸우고 시끄럽게만 떠들던 아이들이 독서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책을 읽어야 하는 게 숙제니?”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냥 이제 책이 좋다고 그래요. 도서관에서 운영해 주신 프로그램이 이렇게 아이들을 바르게 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포시립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운영

세계 명작동화를 함께 읽고, 토론하고, 역할극 진행

전남뉴스최성  
(2023-08-04 16:17)

게재일자(23-08-04)



목포시립도서관이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목포시 제공

[전남뉴스 최성] 목포시립도서관(관장 최진수)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최하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과 진로방향 설정을 돕기 위해 도서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지원사업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립도서관은 목포시가족센터와 연계해 8월부터 10월까지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전문 강사와 함께 세계 명작동화를 읽고, 느끼고, 표현해보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 습득은 물론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알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공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함께 하자, 도서관

### 이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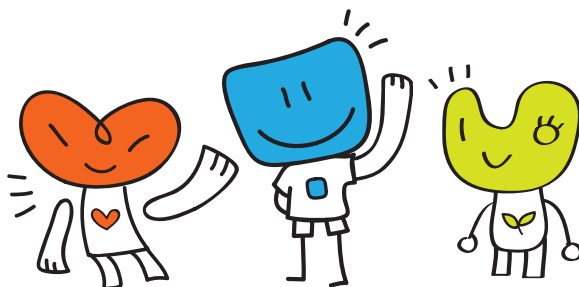
칠곡군립도서관

칠곡군립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을 담당하고 있는 1년 차 사서입니다. 처음이라 서툴지만 활기차게 친구들과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여 보았습니다.

**참여기관명** 베다니지역아동센터

**참여인원** 초등 1~3학년, 10명

**운영기간** [총15회] 2023년 5월 2일 ~ 8월 29일,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도서관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신규 사서이기에 처음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 담당이 되었을 때, 내가 과연 15회까지 운영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들었다. 아동센터 알아보기, 강사님, 작가님 알아보기 등 처음 해보는 일이 많았다. 다행히 작년에 진행하셨던 선배 사서님들의 도움과 이전의 운영 사례집을 보면서 가닥을 잡아나갔다. 그렇게 두 번째로 연락이 된 지역 아동센터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지역 아파트 상가에 있는 자그마한 센터이지만 아이들이 북적이는 활발한 곳이었다. 아동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1~3학년까지 10명으로 구성하고 날씨는 아동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화요일로 정해졌다.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고 강사님, 작가님, 센터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 것이 감사했다. 다행히 모두에게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 처음 보는 친구들, 처음 오는 도서관

첫째 날은 도서관을 활용한 도서관 견학 및 이용 교육을 진행하였다. 기존에 운영한 적이 있는 독서교실 수업은 3, 4학년 위주로 진행했기 때문에 1, 2학년 수업은 처음하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은 이름표 만들기, 도서관 이용 교육 후 도서관 게임, 도서관 견학 순으로 진행되었다. 도서관 게임은 단어가 비어있는 질문을 완성하고 그에 맞는 답을 맞히는 과정이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 아동 중에 한글을 덜 익힌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약간 당황하였지만 게임을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다 같이 함께하는 방법으로 했다. 그러자 서로 협동하여서 질문을 완성하기도 하고 답을 맞히기도 했다. 다들 사이가 좋다는 것을 느꼈다. 이후 도서관 자료실에서 도서관 견학과 책 읽기를 진행하였다. 책 읽기를 하면서 만화책만 찾는 짓곳은 아이도 있었지만 각자의 흥미에 맞는 책들을 읽는 모습이 기특하였다.



도서관 활용 1



도서관 활용 2



## 배울 점이 많았던 프로 그림책 강사님

연락드린 강사 선생님 중 도서관에서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경험이 많아 능숙하시고, 특히 초등학생들과 잘 어울리실 것 같은 분으로 섭외하였다. 전화 너머로 느껴졌던 활기와 열정은 처음 수업 때 고스란히 나타났다. 첫째 날 수업 후 한글을 덜 익힌 친구들이 있다는 안내를 드렸더니, 강사님이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셨고, 아동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 위주로 강의 내용도 변경하여 오셨다. 또한 매 수업마다 도입 수업으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을 준비해주셔서 수업 집중도도 높았다. 역시 프로 강사님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도서 『국기는 재미있다』로 진행되었던 수업 시간에는 나조차도 게임에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열띤 참여율을 보였다. 강사님이 책에 있는 한 국기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친구들이 손을 들어 정답을 말하는 게임이었다. “세모가 있어요”라는 강사님의 설명에 무작정 손부터 들고난 다음에 국기를 찾는 학생도 있었고, 과열된 상황에 목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된다는 강사님의 말에 입을 꼭 막는 바람에 손들 타이밍을 놓치는 학생도 있었다. 빨리 손들지 못하는 학생들 옆에서 약간의 힌트를 주면서 같이 참여하니 덩달아 재미있었다.



국기는 재미있다



## 우리 지역에 이런 작가님이?

강사님 섭외는 생각보다 무난하였지만 작가님 섭외는 쉽지 않았다. 솔직히 서울에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은 1시간 30분 수업에 이동시간 5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의 작가님을 모색하던 중 『코뿔소 모자 씌우기』라는 작품으로 최근 수상까지 하신 작가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동시 작가님이라서 우리가 진행하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에 딱 맞는 분이셨기에 반드시 섭외하고 싶었다. 섭외 전화를 드리니 너무나 흔쾌히 동의해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과 강의를 많이 하셨던 분이였다. 미리 선생님의 시집을 도서관에서 대출하여 읽어보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동물 관련 시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 불안함에 관한 시도 있었는데, 이런 동시를 쓰시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였다.

수업 시간 전에 시집을 미리 읽어와서 마음에 드는 시나 공감아 갔던 시를 정해왔으면 좋겠다고 안내를 하였더니, 학생들이 모두 시집을 읽어 와서 수업에 참여했다. 수업이 시작되고 각자 마음에 들었던 동시를 낭송도 하고 작가님이 그 동시를 쓰게 된 계기나 숨겨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주시는데 다 같이 작가님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발표 시간에 동시 중 <흰 털 수북한 손>이 가장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었다. 혼자 집에 있을 때 집을 보는 불안한 마음을 우유 넣는 현관문 구멍에서 흰 털 수북한 손이 나올 것 같다는 표현으로 재미있게 풀어낸 동시였다. 어떤 친구는 자기도 혼자 집을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무섭지 않았다고 당당히 발표하였다. 자신들의 경험을 말하면서 동시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는데 첫 수업 때의 말괄량이 같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엿하게 수업에 집중하여 참여하는 모습이 새로워 보였다.

작가님의 수업 중 마음에 드는 동시를 가지고 캘리그라피를 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있었다. 학생 중 가장 한글을 덜 익힌 친구가 낭송 시간에 힘들어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막상 그 친구의 차례가 왔을 때, 글씨는 최대한 적을 수 있는 만큼 적고 시화를 따라 그리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깜짝 놀랐다. 마냥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시를 들으면서 느꼈던 감각들을 색으로 표현하여 재구성해서 그리는 것이다. 원래는 그냥 물이 뿜어져 나오는 그림이어서 “왜 다른 색으로 표현한 거예요?”라고 물어보니 동시에 있었던 UFO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눈에 밝히던 학생이었기에 아낌없이 칭찬해주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수업이 어린이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 공모 사업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어 보게 되었다.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 1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 2



## 선생님, 그 책은 어떻게 읽고 있는 거예요?

‘사서 선생님, 책 읽어 주세요’의 첫 수업을 또북또북으로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마음 버스』 또북또북 책이 초성 독후활동하기가 좋고 『마음 버스』에 나오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들을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느꼈으면 해서 선정하였다. 또북또북 책을 돌려매고 센터에 들어가니 이아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이 큰 책으로 수업할 것이라고 안내해 주고 동화 구연을 시작하였다. 또북또북 책의 뒤 페이지에 책의 내용과 진행 내용이 있어서 학생들 보기에 선생님이 책을 외워서 읽어주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책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한 친구가 질문을 하였다. “선생님, 그 책은 어떻게 읽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궁금했을까 생각하니 귀여워서 또북또북 책 뒷면을 보여주면서 책의 구성을 알려주었다.

사실 그날 수업은 자리에 앉을 때부터 난항이 예상되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오늘 수업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남자, 여자 친구끼리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지 같이 앉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어떻게 겨우겨우 앉혀서 읽기 시작한 『마음 버스』. 사서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읽은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친구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버스가 느려지다 보니 불평을 하는 마음버스의 승객들과 같던 친구들이 점점 책 내용에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이해 점검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독후활동으로 서로에게 기분 좋은 말을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지니 부끄러워하면서도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외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초성 단어 만들기 활동에서도 궁금한 단어들의 맞춤법을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짝과 함께 협동 퍼즐 맞추기 시간도 잘 따라주었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며 수업을 시작할 때의 우려는 온데간데없고 뿌듯함과 고마운 마음만이 남아있었다.



##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자 아동센터에 들어갈 때부터 시원하고도 섭섭한 기분이 들었다. 15회가 생각보다 짧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마지막 수업은 친구들이 아쉽기보다 즐겁게 끝났으면 하는 마음에 강아지도 나오고 전투 장면도 나오는 『우주 전사 복실이』로 도서를 정하였다. 책을 읽기 전 도입 시간에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물어보니 너도나도 손을 들면서 강아지, 고양이도 있다면서 키우는 동물의 이름을 외쳤다. 각자의 반려동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기특하였다. 독후활동으로 복실이의 우주 전사 전투복을 구상해 보고 종이에 꾸며보는 활동을 준비하였다. 자신들이 생각한 전투복을 발표하는 시간에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만화가



있는지 활발한 친구들은 OO이 신는 스피드 신발, 망토 등에 대해 신이 나서 말하였다. 비교적 안전한 친구들은 방어막이나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발표했는데 아이들의 각자의 특성으로 서로 다르게 전투복을 꾸미는 것이 신기하였다.

15회 수업 동안 가장 말을 안 듣는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마지막 수업 날 전투복 꾸미기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면서 아이디어를 곧잘 내곤 하였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책을 선정할 때도 마냥 유명한 책이나 나의 생각으로 책을 고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흥미나 특성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실을 마지막 수업에서야 알았다는 게 참 아쉬웠고 다음 공모에 참여할 때는 더 알차게 진행해야겠다는 욕심도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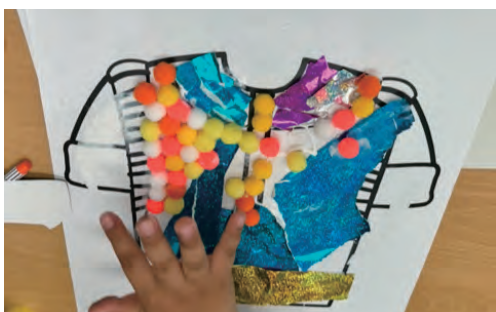
마무리 인사를 하고 수업이 끝났다.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학생 한 명이 쏘르르 달려와 배꼽손을 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꾸벅, 인사를 하는데 모든 피곤과 힘들었던 일들이 씻은 듯 사라졌다. 친구에게 “수업 열심히 들어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하면서 같이 인사하고 나오는데 새삼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이 고맙기도 하고 진행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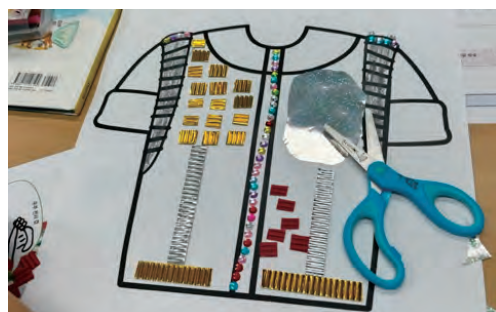
책 읽어 주세요 1



책 읽어 주세요 2



책 읽어 주세요 3



책 읽어 주세요 4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퀴즈 맞추기 재미있었어요. 김\*\*(8세)
- 마지막 수업이 즐거웠어요. 이\*\*(9세)
- 만들기 수업 좋아요! 박\*\*(9세)

### 사서의 소감 한마디

처음에 ‘사서’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았던 친구들이 도서관과 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수업을 할 때마다 “책 읽기 수업인데!”라고 하면서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니 너무 부듯하였습니다. 15회 동안 진행하면서 점점 독서에 익숙해지는 것이 보였고, 독후활동의 태도 또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4개월 동안의 수업이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강사의 소감 한마디

매주 감동이 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칠곡군립도서관과 베다니지역아동센터가 함께하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했을 때, 한글을 모르는 학생들이 30% 가량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수업을 이끌어 가야 할지, 준비한 활동은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도 잠시, 함께했던 사서 선생님과 머리를 맞 대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학생들에 성향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은 책읽기 시간을 매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맞추어 도착하면 아이들은 순식간에 자리에 앉아 책 읽을 준비를 합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 책 읽는 시간은 눈을 맞추며 빛을 내고, 귀를 쫑긋 세워 집중하며, 손끝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이 쌓여 저에게는 그 몇 배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날들이었으며, 앞으로 이 학생들이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참여기관 담당자의 소감 한마디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수업을 통하여 다양한 책을 접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림책을 읽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미술 도구를 활용하여 책 속의 주인공과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나의 미래 직업을 그려 보기도 하고, 조금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동시도 접해 보았습니다. 책이라면 일단 “싫어요.”를 먼저 외치던 아이들이 책 표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책 수업에서 읽었던 책 내용을 신나게 알려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책과 많이 친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아이들과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 책은 오늘도 우리를 성장시켜요!

## 박지영

우당도서관(조천읍도서관)

작년에 이어 올해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운영하고 있는 사서 박지영입니다. 해가 바뀌며, 전년도에 아쉬웠던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많은 고민과 아동센터 원장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이번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기관명**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참여인원** 초등 1~6학년 10명

**운영기간** [총 15회] 2023년 4월 19일 ~ 7월 26일,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전년도에 이어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작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학교생활이 쉽지 않았을 어린이들을 위해 친구를 사귀고, 교감할 수 있는 주제의 연계 활동을 진행하였다면, 올해는 좀 더 원론적인 독서 접근 방법을 활용하였다. 강사 선생님과 함께 하는 10차시 동안에는 만들기 및 체험활동 시간을 줄이고 독서 및 토론,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참여 어린이들의 독서 시야를 넓히고 지적 인내심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대신 작가 강연과 ‘책 읽어주세요’를 활용하여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체험활동과 만들기 시간을 운영하여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린이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되어 뿌듯하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기관 담당 선생님들도 매 차시를 기대하고 좋아해 주셨다. 특히 강사 선생님의 이력(학교 선생님, 아동심리 상담)에서 엿보이듯이 센터 어린이들과 개별 면담도 해주시고, 기관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어린이 각자의 특성과 고민들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가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책과 함께 깊은 사색



## 폴라로이드 사진에 담긴 우리들만의 추억!

전년도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느낀 점은 프로그램 운영 때, 글루건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조심하면서 진행해도 꼭 한 명씩 손가락을 데일뻔한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올해 ‘책 읽어주세요’는 풀과 가위, 색연필만 있어도 유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은 역시나 야외 활동이었다. 그림책 『강아지똥』을 읽고 민들레 종이꽃 액자를 만들어 보면서 그 액자에 담을 예쁜 추억을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찍어 보기로 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아이들과 센터 옆 공터로 향하자 아이들은 마냥 해맑게 웃으며 놀면서도 어느 순간 자신들이 찍을 사진의 뒷배경을 물색하고 있었다.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거나 혼자 독사진을 찍으면서 폴라로이드 필름을 흔들며 사진이 현상되기를 기다렸다. 폴라로이드 사진을 이용한 수업은 아이들의 높은 집중도와 관심을 끌 수 있었다.

아이들의 단체사진을 담은 민들레 꽃 액자는 센터의 중앙 자리에 놓았다. 그날 미처 말하지 못했지만, 흔쾌히 자신의 폴로라이드 사진기와 필름을 제공해 준 보조강사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책 읽어주세요! <노란 앞치마 입고~>



책 읽어주세요! <단체사진 한 컷>



## 마음버스 타고 우리들 마음속으로 출발!

사서 역량 워크숍을 통한 책 읽기(도안) 활용 독서 프로그램은 다른 사서 동료들에게도 권장하였던 콘텐츠이기도 하다. 다양한 사례 발표와 정보 공유도 좋지만, 이렇게 사서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서 내심 부듯하기까지 했다. ‘책 읽어주세요’를 잘하고는 싶었지만, 전문강사가 아니기에 때문에 어떤 책을 고르고 어떤 독후활동을 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하였다.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강사 선생님께 아이디어를 요청했고 그분들의 도움은 나에게만 단비와도 같았다. 활용하고 싶은 토복토복이 아니라 도서관에 있는 책을 활용하여 책 읽기를 진행하였지만, 내가 손수 뽑아 오려낸 도안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작품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마음버스 타러 출발!



마음버스 만들기



나만의 감정하트 만들기





## 서로가 서로에게 물들어간다

작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주제처럼 참여 어린이들이 각자 자신을 표현하는 색깔을 선택하고, 야외에서 친구들에게 서로의 색깔을 덧입히는 활동을 했다. 한 친구가 외친, “어? 저 원래 노란색인데 지금 초록색이 됐어요.”는 이번 프로그램의 중요한 울림이기도 하였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색깔)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게 된 종이를 활용해 반짝반짝 빛나는 무드 등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이 활동은 아이들에게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 전날까지 작가님과 계속 통화하며 날씨와 아이들의 복장 등에 대해 염려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노력이 무색해질 만큼 제주의 날씨는 야속하게 바람만 불어왔다. 아이들과 담당자인 나는 그래도 해맑은 웃음을 보이며 활동을 하였지만, 아이들의 옷에 아크릴물감이 묻을까 봐 노심초사했던 작가 선생님과 센터 원장님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보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원장님은 ‘이건 아닌데...’ 라고 혼잣말을 하며 걱정하시더니, 완성된 아이들의 무드 등을 보며, ‘이건 다 같이 사진 찍어야겠다.’ 라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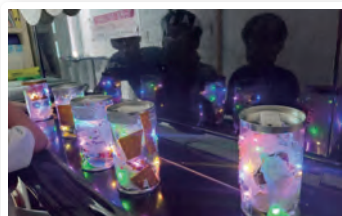
단순했던 노란색이 초록색이 되고, 갈색이 되고, 핑크색이 되어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소중한 체험활동 시간이었다.



마음버스 타러 출발!



마음버스 만들기



나만의 감정하트 만들기

처음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시작했을 때, 센터장님은 유연함을 보이시고, 전문강사가 아닌 사서가 직접 ‘책 읽어주세요’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서 옆에서 아이들의 독후활동도 많이 도와주셨다. 프로그램이 6주 차 정도 진행되었을 무렵에 아동센터에 방문하였는데, 이때 원장님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게 바뀌어 있었다. 아동심리상담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강사 선생님과 참여 어린이들의 성향, 교우 관계, 학습 태도 등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 사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는 깊은 마음이 서로 통했는지 프로그램 운영 외적으로 강사 선생님의 아이들과의 상담, 센터장님과의 면담 등은 이번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의 가장 큰 순기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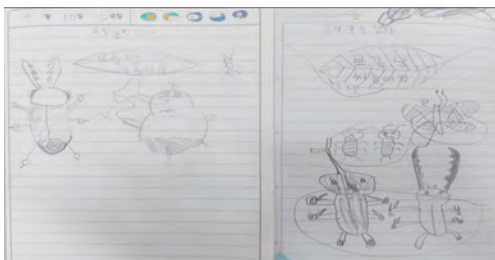
어디로 될지 모를 것 같던 10명의 남자 어린이들과 함께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서 선생님 한마디에 각자 열 마디를 하던 친구들! 그런데 센터에 간식을 가지고 잠시 방문하였을 때, 일렬로 서로 마주 보며 앉아 공책 위에 열심히 자신들의 생각을 또.박.또.박. 적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배신감마저 들었지만, 단 몇 주 사이에도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도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내년에도 또 열심히 프로그램을 기획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집중하여 책 읽기



독서 퀴즈 타임



우리는 곤충학자\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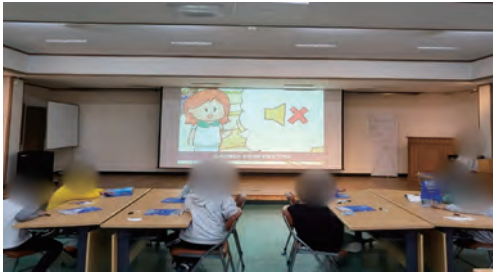


우리는 곤충학자\_2



## 도서관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도서관 견학을 운영하는 동안, 참여 어린이들은 도서관에 대한 거부감과 어색함이 없이 도서관 이용 예절 교육도 잘 받고, 자료실에서 도서를 검색하여 책도 야무지게 잘 읽었다. 특히 자료실 한 편에 마련된 장애인독서보조기기(독서확대기)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친구가 있어 그 자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러 갔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을 정확하게 깨뜨려 주는 일이 있었다. 그 친구는 삽화가 담긴 인체과학책을 보고 있었으며, 책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신체 부위 사진과 설명을 확대하여 큰 글씨로 보고 있던 것이다. 저시력자용이라고 적혀있는 안내문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으며, 아이들의 시각에는 그 어떤 편견도 없다는 것을 이번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느끼게 되었다.



도서관 이용 예절을 배워요



읽고 싶은 책을 찾아 읽어요

### 참여자 소감 한마디

- 단어를 많이 알게 되어서 똑똑해진 것 같아요. 이\*\*(초등2, 남)
- 책 내용을 생각하며, 글을 쓸 수 있어서 좋았다. 김\*\*(초등3, 남)
- 특이한 책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길\*\*(초등4, 남)
- 글씨를 많이 쓸 수 있어서 힘들었지만 좋았다. 김\*\*(초등4, 남)

### 사서의 소감 한마디

올해는 ‘책 읽어주세요’에 대한 많은 기대와 조금 더 아이들과 교류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다는 강한 바람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서 역량 강화 워크숍 참여는 강한 의지와 함께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노란 앞치마를 입고 책을 읽어주고, 활동 도안을 활용해 제가 직접 독후활동을 진행하며, 참여 어린이들과 함께 즐겁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서 유난히 부듯했던 시간이었습니다.

### 강사의 소감 한마디

사서 선생님이 참여 어린이들이 전부 남자 어린이들이어서 파이팅 넘치고 야무지다고 얘기해 주셨을 때, 내심 기대가 되었습니다. 10차 시 동안 즐거웠고, 아이들을 통해 저 또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참여기관 담당자의 소감 한마디

강사 선생님의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 덕분에 15주 동안의 수업 후 아이들이 글쓰기와 토론에 대해 많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매주 센터에 오실 때마다 저와 아이들의 특성과 성향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때, 제가 학부모가 되어 상담하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 부록

\*색 표시는 청소년 대상 운영

2023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운영도서관 

번호	지역	도서관명	참여기관명
1	서울	가락물도서관	가락본동송파키움센터
2		강남구립못골도서관	강남한양수자인작은씨앗도서관
3		강남구립정다운도서관	강남교육복지센터
4		강동구립둔촌도서관	강동꿈마을
5		강동구립천호도서관	배움터지역아동센터
6		강서구립강서영어도서관	화곡지역아동센터
7		강서구립등빛도서관	함께꿈꾸는지역아동센터
8		개봉도서관	하모니지역아동센터
9		거마도서관	아름다운꿈지역아동센터
10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석남지역아동센터
11		공동어린이도서관	서울모자의 집
12		금천구립시흥도서관	해명지역아동복지센터
13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장안지역아동센터
14		<b>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b>	<b>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b>
15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LH행복꿈터열린마음지역아동센터
16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나래지역아동센터
17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지구촌학교
18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송죽원
19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꿈꾸는지역아동센터
20		서울특별시교육청양천도서관	양천구가족센터
21		성동구립청계도서관	성동드림스타트센터
22		<b>아름꿈도서관</b>	<b>종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b>
23		용두어린이영어도서관	용신동우리동네키움센터희망
24		용산구립청파도서관	마리이주여성심터
25		은평도서관	갈현지역아동센터
26		은평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
27		자양한강도서관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8		학마도서관	참슬지역아동센터
29	부산	금샘도서관	두레지역아동센터
30		<b>남구도서관</b>	<b>아시아공동체학교</b>
31		연제도서관	징검다리지역아동센터
32		정관도서관	글로벌지역아동센터
33		해운대인문학도서관	LH행복꿈터해운대지역아동센터
34	대구	화명도서관	조은지역 아동센터
35		구산도서관	해피업지역아동센터
36		<b>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b>	<b>늘사랑청소년센터</b>
37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오목이교실
38		대구시립달성도서관	포산홀스쿨지역아동센터
39		대구시립동부도서관	동대구지역아동센터
40		대명어울림도서관	에덴지역아동센터
41		범어도서관	황금지역아동센터
42		비산도서관	스쿨지역아동센터
43		안심도서관	동구가족센터
44	인천	원고개도서관	사랑속의아이들지역아동센터
45		검단도서관	서로사랑하는지역아동센터
46		검암도서관	새일꾼지역아동센터
47		석남도서관	석남지역아동센터
48		<b>수봉도서관</b>	<b>미추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b>
49		신석도서관	어깨동무신나는집지역아동센터
50		심곡도서관	샘물지역아동센터
51		영종도서관	인천중구가족센터(분소)
52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신나는교실지역아동센터
53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	남구지역아동센터
54	광주	청라국제도서관	BTC지역아동센터
55		<b>북구일곡도서관</b>	<b>광주광역시북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b>
56		광주시립사직도서관	예들지역아동센터
57	대전	장덕도서관	해피존멘토지역아동센터
58		가오도서관	한빛지역아동센터
59		둔산도서관	비전지역아동센터
60	울산	우정도서관	정말잘돼지역아동센터

# 부록

\*색 표시는 청소년 대상 운영

2023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운영도서관



번호	지역	도서관명	참여기관명
61	경기	소하도서관	생물지역아동센터
62		광교푸른숲도서관	아트지역아동센터
63		<b>꿈나무정보도서관</b>	<b>동두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b>
64		꿈나무정보도서관	아이들웃음터지역아동센터
65		대야도서관	시흥시청소년수련관
66		버드내도서관	세류지역아동센터
67		송산도서관	마도푸른자리지역아동센터
68		안중도서관	드림스타트서부센터
69		양벌도서관	예일지역아동센터
70		용인상현도서관	NH행복꿈터광교마을지역아동센터
71		일가도서관	NH행복꿈터미사강변지역아동센터
72		정남도서관	정남지역아동센터
73		철산도서관	광명시지역아동센터
74		<b>평택시립장당도서관</b>	<b>송탄지역아동센터</b>
75		평택시립팽성도서관	팽성지역아동센터
76	강원	속초교육문화관	행복한흙스쿨지역아동센터
77		원주교육문화관	행복꿈터지역아동센터
78		인제교육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인제읍점)
79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	그림바위지역아동센터
80	충북	춘천시립도서관	사북사랑자람터지역아동센터
81		진천군립도서관	사랑나눔 지역아동센터
82		단양교육도서관	상진지역아동센터
83		<b>청주가로수도서관</b>	<b>청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드티나루</b>
84	충남	청주옥산도서관	옥산지역아동센터
85		금산기적의도서관	미라클지역아동센터
86		꿈샘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방축지역아동센터
87		서산어린이도서관	화목한지역아동센터
88	전북	예산군립도서관	다운지역아동센터
89		완주군립삼례도서관	늘푸른지역아동센터
90		유천도서관	동산지역아동센터
91		임실군립도서관	오수지역아동센터
92	전남	정읍기적의도서관	신정지역아동센터
93		콩쥐팍쥐도서관	이서지역아동센터
94		<b>광양중마도서관</b>	<b>광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b>
95		곡성교육문화회관	석곡지역아동센터
96	경북	광양금호도서관	태인지역아동센터
97		목포시립도서관	목포시가족센터
98		별교공공도서관	별교말지역아동센터
99		삼호도서관	다사랑지역아동센터
100	경남	해남공공도서관	해남동대원
101		구미시립중앙도서관	주양교육문화원지역아동센터
102		다산도서관	고령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3		안동도서관	밝은세상지역아동센터
104	경북	의성군립도서관	안계지역아동센터
105		죽변면도서관	울진지역아동센터
106		청송도서관	청송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
107		칠곡군립도서관	베다니지역아동센터
108	경남	포항시립구룡포도서관	구룡포지역아동센터
109		거창도서관	고제높은들지역아동센터
110		꿈이랑도서관	통영시공립아동센터
111		마산합포도서관	완월지역아동센터
112	경남	사천시어린이도서관	사천시드림스타트
113		산청도서관	화계지역아동센터
114		양산시립윤현진도서관	비타민지역아동센터
115		양산시립중앙도서관	물금지역아동센터
116	제주	창녕도서관	꿈초롱지역아동센터
117		철암도서관	영운지역아동센터
118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서귀포시가족센터
119		성산일출도서관	성산꿈꾸는지역아동센터
120		우당도서관(조천읍도서관)	꿈나무지역아동센터

## 서울

강남구립못골도서관	10
강남구립정다운도서관	16
강서구립강서영어도서관	24
개봉도서관	30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38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44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50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60
은뜨락도서관	68
자양한강도서관	78
학마을도서관	86

송산도서관	132
일가도서관	140
정남도서관	146

## 충북

청주가로수도서관	156
----------	-----

## 충남

금산기적의도서관	162
서산어린이도서관	170

## 부산

금샘도서관	92
범어도서관	98

## 전북

정읍기적의도서관	178
----------	-----

## 전남

목포시립도서관	186
---------	-----

## 대구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104
-------------	-----

## 경북

칠곡군립도서관	192
---------	-----

## 인천

검암도서관	112
수봉도서관	118

## 제주

우당도서관(조천읍도서관)	200
---------------	-----

## 경기

꿈나무정보도서관	126
----------	-----



<b>ㄱ</b>		송산도서관	132
		수봉도서관	118
강남구립못골도서관	10		
강남구립정다운도서관	16		
강서구립강서영어도서관	24		
개봉도서관	30		
검암도서관	112		
금산기적의도서관	162		
금샘도서관	92		
꿈나무정보도서관	126		
<b>ㄴ</b>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104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38		
<b>ㄷ</b>			
목포시립도서관	186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44		
<b>ㄹ</b>			
범어도서관	98		
<b>ㅁ</b>			
서산어린이도서관	170		
서울특별시교육청고덕평생학습관	50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60		
<b>ㅇ</b>		우당도서관(조천읍도서관)	200
		은뜨락도서관	68
		일가도서관	140
<b>ㅊ</b>			
		자양한강도서관	78
		정남도서관	146
		정읍기적의도서관	178
<b>ㅋ</b>			
		청주가로수도서관	156
		칠곡군립도서관	192
<b>ㅎ</b>			
		학마을도서관	86

2023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 운영사례집

지식정보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발행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편 집**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행인** 박주옥

**주 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1  
<http://www.nlcy.go.kr>

**전 화** (02)3413-4800

**팩 스** (02)3413-4759

**인 쇄** (02)2277-8524(칼라포인트)

**I S B N** 978-89-6032-436-7

※ 이 자료집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발간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